



10

199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2. 10호

(루게 540)



◆◆◆◆◆◆◆◆◆◆

## 차 례

◆◆◆◆◆◆◆◆◆◆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추인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	4
조선은 영원무궁하리라 .....	7
우리 당이 떠나온 첫 기슭에 .....	8
오직 당신만을 따르리 .....	9
끝없는 충성과 사랑 .....	9
설레이는 바다 .....	10
너를 보며 생각하네 .....	16
위대한 생을 두고 .....	17
백두산 대장수 .....	19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펼치고 .....	21
자주시대문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대저작 《주체문학론》 ..	22
우리는 백전백승한다 .....	30
중편소설이 장편소설로 된 이야기 .....	31
삶에 대한 생각 .....	34

그 미소속에 .....	37
명제해설 .....	38
두번째 위인을 맞다 .....	39
내 고향 하람산 .....	41
한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	42
축복 .....	43
나의 행복 .....	55
도래샘 .....	56
사랑의 권리 .....	66
성새 .....	71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두고... ..	72
나의 대학시절 .....	74
운물에 대한 소감 .....	76
그립던 땅에서 (1) .....	78
하나의 지향 .....	80

#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추인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고있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할 사명을 지닌 우리 문학의 본성적 요구이며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다.

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추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조직자, 향도자이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불패의 당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전투적인 당이다. 오늘 우리 당이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하고도 세련된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이다.

참으로 우리 당은 혁명위업의 계승성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한 전도양양한 당이며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가장 견결한 당으로 되였다. 우리 혁명이 걸어온 길우에는 시련도 많았고 풍파도 많았지만 우리 당은 언제나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지켜왔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의 령도가 있기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공세가 집중되는 류레없이 복잡하고 첨예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는 굳건히 고수되어왔으며 공산주의운동안에 복잡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는 오늘날에도 우리 혁명은 추호의 드림도 없이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것을 힘있게 강조하여야 한다.

우리당의 위대성을 형상함에 있어서 창작적탐구와 관심을 집중하여 모를 박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령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당은 곧 수령이고 수령은 곧 당이다.

우리 당이 위대한것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에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에 있다.

우리 당은 두분의 위대한 령도자를 진두에 모심으로써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이다.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지상의 과업이며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문학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수령은 시대와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최고전형이다. 수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자질과 품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위대한 인간인것으로 하여 주체문학의 제일주인공으로 높이 내세워져야 한다.

수령의 빛나는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세계를 알게 되고 그 위대한 모범을 크나큰 감동속에 따라배우게 된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과 백두산전설에서부터 시작된 수령형상문학은 해방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창작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수령을 형상한 혁명문학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편이 완성되고 해방후편이 련이어 발표되고있으며 영화문학 **《조선의 별》**이 완성되어 영화로 옮겨졌다. 그리고 수많은 수령형상작품들이 문학의 모든 형태에 걸쳐 다양한 형식으로 왕성하게 창작되였다.

우리는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이룩한 성과를 툴툴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는 크지만 조금도 자만할 근거가 없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는 아직 새롭게 탐구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기수로 서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는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의 진리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형상하여야 하며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깊이 학습하고 새로 발굴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전설적이야기로 전하는 사업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하는것은 최대의 영예이고 특전이며 지상의 과업이며 가장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 작가들은 문무충효를 겸비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형상창조에 모든 열정과 사색, 탐구와 재능을 다 바쳐야 한다.

우리 문학은 이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냄으로써 지도자동지의 형상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형상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작가들은 큰 형식의 작품뿐아니라 크고작은 다양한 형식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을 빛나게 창작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기본품성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고수하고 완성해나가는것을 첫째가는 가장 숭고한사명으로 삼으시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과 효성을 다하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경애하는 수

령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품모와 자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탁월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혁명과 건설사업전반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누구도 허물수 없는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으시였다.

우리 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통하여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려내야 하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위대한 품모를 감동깊이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은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데서 힘있는 무기로, 혁명의 교과서로 되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하는데서 비할바없는 감화력을 가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위대성과 함께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 위업수행에 이바지할 사명을 지닌 우리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며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추이고 혁명의 참모부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문학작품에 우리 당의 특성을 옹계 반영하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우리 당은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밑에 오직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있으며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으로 우리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의 고유한 특성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나서는 미확실천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을 잘 그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방후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과 건국, 건군 사업,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기초건설과 사회주의공업화의 수행, 조국통일위업, 그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과는 다 우리 당의 활동

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져놓은것은 당의 빛나는 업적의 하나이다.

문학에서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기 위한 투쟁과 활동과정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을 힘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인민으로 키워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해놓은 당의 업적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창작실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3위일체의 원칙에서 그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내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참모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는 당을 통하여 실현되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도 당의 품에서 실현된다.

작가들은 작품에서 당을 형상할 때에 반드시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당으로 그려야 한다. 수령과 대중과의 련관 밖에서 당을 형상하면 하나의 개별적인 집단으로 밖에 그릴수 없게 되며 결국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옳게 보여줄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당을 수령과 대중과의 련관속에서 깊이 있게 형상하여야 하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당,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통일단결되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당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송가문학의 사상 예술적수준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작가들은 당을 노래한 송가작품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우리 문학에서 송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그 사상예술적질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이것은 합법칙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당의 위대성이 날을 따라 뚜렷이 과시되고 당을 따르는 인민의 충성심이 비상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에 대한 송가를 더 많이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하여야 한다.

송가문학에서 당의 형상은 정서의 열도가 비상히 강렬하고 그 세계가 숭엄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송가는 원래 거창한 역사적사변과 대상을 웅장하고 장엄한 서정적화폭에 담아 노래하는 문학이기때문이다.

우리는 당의 위대성을 노래한 작품에서 격식화하거나 요란한 수식사와 현란한 미사려구를 랍발하면서 정치적인 내용을 직선적으로 노래하거나 사실을 분식하거나 공허하게 웨치는것과 같은 부족점을 결정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특히 당을 직접 노래하는 송가에서 비유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지금 문학작품에서 수령을 태양에, 당을 어머니에 비기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비유를 반드시 그렇게만 한다는 법은 없다. 당에 대한 비유를 독특하게 한다고 하여 당을 아무데나 고려없이 비기는 경향을 경계하여야 한다. 당에 대한 비유는 개성적이고 특색있게 하면서도 납득이 가도록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을 형상할 때 비유하는 자연현상이나 다른 대상은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인상과 본래의 의미가 가지는 여러가지 색깔을 충분히 검토해본다음 정치적으로나 형상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때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당에 대한 예술적협상을 당조직선과 당일군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는데도 깊은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작가들은 종자의 특성과 주제의 요구에 따라 당조직선을 전면에 내놓고 그릴수도 있고 뒤에 깔아놓고 그릴수도 있지만 당조직선은 수령과 운명을 같이하는 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는 생명선으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가진 당일군의 전형을 인간적으로 개성적으로 잘 그려야 한다.

당의 위대성을 그런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영예로운 사명이다.

작가들은 당을 형상한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당을 끝없이 신뢰하며 당의 위업수행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우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조선은 영원무궁하리라

박호범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끼는

그것과도 같아라

한편의 시에 시대가 비끼

우리 수령님의 송시는

기빠서 기빠서 소리를 내어 한자

감격에 눈시울을 적시며 또 한자

백번을 읽고 천번을 새기면

그 뜻을 다 헤아릴수 있으라

마흔두자

그 한자한자를 탐으로 쌓으면

백두산의 높이와 같고

그 한자한자를 땅위에 새기면

우리 혁명이 걸어온 긴긴 력사가 되고

마흔두자

그 한자한자에

우리 수령님 내다보신 어제와 오늘이 있고

그 한자한자에

영원무궁 조선의 래일이 굽이치고있나니

정일봉은 거연하고

소백수는 용용하고

산과 물을 어루만지며 흘러가는 흰구름도

우리 수령님의 송시를

세상에 전하러 흰날개를 펼치는가

우리 수령님

백두의 하늘밑에서

안으신 그 기쁨이

이 땅에 천만떨기 꽃으로 만발하고 .

내다보신 그 미래가

우리의 머리위에 태양으로 빛나는것 아니냐

세상사람들도

혁명과 수령을 이야기하며

혁명과 계승을 이야기하며

우리 수령님이 위대하여

우리 지도자동지가 위대하여

부러워 부러워 조선을 우러르는것 아니냐

시대를 비쳐주는 거울과도 같은

영원무궁 하늘과도 같은

우리 수령님의 송시엔

혁명의 기쁨이 함뿔 넘쳐있고

혁명의 승리가 창창히 열려있나니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한껏 열어젖히니

아, 터져오르는 목소리

아, **김정일**동지 만세!

하늘땅에 넘치는구나

아, **김정일** 그 존함으로 부르는 우리 세상이어!

《…우리는 첫 당조직에 건설동지사라는 소박한 명칭을 붙이였다. 그 명칭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의 첫걸음을 떼였고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발전 시키며 중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포부와 의지를 그대로 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 우리 당이 떠나온 첫 기슭에

리상림

개구리울음소리 정가로운  
무개하의 개버들숲  
키낮은 진명학교 작은 교실에  
붉은기 비스듬히 세워놓고  
연락앞에 둘러앉은 애젊은 청년들

당이어  
조선로동당이어  
이것이 그대 떠나온 첫 기슭에 새겨진  
잊을수 없는 모습이었다 .

당이라 부르기엔  
너무나도 적은 수로 무어진  
《건설동지사》  
혁명이란 크나큰 배를 끌기엔  
너무도 청소한  
《건설동지사》  
여기엔 없었다  
발끝까지 무장한 백만대적과 맞설  
대포 하나 비행기 하나도  
여기엔 없었다  
철쇄에 얹힌 2천만민중을  
구원하고 먹여살릴 돈도 재산도

하지만 있었다  
여기엔  
백설같이 깨끗한 심장들이  
신념으로 추켜든 필승불패의 키가  
있었다 여기엔  
순식간에 강철의 결집을 이루고  
그 어떤 풍랑도 맞받아 헤쳐갈  
위력한 동지애의 노대가

오, 위대한 한별의 녀을  
피처럼 타는 붉은 기폭에 새겨들고  
살아도 죽어도 운명을 같이할  
열화같은 의리로 어깨성 쌓으며  
그대 달려온 력사의 항로여  
다른 그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그대 경박호의 흔들레판을 건넜던가  
다른 그 누가 가르쳐주는 싸움법으로  
그대 걸음걸음 막아서는 총검의 숲을 헤쳤던가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여  
날아드는 적탄앞에 저저마다 나설 때  
배낭속 한홉의 미시가루를  
천홉만홉으로 무거이 서로 나눌 때  
가슴가슴에 철의 립자로 굳어진  
동지의 의리여  
혁명의 신념이어

그 정신  
그 의리  
그 신념으로  
그대 해쳐넘은 혈전의 수십만리길이어  
한 세대에 강대한 두 적을 때려부시며  
창조와 비약의 슬기찬 진군으로  
그대 안아올린 오늘의 빛나는 조국이어

오, 《건설동지사》  
동지를 위함에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며  
뜻도 같이 운명도 같이 하는 그 녀으로  
수령님을 따르는 일심단결의 대오에  
수백만 당원을, 수천만 군중을 철석같이  
묶어세운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첫 씨앗이어

백이 숨을 쉬어도 오직 하나  
수령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고  
천이 길을 걸어도 한어깨 곁고  
주체의 한길로만 걸어온 우리 당  
그 어떤 핵무기로도 깰수 없는  
필승불패의 일심단결이어

승리로 가득차리  
그대의 앞길은  
영광으로 줄기차리  
그대의 미래는  
오오,  
필승불패의 조선로동당이어!



## 오직 당신만을 따르리

아이자이아 쿼오 모리슨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우리는 오직 당신만을 따르리  
신출귀몰한 축지법을 쓰신  
세계에서 가장 명성높으신분  
당신은 신기한 자질을 타고나신분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우리는 당신만을 따르리  
당신은 젊으실 때에도  
조국의 리익  
억압받는 인민의 복리를 위해  
영웅적투쟁을 벌리시여  
나라의 자주권  
인민의 자주권을 되찾으시였어라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당신의 고귀한 존함은  
산천초목도  
못잊어 외우고

산봉우리에도 골짜기에도  
시와 노래 되어 울려퍼지나니  
우리의 가장 친근하신분  
당신은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여라

오, **김일성** 동지  
당신은 우리의 심장의 노래  
심장도 마음도  
몸과 녀도  
당신께 바치노라  
모든 영광 당신께 드리노라

당신께  
안녕과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노라  
당신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노라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우리는 오직 당신만을 따르리라

(필자는 가나 시인임)

## 끝없는 충성과 사랑

히로자와 마스미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  
조국광복 그러보며 목숨바쳐 싸운  
백두산밀영에서 **김정일** 동지 탄생하시였어라  
김정숙녀사의 충성심 받아안으시며  
인민의 자주위업 실현할 큰뜻 품으시고  
성장하시였어라

주석을 령도와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우시고  
주석을 옹호보위하시며  
모든것을 주석의 위업실현에 바쳐가시는  
그이

두세명의 섬마을학생들 위해  
훌륭한 학교를 세워주시고

항일투사나 산촌의 로인  
해외동포들에게도 크나큰 관심 돌리시는  
그이

그이에 대한 이야기 진함이 없고  
그이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모습 뜨겁게 어려오거니  
우리도 자주시대의 지도자  
끝없는 충성과 사랑의 귀감이신

**김정일** 동지 따라 싸워가리라

그이와 함께

주체사상 신념으로 삼으리라

**김정일** 동지의 만수무강 축원하노라

(필자는 일본 오사카 **김일성**주의연구회 회원임)

## 설레이는 바다

김동호

잠풍한 봄날의 밤이었다. .

군항을 떠난 어뢰정 한척이 서해기슭을 벗어나고 있었다. 탐조등불빛이! 어둠의 장막을 밀어젖히며 바다 멀리까지 환히 비치었다.

일렁이는 파도가 선체를 떠밀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못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에 은하수가 비껴 흘렀다. 별빛이 배전에서 부서지었다. 선수쪽에 걸려있는 측수높은 야외전등이 갑판우를 환히 비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수쪽 한가운데 놓여있는 접이의자에 앉아 계시었다. 곁에 어깨가 짙 버그러지고 키가 늘씬한 해군소장 강혁철이 서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이름할수 없는 감격에 젖어있었다. 지난날이 더듬어졌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벌써 높은 표창을 수여받았었다. 그것은 미제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위훈을 세운 공로에서였다. 혁철은 해병으로서의 임무를 응당히 수행했을뿐인데 이런 영광이 자기한테 차례질줄은 몰랐었다. 그후 그는 해군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사령부 참모부에서 사업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강혁철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이께서는 혁철의 손을 힘껏 잡아주시며 《젊었구만…》 하고 대견해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병사시절에 동무가 발휘한 그 용감성과 대담성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동무에게서 해안의 한 부대를 책임지우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해병들을 일당백의 대담하고 용감한 싸움군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수령님의 기대와 신임에 보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날부터 혁철에게는 보다 중요한 임무가 맡겨지었다. 혁철은 그달음으로 부대에 내려와서 새로운 직무를 인계받고 사업에 착수하였었다.

그때로부터 어언 2년세월이 흘러갔다. …그런데 오늘밤 이렇게 그이를 모시고 야간해상사격장으로 나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이께서는 해가 질무렵 서해안에 새로 일떠세울 화학공장부지를 돌아보시러 나오시었다가 린근에 위치하고있는 강혁철의 부대를 찾으시였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혁철의 안내를 받으면서 지휘부와

병실을 돌아보시었다. 부대관리며 전사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었다. 뒤이어 그이께서는 오늘밤 야간해상사격훈련을 하게 된다는 보고를 받으시었다.

《마침 잘됐습니다. 함께 나가봅시다.》

혁철은 너무도 뜻밖의 영광에 뿌듯해지는 마음을 견잡지 못해하였다.

《어느 배를 타고 가겠습니까?》

그이의 물으심에 혁철은 선뜻 대답을 드릴수가 없었다. 자기는 경쾌하고 비교적 속도가 빠른 연락정을 대기시켜놓았지만 그 자그마한 배에다 그이를 모실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래서 그이를 모신일이 있는 《충성》호를 불러오겠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조용히 만류하시었다.

《사격장으로 나가면서 뒤편에 그런 배를 타고 가겠습니까. 속도가 빠른 어뢰정을 타고 갑시다.》

이렇게 되어 혁철은 그이를 어뢰정에 모시게 되었던것이다. …

그이께서 타신 어뢰정은 들쭉날쭉한 갑들과 만들로 이루어진 서해기슭을 점점 멀리하며 속도를 높이였다.

그이께서는 배가 떠나는 해변에 눈길을 보내시었다.

저 멀리 제련소에서 내뿜는 전기로의 화광이 백야처럼 바다우에 쏟아져내리었다. 아담하게 일떠선 농촌문화주택들이며 탑식고층주택들의 명룡한 불빛이 시야에 비껴흘렀다. 마치도 집집의 창문들에 별들이 내려앉은듯싶었다.

물보라는 쉽없이 거품을 일쿠며 흘러가고 파도는 드높이 사품치었다.

보석을 뿌려놓은듯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중천에 굴쫓각같은 상현달이 떠있었다.

하늘도 바다도 함께 속삭이며 이밤을 잠들지 못하고있는듯싶었다.

의자등받이에 기우듬히 기대고 앉으시여 해안의 일경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 감격에 겨우신 목소리로 조용히 뇌이시었다.

《우리의 바다는 밤에 보아도 저렇듯 아름답거든. 바다에서 보는 물의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한동안 배가 떠나는 군항이며 길다란 해안선을

점도록 바라보고계시던 그이께서는 배가 달리는 먼 바다쪽으로 눈길을 옮기시었다.

가없이 넓은 바다가 끝간데없이 펼쳐져있었다.

바람 한점 없는 밤이었지만 바다는 고요히 숨쉬고있는듯싶었다. 그 숨결이 그이의 얇은 옷자락 밑으로 파뚝이 스며들었다.

야외고성기에서 《결전의 길로》의 장중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선률은 밤바다우를 멀리 미끄러져 울려갔다.

그이께서는 음악속에 잠겨드는 부드럽고 정다운 바다의 숨결을 몸으로 느끼시며 명상에 잠기시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용감한 해병들은 조국의 명해를 지켜 얼마나 영웅적으로 싸웠는가. 바다에서 최후를 마친 무명의 전사들도 수없이 많을것이다. 오늘은 그들의 아들딸들이 아버지가 서있던 그자리를 굳건히 지켜서있지 않는가. 이밤 사격장에 나선 해병들은 아버지들이 남긴 념원을 가슴에 새기며 적들을 단매에 요정낼 드높은 각오를 다지고있을것이다.

그이께서는 배의 동음소리를 가늠하시며 혁철이쪽으로 얼굴을 돌리시었다.

《기관성능이 꽤찮은것 같은데 지금 달리는 속도들 보면 ○○노트밖에 안되겠구만.》

혁철은 가슴이 찢어질 해졌다.

배우에서 오래동안 생활해온 해병들도 쉽사리 가늠하지 못하는 배의 속도를 그이께서는 한순간에 정확히 판단하시었던것이다.

배가 떠날 림박에 혁철은 정장에게 보통때보다 속도를 높여 ○○노트로 달리자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배가 빨리 달리는것을 좋아하신다고 강조했던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잠시 머뭇거리고있는데 그이께서는 얼마간 음성을 높여 말씀하시었다.

《속도가 높은 어뢰정인데 ○○노트로 달려서야 성찰니까. 마흔(최대속도)으로 달립시다.》

그이의 말씀이 끝나기 바쁘게 혁철은 정장에게 마흔으로 달리라고 지시하였다.

어뢰정은 곧 최대속도로 달리였다. 세찬 물보라가 폭풍처럼 배전에 날아들었고 귀뿌리를 쑥 뽑아갈듯한 맵판 바람이 불시에 일었다. 어뢰정은 바다위에 떠있는것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가는 것만 같았다.

그이의 얼굴이며 옷자락에 물기가 축축히 습배이기 시작했다. 했어도 그이께서는 끄떡하지 않으시었다.

《멋있습니다. 이제야 어뢰정이 자기 성능을 다내는가보군. 배를 탄것 같습니다. 보통때처럼 천천히 달릴바에야 뭇때문에 어뢰정을 타겠습니까. 어뢰정은 내 성미에 맞습니다.》

그이께서는 움쭉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입가에 그리시었다.

혁철은 바람을 막아 그이의 곁에 바로 다가섰다.

《이런 최대항해속도에서. 해병들에게 전투동작을 시켜왔습니까?》

그이께서는 삼시에 온 바다가 솟구쳐오르는듯한 격랑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혁철을 돌아다보시며 물으시었다.

《예.》

《지휘관들뿐만아니라 전투원들모두가 기술적제원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잘 알고있으리라고 봅니다. 사격시간은 몇시로 정했습니까?》

《스물두시로 정했습니다.》

스물두시를 사격시간으로 정한것은 그 시간을 가까이해서 달이 지고 무중(안개)이 일게 된다는 기상수문국의 예보를 입수했기때문이었다. 평시에 진행되는 훈련이라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정황을 선택하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을 명심하고있었던것이었다.

혁철은 사격시간을 스물두시로 정하게 된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었다.

《스물두시로 사격시간을 정한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훈련은 어디까지나 어려운 정황을 택해서 해야 합니다. 쉬운 조건에서 하는 훈련이야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오늘밤에 진행하게 될 야간해상사격을 잘해봅시다.》

그이의 안광에 근엄한 빛이 어리었다.

잠시 아무 말씀이 없던 그이께서 왼쪽 바다멀리를 주의깊이 살펴보더니 배를 천천히 몰라고 이르시었다.

혁철은 의아히 그이를 쳐다보았다. 방금전만 해로 최대속도로 달리자고 하시던 그이가 아니신가. 그런데 무슨 일때문에 천천히 달리자고 하시는것일까? 혹시 어디 불편해서 그러시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정장에게 속도를 늦추어 미속으로 달리라고 말했다.

어뢰정은 점차 속도를 죽이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멀리 수평선상을 손짓하시며 물으시었다.

《저기 바라보이는것이 등대섬이 아닙니까?》

혁철은 그이께서 손짓하시는곳에 눈을 주었다.

푸름한 운무속에 우뚝 솟은 바위같은것이 아스라니 나타났고 거기에서 불빛이 명멸하였다.

부임해서 일주일만에 그 섬에 들렀던 일을 더듬어보며 혁철은 그렇다고 대답을 드리였다.

《동문 저 섬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해군경비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가보군합니다.》

《그럼 섬생활을 구체적으로 알겠구만. 어디 그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물보라가 잦아들고 바람이 멎자 그이께서는 담배를 꺼내시었다. 갑에 물기가 어려있었지만 개

의치 않으시고 담배가치를 꺼내서 무릅없이 혁철이한테 권했다. 그가 머뭇거리자 그이께서는 《어서 한대 피워보시오. 가치는 젓지 않았습니다.》 하시며 갑채로 그앞에 내미시었다.

담배를 한가치 받아권 혁철은 라이타를 꺼내어 그이께 불을 켜드리었다.

하이얀 담배연기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혁철은 담배를 한모금 조심히 빨아들이고는 섬에 가서 보고 느낀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섬이 어찌나도 작은지 1대 10만 축도의 군용지도에도 표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실로 섬은 작았다.

등대를 지켜 몇해전까지만도 4세대밖에 안되던 집이 여라문세대로 불어났고 분교와 진료소도 세워져있었다. 등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섬기슭에 해군경비초소가 있었는데 수시로 해군전대와 무선연락을 하고있었다.

섬에는 전쟁전부터 등대와 운명을 같이해온 등대장아바이와 함께 한생을 등대에 바쳐온 나 많은 늙은이들이 셋이 있었고 젊은이라고는 제대군인 무전수청년 한사람뿐이었다. 분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라야 도합 대여섯명밖에 안되였다. 새날이 희뵈히 밝아올무렵이면 해를 치며 울어예는 닭의 울음소리가 마치도 행복한 동산의 메아리처럼 바다를 누비며 멀리 흘러갔다. 등대섬에서는 돼지와 양, 염소도 길렀고 꿩과 노루, 메추리와 토끼도 놓아 길렀다. 섬기슭에 배, 복숭아, 살구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어 봄이면 등대섬은 향기 그윽한 꽃밭속에 묻히군했다.

등대섬사람들은 낮에는 섬을 가꾸고 밤이 오면 한데 모여앉아 텔레비존을 보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였다.

혁철은 그이께 등대섬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해 세세히 이야기해드리었다.

《...처음 제가 섬에 갔을 때 제일 인상깊이 남은건 벵랑턱에서 죽지부러진 갈매기를 안고 내려오는 젊은이를 만난것이었습니다. 등대섬 무전수청년이 있는데 〈부상병〉을 진료소에 후송한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청년이로군.》

그이께서 가볍게 미소지으시자 혁철은 한층 더 어조를 높였다.

《섬은 온통 갈매기로 뒤덮였는데 그 청년이 안은것은 새끼갈매기였습니다. 그 무전수청년의 말에 의하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군해서 그럴 때마다 벵랑턱에 나와보군한다는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고계시던 그이께서는 그 제대군인무전수청년이 인상깊게 그려지시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시었다.

《무전수청년이 몇살이나 됐습니까?》

《스물아홉살이라고 했습니다.》

《장가를 갔는지 알아봤습니까?》

《예, 장가를 갔습니다.》

《처녀시절에 뭇하던 동무를 맞아들였답니까?》

《고향에서 인민학교 교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등대장아바이의 말에 의하면 섬에 들어와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있는데 섬에 뿌리내린 한떨기의 꽃처럼 아름다운 녀성이라는겁니다. 얼굴도 잘생겼지만 마음 또한 비단결같다고 하면서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갓 출가온 녀성이 외진섬에 와있자니 물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언제 한번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무전수청년과 함께 섬을 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간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 부부를 무척 따랐고 어른들은 〈한쌍의 원앙새가 등대섬을 지켜서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습니다.》

《훌륭한 동무들이요.》

그이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며 감격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흥미있게 이야기를 섬기던 그가 잠시 주저하며 머뭇거리자 그이께서는 《혹시 그들사이에 무슨일이 벌어졌던게 아니요?》 하고 웃으시었다.

그제야 혁철은 마음을 정돈하며 얼마간 누그러진 목소리로 섬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었다.

《그러던 그들사이에 그만 정싸움이 벌어졌다는게 아니겠습니까.》

...무전수청년은 안해가 해산달이 가까와오자 친정에 가서 해산하고 오라고 일렸으나 그의 안해는 종시 떠나지 않았다.

《등대는 조국의 눈이라며 한생을 바쳐 등대를 지키겠다!》고 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귀중히 만들어나가려면 대들 이을 자식의 태도 등대섬에 묻어야 하리라는 결심을 품었던것이다.

《친정이 평양에 있고 당신 고향도 평양인데 산원에 가서 해산하면 나도 마음을 놓을수 있고 당신도 편안할수 있지 않소.》

넌편의 그 말에 안해는 자기 의사를 강경히 주장해나섰다.

《등대섬에도 진료소가 있지 않아요.》

《거야 어디까지나 진료소지 산원은 아니지 않소. 그러다 무슨 일을 저지를려구...》

《마음놓으세요. 나라에서는 이 등대섬을 늘 보살펴주고있지 않아요. 당에서는 다섯명의 아이들을 위해 분교를 세워주었구 철따라 교복과 학용품을 비롯해서 우편물까지 비행기로 실어다주고 있지않아요. 어디 그뿐이예요. 불과 여라문세대밖에안되는 등대섬사람들앞에서 50여명이나 되는 인민군협주단 배우들이 공연도 해주지 않았나요.》

그날 등대섬사람들보다 오히려 배우들이 섬사람들에게 꽃다발까지 안겨주며 축하해주던 일을 생각하면 나는 한순간도 이 섬을 떠나고싶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는 혁철이도 목이 메이는지 눈시울을 습벽이었다.

그이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며 등대섬 쪽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실로 무심히 스쳐 보낼수 없는 조국의 한부분이었다.

그이께서는 어째서인지 이 순간부터 섬을 두고, 섬에 있는 너선생을 두고 마음이 곱절로 더썩여 지시었다.

한동안 숙연한 정적이 바다와 갑판우에 내리드려왔다.

잠시후 그이께서 동행한 수원을 찾으시었다.

한 일군이 그이의 말씀을 받으려고 조용히 다가섰다.

그이께서는 그 일군에게 말씀하시었다.

《시장책임비서동무보고 래일아침 7시에 화학공장건설부지에 다시 나가보자고 알리시오. 제2방안을가지고 나오라고 하시오. 자금이 덜 들고 시공조건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폐수로 하여 바다를 오염시키고 근해어족들이 살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부지에다 화학공장을 건설할수는 없습니다. 만일 부득이한 경우라면 정화탱크를 선행시켜 단한방울의 폐수도 바다에 스며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일군에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다시 혁철이와 마주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며 조용히 뇌이시었다. .

《사격시간은 아직 멀었구만.》

순간 혁철은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그이께서 이렇게 사격장을 친히 나와보실줄 알았다면 사격시간을 훨씬 앞당겼어야 했으리라는 후회가 들었다. 그이께서는 야간해상사격장으로 나가시는 그 길우에서도 많은 일을 계획하시며 시간을 쪼개가시였던것이다. 그런데 그이께서 야간해상사격까지 보시고 래일아침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면 이밤 주무실 시간은 겨우 한두시간에 불과할것이었다. 그이를 다문 얼마만이라도 더 쉬시게 하려면 사격시간을 앞당겨야 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격시간을 앞당기겠습니다.》

《사격시간을 앞당기다니?...》

어느새 혁철의 마음을 짚어보신 그이께서는 놀라시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시며 뒤를 눌러 말씀하시었다.

《이미 정해놓은 사격시간을 앞당겨서야 됩니까. 일단 결심한이상 스물두시로 정했으면 무조건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병사는 시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미 정해놓은 사격시간을 어길 권리가 없습니다.》

《...》

혁철은 다수곳이 머리를 숙이였다.

잔잔한 파도가 못발을 불러오며 일렁이였다. 또글또글 영근 별들이 금빛으로 부서지며 바다물 속에 찾아들었다.

사격장은 아직도 멀리에 떨어져있었다.

그이께서는 수면우에 눈길을 보내시며 말씀하시었다.

《마흔으로 달립시다!》

어뢰정은 또다시 바다를 짹 갈라놓으며 빛발쳐 달리였다.

갑자기 구름장이 밀려오며 사위는 컴컴해지였다.

하늘이 낮게 드리웠다. 달이 지자 총총하던 못별들마저 구름속에 얼굴을 가리우고 흔적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기상수문국의 예보는 정확했다. 무중이 일기 시작했던것이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어뢰정은 사격장을 가까이 했다.

《사격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군.》

그이께서는 혼자말씀처럼 뇌이시며 사격장쪽을 지켜보시었다.

배는 퍼그나 먼 해상으로 달려왔다.

잠시후 사격장에 와닿은 어뢰정은 닻을 내리였다.

그이께서는 혁철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사령탑이 있는 높은 단에 오르시여 검은 색깔의 야간쌍안경으로 함들과 전투정들을 일일이 살펴보시었다.

먼 바다쪽을 향해 머리를 높이 추켜든 함의 포신들이며 크기가 각이한 수십척의 전투정들에 설치되어있는 대구경포신들이 렌즈속에 비끼였다.

《대단하오, 대단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매우 대견해하시며 눈가에서 쌍안경을 떼지 않으시였다.

사격시간은 점점 가까와왔다.

긴장으로 인한 흥분때문인지 목덜미가 불깃하게 달아오른 혁철은 전투함정들에 《사격준비》구령을 내리려고 서둘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쌍안경을내리우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혁철을 조용히 멈춰세우시였다.

《가만 인제 사격을 진행하면 함포소리가 등대섬에 울려가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크게 울려갑니다.》

함포소리의 진폭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혁철은 확신성있게 대답을 드리였다.

《흔히 사람들은 발파소리에도 놀라곤하는데 갑자기 함포소리가 울리면 섬마을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밤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을텐데 놀래워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뒤를 이어 등대섬에 무선을 결속할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등대섬에 있는 해안초소와는 늘 무선이 결속되어있는만큼 초소에 련계해주면 곧 등대와 무선이 결속될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럼 그들이 놀라지 않도록 잠시후에 사격이 진행된다는것을 미리 알려줍시다.》

《알았습니다.》

혁철은 급히 사령실전화로 무전수에게 등대와 결속하라고 지시하였다.

긴장한 한초한초가 흘러갔다.

앞으로 사격시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혁철은 초조해지는 마음을 누잠하지 못해하며 무전실에 전화를 걸었다. 손목시계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며 전화를 받고있는 그의 두눈에 심각한 빛이 어리였다.

등대섬무전수가 진료소에 가고 없다고 그곳 등대근무원이 알려왔다. 그의 말에 의하면 무전수청년이 안해가 해산을 할것 같다면서 진료소에 알려려 갔다는것이였다.

혁철은 무전수청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수가 없어 등대근무원에게 잠시후에 해상포사격훈련을 한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이윽고 송수화기를 놓은 혁철은 그이의 앞으로 다가서며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등대섬에 이제 곧 해상사격훈련이 있다는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잘했습니다.…해상사격훈련때문에 등대섬사람들이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끼게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다른 사정은 없는지 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이의 다심한 물음속에 혁철은 등대섬무전수청년이 자리를 뜨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였다.

《아니 그럼 그 녀교원이 해산을 하게 된단 말이지요!》

은근하고 친근하게 뇌이시는 그이의 목소리는 감개어린 놀라움에 젖어있었다.

다음순간 그이께서는 무겁게 갑판우를 거니시였다.

…섬에 뿌리내린 한떨기의 꽃송이, 마음 또한 비단결같다는 녀선생!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귀중히 받들어나가려면 대를 이을 자식의 태도 등대섬에 묻어야 하리라는 그 결심…

단 한번도 만나본적 없건만 이미 오래전에 친숙해진 다정한 얼굴인듯 녀선생의 모습이 그이의 눈앞에 생생히 어리어왔다.

잠시후 사령실전화종소리가 울리였다.

혁철은 서둘러 송수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받

은 그는 송수화기를 걸개팔에 걸어놓고 그이의 앞으로 다가섰다.

《무전수청년이 진료소에 갔다오느라고 자리를 비운데 대해 사죄해왔습니다.》

《섬에 경사가 생긴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사죄라니…》

그이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시계를 보시였다.

혁철이도 팔소매깃을 약간 밀어올리며 손목시계를 보았다.

한초 또 한초…

고르로운 초침소리가 혁철의 가슴에 느닷없이 잦아들었다.

뒤짐을 진채 갑판을 거닐던 그이께서 똑 걸음을 멈추고 혁철을 보시였다.

《섬에 다시한번 전화를 걸어 녀선생의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시오.》

대답을 드리고난 혁철이가 송수화기를 들고 무전수청년과 대화를 주고받더니 그이앞으로 다가섰다.

《아직 림박하지는 않았답니다.》

《림박하지는 않았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뇌이시며 다시 걸음을 옮기시였다.

《사격을 어떻게 한다?》

《…》

혁철은 그이의 심중을 어떻게 가늠해야 할지 종잡을수 없어 온몸이 굳어지였다.

그가 지금 맞닥든 문제는 그 어떤 용감성이나 대담성에 관한것이 아니였다. 병사의 심장은 무엇으로 뚫어번져야 하며 병사의 자세와 림장이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것을 가슴깊이 느끼고있을뿐이였다.

시간이란 령혹한것이여서 다급해지는 그의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덧없이 흘러만갔다. 이밤 다문 얼마동안이라도 시간을 멈춰세울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격시간은 한초한초 다가왔다.

혁철은 도무지 용단을 내릴수가 없었다.

사격과 해산!

이 두 극이 그의 머리를 확 압착하고있었다.

과연 어느것을 우위에 놓아야 하며 어느쪽으로 먼저 기울어져야 하는가?

그의 이런 마음을 짚어보신 그이께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혁철동무, 녀선생이 해산을 앞두었다는데 사격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

했어도 혁철은 종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의 가슴에는 사격외의 다른것이란 아무것도 없었으며 바다도 등대섬도 오직 사격에 복종해야 한

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의 목소리는 저오기 깔리었고 사뭇 애원에 차있었다.

그이께서는 다정한 음성으로 혁철의 가슴을 따듯이 쓸어주시었다.

《내 그렇지 않아도 섬에서 해산하게 된다는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었는데... 녀선생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충격을 주어 놀라게 해셔야 되겠습니까.》

《...》

《전화의 날 전선길에 오르신 장군님께서서는 학생아이들의 글읽는 소리에 방해가 될가보아 학교 앞 큰길로 지나가게 되어있는 땅크와 장갑차의 행군길을 멀리 에돌아가게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소리가 그 포근한 요람을 흔들어놓아서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크나큰 뜻이었고 너무나도 뜨거운 말 씀이었다.

하지만 사격시간을 뒤로 미룰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그이께서 온밤을 바다우에서 새우실수 있었던것이다.

《사격!》, 《앞으로!》하는 구령과 명령으로만 체질화된 혁철이의 가슴은 몹시 괴로웠다.

그의 마음속에 비낀 녀선생의 해산은 사격이라는 그 어마어마한것에 비하면 얼마든지 무시해버릴수 있는 범상한것에 불과했던것이다.

《아직 용단이 내려지지 않는 모양이구만...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결심을 내리기가 어려울수도있을겁니다. 그렇지만 어느때 어떤 정황에 맞다들더라도 병사의 가슴에는 조국과 인민이라는 그 위대하고 숭엄한 감정이 꼭 차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제 등대섬에 경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땅우에 또 하나의 새 생명이 탄생한단 말입니다. 그 새 생명을 떠나서 우리가 조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동무도 나도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얼마간 주름이 잡히었던 혁철의 가슴을 후더욱게 말끔히 펴주시었다.

그것은 비단 혁철이만이 아니였다.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전군의 병사들을 하나같이 품어안으시고 키워주시는 그런 심정이였다.

혁철은 어깨우에 놓인 짐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은듯 그이의 말썽을 가슴에 깊이 새기였다.

그이께서는 바다를 오염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화학공장부지를 바로잡아주시려고 사격장으로 나가시는 그 길우에서도 마음을 쓰시였고 이 름없는 등대섬의 자그마한 불빛을 보시고도 그곳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인제 태여날 새 생명을 지켜 망망한 바다우에 것처럼 마음을 달리시는것이

아닌가.

병사는 하나의 조약돌, 한줌의 흙, 한그루의 나무에서도 조국의 숨결과 맥박을 느껴야 한다.

병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손에 무장을 잡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나는 해산을 앞둔 녀선생과 이제 세상에 고고성을 터치게 될 새 생명에 대해 얼마나 마음뻘뻘한가. 병사의 가슴에 인간에 대한 존엄과 애정이 차있지 않을 때 조국을 위한 성전에서 영웅성도 용감성도 발휘할수 없다는 이 크나큰 진리를 혁철은 새롭게 깨달은것이였다.

그이께서 이밤 사격장으로 나오신것은 단순히 해병들의 사격훈련을 봐주기 위해서만이 아니시였다. 한 지휘관의 어깨우에 무겁고도 영예로운 짐을 짊어지우시고는 그것을 성실하게 역척같이 떠메고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키워주기 위해서였다는것을 혁철은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그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그이께서는 결연히 그루를 박아 지시하시였다.

《사격시간을 뒤로 미루시다!》

그이의 숭엄한 목소리가 혁철의 가슴벽을 쿵 울려주었다.

《전체 해병들에게 사격명령이 내릴 때까지 자기위치에서 대기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등대섬의 녀선생을 물으로, 보다 안전한 시병원으로 보내도록하시오.》

《알았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인 혁철은 전투명령을 받았을 때처럼 거수경례를 올리고 그이앞에서 돌아섰다.

명령은 삽시에 사령탑과 조타실에 그리고 포신 앞에 서있는 해병들의 가슴가슴에 뜨겁게 흘러들었다.

물으로 달려갈 한척의 배가 파도를 헤가르며 곧추 등대섬으로 향하였다.

해병들의 감격에 젖은 눈길들이 일제히 그 배에로 쏠리였다.

금시 불을 터뜨려덜듯 머리를 높이 쳐들었던 함의 포신들이 그 배길을 지켜 엄숙히 서있는듯 싶었다.

해병들의 눈빛은 점차 밝은 물기로 번뜩이였다.

그들을 지켜보는 혁철의 눈썹리가 시큰해졌다.

이밤 그이의 말썽을 받아안은 해병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저로써 숭엄히 서있는것일가.

그들은 이제 태여날 새 생명만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이 땅과 자기를 키워준 그 품이 너무도 고마워 가슴 들먹이며 흐느끼는것이 아닐가.

무한한 걱정과 흥분속에 시간은 한초한초 흘러갔다.

그이께서는 사령탑란간을 짚고서신채 멀리 등

대석이 있는 바다쪽을 점도록 지켜보시며 따스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혁철동무! 동무나 나나 그리고 저 해병들모두가 오늘밤 해풍을 맞으며 바다우에서 보내는것이 무엇때문이요. 오늘밤에 진행하게 될 사격훈련도 바로 우리 인민들의 요람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요!》

그이의 우렁하신 음성이 바다우에 멀리 울려갔다. 그 메아리를 실은 바다는 거창한 숨결로 설레이었다. 그이의 목소리는 대양과 대양을 넘어 지구의 한끝까지 높이 울려퍼지는듯싶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고난 혁철은 불덩어리 같은것이 치밀어올라 눈지방을 살쾅이 내리쬘았다. 그의 두눈에 뜨거운것이 서서히 고이였다.

그이께서는 이밤 온갖 기쁨을 한꺼번에 받아안으신듯 환히 미소를 지으시며 담배를 꺼내시었다.

《얼마나 좋은 조국의 밤이요! 이런 밤엔 쉽없이 음악이 흘렀으면 좋겠구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안광은 솟아오르는 아침해와도 같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이의 어깨우에 걸쳐있는 엷은 봄외투자락이 바다바람에 기폭처럼 나뭇기였다.

경모의 눈빛으로 그이를 우리르는 강혁철의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이 땅이 생겨 그 언제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지켜주고 안아주고 보살펴준 그런 품이 있었던가! 은혜로운 그 품! 그 품이 바로 조국의 품, 자애로운 그이의 품이 아닌가.)

해군소장 강혁철의 심장 한가운데 바위같은 신념이 깊숙이 뿌리내리였다.

아! 조국, 나의 조국.

어데서인가 물세의 노래소리가 고요한 바다의 정적을 흔들어놓으며 아름답게 울리였다.

수십억년전 지구의 기원과 함께 생겨난 바다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이런 은정깊은 사랑과 크나큰 기쁨을 가득히 안고 끝없이 설레이었다.

×

그날밤 시병원의 폭신한 침대우에 녀선생이 자리 잡았을무렵 바다를 들었다놓는 포성이 울리였다. 그 메아리를 실은 물줄기들이 한없이 따사로운 요람을 지켜 바다 멀리에도 세차게 날아갔다.

포성은 조국을 지켜 인민의 안녕을 지켜 높이 울리였다.

## 가사

# 너를 보며 생각하네

정성환

무성한 잎새우에 흰눈을 띄이고서

푸르려 설레이는 한그루 소나무여

세상이 변한대도 제 모습 잃지 않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있이 진 수림속에 앞날을 그려주며

희망의 등대처럼 푸르른 소나무여

드넓은 이 세상이 모두다 우리르는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태양이 안기여준 푸르른 그 기상을

꽃꽂이 보여주는 역세인 소나무여

우리 당 손길아래 빛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 위대한 생을 두고

박혜란

사람들은 가장 크고 아름답고 숭고한것을 흔히 하늘에 비기군한다. 그것은 하늘이 끝을 헤아릴 수없는 무한한 세계이기때문일것이다.

나는 요즘 모든 사람들이 것처럼 애독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구절구절을 심장깊이 새겨안을 때마다 부지중 그 무한한 공간의 세계인 푸르른 하늘을 생각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80성상의 자욱자욱이 글자획마다 깃들어있는 회고록, 그 한자한자의 글줄에 담겨있는 크나큰 사랑과 고통 그리고 기쁨과 슬픔, 그것은 하늘을 떠나서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기때문이다. 그 글줄을 따라가 느라면 나자신의 마음도 하늘과 같이 넓어지는듯 하다. 그것은 회고록을 읽은 모든 사람들의 한결 같은 심정인것 같다.

얼마전에 나는 황주강등벌에 농촌지원을 나갔던적이 있었다.

한낮의 태양은 우리의 얼굴에 온통 땀줄기를 퍼부어댔다. 내옆에서 일하는 농장원들의 주고받던 말소리도 더위에 녹아버렸는지 즈뽕해졌다.

때마침 휴식구령이 내렸다.

우리는 서둘러 논머리로 달려나갔다. 거기에는 수백년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듯한 느티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있었다. 농장원들도 뒤따라 나왔다. 그런데 그들은 땀을 들이며 다리섬을 할대신 스무살도 채 안돼보이는 애어린 처녀의 주위에 빙 둘러앉는것이였다. 서로 가까이 앉겠다고 싱깅이질까지 하는것을 보아서 재미있는 옛말이라도 하려고 하는것일가고 생각했다. 애된 처녀에게서 옛말을 듣는다는것은 어울리지 않아보였다. 그러면 오락회라도 열려는가? 그러나 입을 벌리면 열기가 뿜어나올듯싶은 삼복철이다. 나의 의혹어린 눈길은 그 처녀의 손에 정히 들려있는 책에 가뻐었다.

그는 모두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려 책장을 번지며 소리내여 읽기 시작하였다.

《...〈어서 떠나거라. 아무래도 갈길인데.〉

어머니는 병색이 짙은 얼굴에 미소를 애써 지

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내가 걸음을 내디디었을 때 뒤에서 방문 닫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나 나의 걸음은 동구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둘레를 돌기 시작하였다. 손에는 돈 20원이 그대로 쥐여져있었다. 한바퀴를 돌고, 두바퀴를 돌고, 세바퀴를 돌고...》

나는 가슴이 뭉클해움을 느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한대목이였다. 어머님과 마지막 리별을 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

처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그 길지 않은 시간에 내 머리에는 온밤 내 마음을 휘어잡고 놓아주지 않던 복잡한 상념의 조각들이 구름처럼 피여올랐다. 내가 이 마당에 다시 들어서게 되는 날은 언제쯤 될가? 과연 내가 지금 승산이 내다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내가 가는 앞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있을것인가? 그사이 어머니의 병이 호전될 가망은 있을까?...》

처녀의 목소리는 어느덧 눈물에 젖은듯 잠겨들었고 둘러앉은 농장원들의 가슴에도 걱정이 이는 듯했다....

순간 나의 눈앞에는 평양의 거리들에서 목적했던 광경들이 떠올랐다.

《회고록》청취시간이 오면 고성기를 마주하고 방송원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궤도전차안에서 회고록의 글줄에 심취되어 내려야 할 정류소마저 잊고 지나치는 사람들... 어디서 누가 푸른색투쟁의 회고록을 펼쳐들기만 하면 주위에 모여와 들여다보는 사람들, 그럴 때면 그들은 웅당한것으로 여기면서 스스로없이 자리를 조여준다. 서로 나누는 인사나 통성은 없지만 그 어떤 간격도 없이 하나의 마음으로 합쳐지게 하는 회고록의 심오한 글줄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긍지와 자부심,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우리모두를 구면친구처럼 만들어주는것이 아닌가.

아버이수령님의 빛나는 한생이 깔려있는 글줄을 따라가느라 먼 거리를 오가는 모든 사람 너나 할것없이 그 불멸의 자옥에서 태어난 한 아버이의 자손들이라는 뜻깊은 감회에 눈굽이 젖어들게 되는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80성상이 아니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인민으로 불리우는 우리의 우리가 있을수 있으랴.

뜨거운 태양, 푸르른 논벌, 그속에서 말없이 논김을 매나가는 농장원들, 그러나 더위속에 갇아든 침묵이 아니였다. 소중한것을 받아안은 깊은 감동으로 가슴을 짝 채운 침묵이였다. 그 나어린 처녀도 조용히 일손을 놀리였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분조원들에게 읽어줌으로써 그 어떤 선동원도 할수 없을만큼 큰 일을 한것이다.

누구의 입에선가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효성어린 좁쌀 한말 앞에 놓고서  
강반석어머님은 말씀하셨네

하나들 따라부르는 노래소리가 온 벌판에 은은히 메아리쳐갔다.

나라찾는 크나큰 위업을 위해  
생명도 가정도 바쳐야 함을

그 노래를 입속으로 따라부르느라니 저도 모르게 눈앞이 흐려왔다.

아, 수령님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신 그 한생에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으신 우리 수령님! 부모님을 잃으신 슬픔을 온 민족이 당하는 설움으로 여가시며 나라잃고 억압받는 인민의 불행을 한몸에 안으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수령님, 부모님께서 바라시던 조국광복의 념원을 우리 인민전체의 념원으로 안으셨기에 수령님께서서는 동지들을 잃으신 희생의 슬픔과 추위와 굶주림, 일제와의 치열한 싸움속에서 휴식없는 시련과 고통으로 겹쌓인 불의 바다, 피의 바다를 꿰뚫어 이겨내실수 있었던것이다. 그 가슴아픈 슬픔과 시련이 오늘까지도 아물수 없는 상처로 수령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귀한 한생, 그 자옥자옥이

세월의 이끼를 털며 나의 가슴에 사무쳐온다.

안도에서 울린 첫 총성과 고난의 행군길에 꽃피난 전설같은 이야기 그리고 로야령의 측한속에서 울려퍼지던 반일전가의 노래소리가 그 불멸의 자옥을 수놓고있는것이 아닌가. 우리 수령님의 그 위대한 한생은 그 어느 력사의 위인이나 령도자에게서도 있어본적 없는 빛나는 한생이였다.

나는 심장을 터쳐 말하고싶다. 우리 수령님의 한생이 그렇듯 위대하고 빛나는것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쳐오신 한평생이기때문이라고.

하기에 우리 수령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계시고 인민은 수령님의 마음속에 살고있는것이라고.

오늘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령, 당, 인민대중의 일심단결.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에 대한 빛나는 총화가 아닐가. 세상사람들이 경탄하여마지 않는 우리의 일심단결, 그 일심단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물음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싶다.

우리 수령님께서 쓰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보시라, 그러면 그대들은 똑똑히 알수 있을것이다. 강철같은 우리의 일심단결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가고있는가도...

지난 6월 항일혁명렬사유가족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기념사진까지 찍은 나의 할머니의 말로써 나는 이 글을 맺으려 한다.

《수령님께서 내앞에 오시였을 때 나는 그만 하려던 말도 다 잊고 큰절을 올리였구나.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구나. 그저 눈물이 앞을 막막아하고...》

예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드려왔다는 큰절, 오늘까지도 우리 조선민족의 고유한 풍습으로 간직되어있는 큰절을 바로 나의 할머니가 인사의 말마디를 고를수 없어 드린것이 아닌가.

이것은 90살의 한 할머니가 드리는 큰절이 아니다. 가장 빛나는 한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분에게 드리는 우리 인민의 례찬인것이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한장한장 번거가면서 수령님의 빛나는 한생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감정이 가없이 높고 푸른 저 하늘에 잇닿지나 않았을가 하고 생각한다.

## 백두산 대장수

우리 나라는 삼천리강산이 온통 산악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려다보아도 만학천봉이요, 내려다보아도 험산준령이다.

동방의 령지라고 하는 백두산은 이 모든 산의 조종이며 근본뿌리이다.

인걸은 지령이라 산악이 이렇듯 웅장하며 천하를 쥐고흔들 용감한 장수가 여기 백두산에서 날것은 분분명명한 일이다.

뚝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일엽편주의 신세로 무연창과우에서 헤매이던 망국노의 그 시절 사람들은 백두산을 우러르며 왜놈을 내쫓고 나라를 구원할 위인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원하고있었다.

바로 그무렵, 백두산에 하늘이 낸 큰 장수가 날개달린 룡마를 타고 내려왔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짝 퍼지였다.

나라 찾을 큰뜻을 품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장수별이 높이 솟아 눈부신 빛을 뿌리는 백두산으로 삼삼오오 떼를 지어 찾아들어갔다.

그들중엔 갑산에서 살던 박오득이라는 젊은이도 있었다.

오득이는 원래 황해도 곡산인가 신계인가에서 살았었는데 왜놈에게 강제로 땅을 빼앗기고 졸지에 한지에 나앉게 되자 화김에 왜놈순사를 제끼고 고향을 뚝뚝했다.

여기저기 품팔이를 하며 변성명하고 돌아다니다가 갑산의 깊은 산속에 거점한지 다섯해, 화전으로 그럭저럭 살아오던터에 그는 백두산에 장수가 내려왔다는 소문을 들었던것이다.

위낙 힘이 장사인 오득이는 왜놈들을 복수하지 못해 속에 방망이가 치밀어서 늘 욱옥하던지라 소문을 듣자 짚신감발을 하고 백두산을 향해 떠났다.

떠난지 열이틀만에 백두산에 이른 그는 두리가 300리나 넘는 큰 굴속에 들어가 백두산대장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저는 갑산에서 온 사람인데 왜놈에 대한 원한이 구천에 사무쳐 그한을 풀고저하오니 저에게 도술과 무술을 배워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대장수님의 부하로 충정을 다하겠으니 부디 소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수님은 그를 기꺼이 군사로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오득이는 다른 군사들과 함께 대장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신기한 도술과 무술을 닦

기시작하였다.

그들은 깊은 굴속에서 하늘로 날아오르고 땅으로 잣아드는 도술도 배우고 한걸음에 몇백몇천리를 갈수 있는 축지법도 배우고 눈깜박할 사이에 한사람이 열사람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또 수백수천사람이 되는 분신술도 배웠다.

그리하여 굴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사람이 수천수만의 왜놈들을 칠수 있는 장수힘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이것을 알게 된 왜놈들은 백두산의 군사들이 도술과 무술을 다 닦기전에 없애버리려고 술한 군대들을 백두산으로 파했다.

관동군과 조선주둔군, 경찰대와 위만군까지 총동원하니 그 수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 정보를 받은 백두산대장수님은 박오득이를 부르더니 그동안 도술과 무술을 닦았으니 달려드는 적을 혼자서 물리치라는 령을 내렸다.

박오득이는 가슴이 섬찝했다.

천인지 만인지 모르는 그 많은 적을 어떻게 혼자서 맞선단말인가.

옛병서에도 《일당백》이란 말은 있으되 《일당천》이란 말도 없는데 《일당만》도 더 넘는 힘겨운 싸움이니 그럴만도 하였다.

그러나 대장수님의 령이라 어찌는수가 없었다.

엄한 군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오득이는 혼연히 대답하고 왜놈들과 싸우려고 굴밖으로 나갔다.

백두산밭을 한벌 뒤덮은 왜놈들이 개미떼처럼 산마루로 기어오르고있었다.

오득이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덤비지 않고 침착하게 대장수가 배워준 도술을 썼다.

백두산마루에 혼한 부석 하나를 집어들고 왜놈들을 향해 던지니 《썩, 짜르릉》 하고 요란한 우뢰소리가 울리면서 사방에서 돌맹이가 비발치듯 놈들에게 날아갔다.

《아이쿠, 아이쿠.》

여기저기서 왜놈들의 비명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놈들은 눈이 켜해지지 않을수가 없었다.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주먹같은 돌맹이가 총알같이 날아가 왜적들을 까둑히니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누가 어디서 무슨 조화를 부리는지 왜놈들은 알수 없어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꿈무늬를 빼고말았다.

박오득이가 바위뒤에 숨어서 혼자 조화를 부리니 놈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백두산에 올랐던 왜놈들은 겨우 몇놈밖에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다.

놈들은 백두산으로 또 술한 군대를 들여보냈다.

이번에는 날아오는 돌맹이를 피하기 위해 밀림에 뺄뺄이 선 나무들을 방패로 삼으며 숲속으로 살금살금 기여올라왔다.

오득이는 전과 같이 또 부석을 들어 놈들에게 던졌다. 수천수만개의 돌맹이들이 놈들을 향해 날아갔다. 놈들은 용케도 나무에 의지해서 요리조리 돌맹이를 피하며 산으로 그냥 기여올라왔다.

오득이는 당황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부석돌을 던졌으나 왜놈들은 날아오는 돌맹이를 살살 피하며 자꾸만 부득부득 기여올라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득이는 다른 수법을 쓰려고 하였으나 꼭 맞는것이 없었다.

이때였다. 《오호흥!》하는 룡마의 울음소리가 하늘땅을 찌렁찌렁 울리었다.

머리를 들어 소리나는쪽을 올려다보니 어느새 백두산병사봉(오늘의 장군봉)마루에 키가 후리후리하고 림름한 대장수가 흰룡마를 타고 나타난 것이었다.

대장수님께서는 백두산병사봉마루에서 숲속으로 기여오르는 왜놈들을 내려다보시고 쓴웃음을 지으시더니 권총을 하늘높이 쳐들고 쏘시었다.

땅-

산발이 찌렁 울리게 요란한 총소리가 나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

잠잠히 서있던 숲속의 나무들이 굽은 가지를 휘둘러 왜놈들을 내리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아이쿠! 아이쿠!》

왜놈들의 비명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돌맹이에 얻어맞지 않으려고 숲속에 기여들었던 왜놈들은 모조리 쓰러져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두번씩이나 무리죽음을 당하자 왜놈들은 당황망조하여 백두산의 장수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것 같아 천황에게 보고하였다.

천황은 기절초풍하였다.

아마데라스 오미까미의 보살핌을 받는 《황군》이 백두산장수에게 녹아난단말인가.

천황은 룡군대신을 궁성으로 급히 불러 귀가 깨지게 옥을 퍼붓고나서 이런 분부를 내렸다.

《창창하던 일본의 앞길에 암운이 드리웠은즉 경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가서 백두산장수와 맞서

싸워 이 난국을 타개할지어다.》

《황은을 입은 이몸 목숨으로 폐하의 어명을 받들겠나이다.》

어전에서 물려나온 룡군대신은 그길로 비행기를 타고 만주로 갔다.

룡군대신은 군대와 경찰, 자위단까지 총동원하여 백두산으로 올리밀었다. 산과 골짜기에는 온통 왜놈들로 가득찼다.

룡군대신은 화공전술을 썼다. 숲에 불을 지르고 나무를 모조리 불태우면서 백두산으로 기여올라갔다.

이 정보를 받은 백두산대장수님은 박오득이와 함께 굴박으로 나가 병사봉마루에 오르시었다.

오득이는 연기에 휩싸인 산발들을 내려다보며 어쩔줄 몰라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와하였다.

《저런 고약한놈들!》

대장수님은 놈들을 노기에 찬 눈길로 쏘아보시었다.

조금 있더니 손을 하늘높이 쳐드시었다.

그러자 풍운조화가 일어났다.

사방에서 구름떼들이 와와 몰려와 해빛이 째째하던 하늘을 삼시에 콕 메우고말았다.

이윽고 하늘에서는 비가 썉-썉 쏟아지기 시작했다.

온 지구를 태울듯 세차게 타오르던 삼단같은 불길은 잠간사이에 꺼지었다.

불은 꺼졌으나 비는 그냥 억수로 쏟아졌다.

골짜기마다 물이 사뭇치며 흘러내렸다. 어느새 온 골짜기에 물이 가득차 산봉우리들이 잠기었다.

백두산으로 기여오르던 왜놈들은 모조리 물에 빠져 수중고혼이 되고말았다.

이번엔 대장수님의 수공전술에 녹아난것이였다.

대장수님은 물에 빠져서 아우성치는 왜놈들을 내려다보시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굴안으로 들어가시었다.

박오득이는 대장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혼자속으로 중얼거렸다.

《난 아직 멀었어, 십년을 배워도 대장수님의 술법은 만분지하나도 따르지 못할거야.》

기겁을 하여 일본으로 되돌아간 룡군대신은 천황한테 하마트면 효수를 당할번하였다.

천황은 급히 어전회의를 열고 《2000년래의 국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으나 일본이 갈길은 죽음의 나락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왜놈들은 **김일성** 장군님의 이름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면서 다시는 백두산으로 기여오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펼치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반제, 독립, 자주의 리념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 세대의 청년들이 력사의 진통속에서 창조한 순결하고 참신한 새형의 정치적생명체였다.》

### 김일성

우의 명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26년 10월 17일 화전총관소 총관이었던 김시우의 집에서 무으셨던 타도제국주의동맹(《타.도》)에 대한 력사적인 정식화이다.

여기에는 종래의 조직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형의 공산주의혁명조직으로서 의 뚜렷한 목적과 사명이 명시되어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어둡던 강산에서 조직하신 위대한 《타.도》의 조직은 주체위업의 위대한 시원을 열어놓은것이었고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을 쌓아올린 커다란 사건이 었다.

당면하게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이며 장차로는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 위대한 사상을 력사상 처음으로 내세운 《타.도》의 강령.

이 장엄한 선언에 밝혀진 혁명의 주체적목적과 자주적 원칙이 바로 조선혁명에 처음으로 심어진 주체위업의 새 씨앗이며 원종이었다.

원천이 없는 대하의 흐름을 생각할수 없고 씨앗과 뿌리 없는 주렁진 열매를 생각할수 없듯이 혁명의 시원이 없는 혁명의 거창한 흐름과 혁명의 원종이 없는 혁명의 빛나는 위업을 생각할수 없다.

조선혁명의 뿌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도 바로 이 위대한 씨앗에서 뻗어내리고 조선혁명의 모든 승리,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도 바로

이 영생불멸의 씨앗에서 움트고 자라났다.

혁명의 위대한 시원중에서도 위대한 시원이 바로 《타.도》의 출현이었으며 이 위대한 시원으로 부터 출발하였음으로 하여 가장 위대한 혁명으로 된것이 조선혁명이었다. 바로 조선혁명의 이 위대한 시원이 열림으로 하여 자주적 대하가 용용히 굽이쳐 일기 시작하였으며 주체위업의 력사적 진군이 개시되게 되었다.

위대한 혁명이 위대한 시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 시원의 위대성은 시대와 인민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안는데 있다.

《타.도》의 출현, 이것은 력사의 여러 시대들중에서도 가장 높고 들끓는 시대, 자주시대의 요구를 통찰하고 생활의 가장 엄혹한 체험속에서 인민의 지향을 절감하여나선 위대한 수령이 탐색하고 발견하여 조직하신 자주적 기치이다.

자주적 새 력사적항로에 첫 닻을 올린 그 아득한 기슭에서부터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 사회주의 완전승리, 공산주의가 바라보이는 높은 언덕우에 이르렀으나 오늘도 《타.도》의 기발은 우리 혁명의 진두에서 계속 힘차게 나뭇기고있다.

오늘도 우리 혁명의 앞장에서 그날의 그 의지, 그 기개대로 높이 날리는 《타.도》의 기발은 주체위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바로 이 기발아래 조선혁명의 즐기찬 숨결이 높이 고동치고 주체위업의 대행진의 발구름소리가 강산에 높이 울린다.

## 자주시대문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대저작 《주체문학론》

리수립

오늘 전체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주체문학의 새 시대를 누리에 떨치는 위대한 역사적사변에 접하여 크나큰 환희와 감격으로 들끓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당과 국가와 혁명무력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가운데서도 문학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고귀한 심혈을 바치시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세상에 발표하신 것이다.

전 7장 32개절로 이루어진 **《주체문학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주체의 길을 따라 발전하였으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수행된 문학예술혁명의 결과 대전성기를 맞이한 주체문학의 빛나는 성과와 풍부한 경험, 불멸의 업적에 토대하여 자주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문학,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민대중중심의 문학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관점과 원리와 방법들을 새롭게 천명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인류문예학상 류례없는 불멸의 문학리론총서이다.

새 시대는 새로운 문학을 요구하며 력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은 새로운 문학리론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 수 있다.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이 맑스와 레닌에 의하여 개척된 때로부터 혁명문학실천은 멀리 전진하였으며 문학발전에서는 새로운 전변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인류는 선행한 모든 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력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인민대중은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와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는 선행한 시대에 제기되지 않았던 변혁적인 과제를 문학앞에 제기하였으며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문학리론을 요구하였다.

세계의 물질성과 그 일반적인 운동법칙을 해명하는데 기초하여 현실세계를 객관적으로 대할것을 요구한 유물변증법적세계관우에 정립된 기존문학리론을 가지고서는 문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견해를 세울수도 문학건설과 령도에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나갈수도 없었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새 시대의 문학리론을 정립하는것은 특히 문학분야에서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적공세가 강화되고 이와 함께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의 수정주의적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른 20세기후반기에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격동하는 력사의 흐름은 반혁명적공세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의 순결성과 혁명성을 튼튼히 지켜낼수 있도록 혁명적문학 건설과 창조의 올바른 리념과 원칙, 방도들에 대하여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리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것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우리 혁명과 문학 앞에 나선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리론의 참다운 면모를 밝힘으로써 그 진리성과 위대성을 뚜렷이 하여야 민족문학을 통성과 반영으로 이끄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이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학의 길에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깨우쳐줄수 있다.

그러나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학리론은 시대가 달라지고 문학실천이 요구한다고 하여 저절로 출현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와 문학의 앞길을 새롭게 개척하고 승리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뛰어난 예술적천품을 지닌 위대한 령도자에 의해서만 창시된다.

일찍부터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사상리론적예지, 문학과 예술에 대한 천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새 시대의 문학리론을 정립할데 대한 요구를 절감하시고 그것을 실현하는 관건적고리를 인간중심의 위대한 철학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문예학에 투철히 구현하는데서 찾으시였으며 정력적인 탐구로 주체의 문예학을 발전완성시키시였다.

사상리론과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김정일** 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시대에 주체의 문학리론을 발전완성시키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는 역사적위업은 드디어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주체의 문학리론을 정립 체계화한 불멸의 력사적로작 **《주체문학론》**은 참으로 그 내용의 독창성과 진리성, 구성체계의 정연성과 완벽성, 분야의 다면성과 분석의 구체성, 서술의 과학적심오성과 통속성, 주옥같은 명제들과 생신한 표현, 읽고 또 읽어도 다시 읽고싶어지는 견인력과 감화

력으로 하여 동서고금의 문예리론저작들 가운데서 단연 첫서열에 속하는 명저작중의 명저작이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받아안은 전체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인류가 낳은 문학예술의 대천재를 우리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보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휩싸여있으며 주체의 문학리론총서를 안겨주시며 숭고한 문학세계의 상상봉에로 떠밀어주시는 그이께 다함없는 감사와 끝없는 영광을 드리우고있다.

## (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화론》**에서 주체의 문학리론을 주체의 문예관을 진수로 하는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밝히시였다.

주체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문학에 관한 사상과 리론, 방법을 과학적으로 전면적으로 완성한 바로 여기에 문학리론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선 주체의 문학리론의 독창성과 진리성, 위대성이 있다.

문학리론이 어떠한 문예관우에 정립되며 어떠한 구성체계를 이루는가 하는것은 그 혁명성과 진리성, 과학적심오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조건이다.

로동계급의 문학리론에는 그 기초를 이루는 원리와 리념, 즉 문예관이 있다. 그것은 해당하는 문학리론의 출발점으로 모든 리론적내용의 진수로 되어 리론의 높이와 완성정도를 조건짓는다.

로동계급의 문학리론에는 또한 그 리론적내용에 상응한 구성체계가 있다. 리론적내용에 의하여 규제되는 구성체계, 다시말하여 리론의 구성분야들과 그 결합방식은 해당하는 리론의 혁신성과 과학적정연성, 완벽성을 담보하는 주되는 조건이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그 진수를 이루는 문예관과 리론체계에서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학리론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롭고 독창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예관인 주체의 문예관을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예관은 주체의 문예관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일반적으로 문예관이라고 할 때 문학예술을 어떤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어떤 립장에서 보고 대하는가 하는것을 말한다. 문예관은 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 작품창작의 원칙과 방도, 작품의 사회적가치를 밝히는 출발점으로 된다.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으로 하여 사회의 물질경제적관계를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던 선행 로동계급의 문예관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문예관에서의 근본문제는 문학예술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이며 그것은 문학예술의 이여의 문제에 대한 견해와 립장을 밝히는 기초로 된다.

그것은 문학예술형상의 정수를 이루는 아름다운것의 본질에 관한 문제, 문학예술창조의 근원에 관한 문제를 밝히는 기초적인 고리이다.

문학예술의 본성과 미적인것의 본질, 창작의 본성에 관한 관점과 견해가 전일적으로 확립될 때 비로소 문예관에 대하여 말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문학예술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밝히시였으며 이에 따라 아름다운것을 자주적인간의 생활과 투쟁으로 보는 주체의 미학과 창작의 주인인 작가의 사상의식을 창작활동의 근본요인으로 보는 주체의 창작관을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주체의 문예관에 대한 완벽한 천명으로 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투철한 혁명적관점과 인민적립장을 말하여준다.

이러한 문예관이야말로 문학예술사업에서 자주시대 지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로동계급적성격을 철저히 견지하며 민족적특성을 풍부히 구현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관점과 립장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로동계급의 문예관을 새롭게 혁신하고 문예관의 가장 높은 경지를 밝혔다.

맑스-레닌주의는 세계가 본질에 있어서 물질이고 물질로 통일되어있으며 그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며 변화발전한다는 세계에 대한 과학적견해를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사물현상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파악할데 대한 유물변증법적관점과 립장을 내세웠으며 그것을 문학예술에 구현함으로써 사회현실을 물질경제적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며 객관적으로 반영하는것을 문예관의 근본으로 삼게하였다. 유물변증법적세계관과 반영론의 원리를 초석으로 삼은 종래의 문예관은 결국 인간세계를 물질경제적조건을 위주로 보고 그리며 력사발전을 자연사적과정으로 반영하는데로 나가게 하였으며 문학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놀수 없게 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세계가 본질에서 물질이며 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동발전한다는것이 해명된 조건에서 새로운 문제, 세계의 주인이 누구이며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함으로써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견해를 세웠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람의 리익의 견지에서 문학예술을 대하고 미의 본질을 밝히며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창작의 본성을 고찰하는 혁신적인 관점과 견해에로 나갔다.

유물변증법적세계관에 기초하여 물질경제조건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문예관으로부터 사람, 근로인민대중중심의 문예관으로의 전환, 이것은 혁명적문예관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의 완성을 의미하는것이며 문학리론전반에서 전면적 혁신의 관건적고리를 마련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주체의 문예관에 기초함으로써 새 시대의 문학리론은 주체의 요구를 구현한 혁신적이며 완성된 구성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주체문학에 관한 사상으로 부터 주체문학의 건설과 창조에 관한 리론, 주체문학의 령도방법에 이르는 자주시대가 요구하는 사상과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문학의 사회현실적기초와 계급적성격을 밝히고 문학작품과 형태를 구조학적으로 해석하였으며 문학발전과정을 창작방법과 사조의 교체의 력사로 설명한 지난 시기의 문학리론체계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는것이다. 종래의 문학리론체계는 문학현상을 신비의 세계에서 관념론적으로 설명하던 반동적인 문학리론을 타파하고 그것을 유물변증법의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당해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문학의 력사를 발전과정으로 리해하면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발생을 객관적인 필연으로 주장하려는 의도 밑에 설계된 문학리론구성체계였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하였으며 문학앞에는 변혁적인 과제가 나섰다. 새 시대의 문학리론은 새롭게 건설되어야 할 새 문학에 대한 리념과 리상을 주어야 하였으며 그것을 건설하고 창조하는 실천적인 리론을 개척하여야 하였으며 인민대중이 문학건설과 창조에서 주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령도의 방법을 밝혀야 하였다. 이러한 내용과 체계를 갖춘 리론은 문예사상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으로 혁신적인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은 새 시대의 문학에 관한 리념을 밝히고 건설과 창조의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며 령도의 방법론을 천명하는 정연하고 완벽한 구성체계를 보여주고있다.

로작은 《1. 시대와 문예관》에서 주체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문학에 관한 사상을 주었으며 《2. 유산과 전통》, 《3. 세계관과 창작방법》에서 문학건설의 원칙에 관한 리론, 《4. 사회정치적생명체와 문학》, 《5. 생활과 형상》, 《6. 문학형태와 창작실천》에서 문학작품창작의 실천에 관한 리론을 밝히었다. 로작의 《7. 당의 령도와 문학사업》은 문학에 대한 령도방법을 새롭게 천명한 부분이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주체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학에 관한 사상과 리념을 천명함으로써 자주시대 문학의 앞길을 빛나게 밝혀주었다.

주체문학의 사명과 성격, 생명과 가치 및 존재방식들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자주시대 문학의 진정한 면모,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에 대한 리념

과 리상이 뚜렷이 천명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주시대문학의 사명과 성격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인간학이라는데 대하여 탁월한 해명을 주시었다.

자주시대의 참다운 문학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며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우리 인민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여기에 문학의 성스러운 사명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학은 사람의 본성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예술적으로 밝히고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보여주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문학이라야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의 주인,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문학적과제를 감당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문학의 사명과 성격에 관한 주체적인 리해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자주시대 문학의 생명이 주체성에 있다는 진리를 새롭게 제기하시였으며 문학의 사회적가치가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에 있다는 립장을 명확히 하시였다.

자주시대의 혁명적인 문학은 사회주의적민족문학으로 발전하며 따라서 민족문학의 얼굴이며 정신인 주체성을 생명으로 삼게 된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며 민족자주정신을 반영한다는것은 문학 창작과 건설에서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며 자기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말한다.

주체문학은 또한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결합시킴으로써 문학으로서의 품격과 작품의 가치를 높은 경지에서 보장한다. 이 모든것은 문학의 생명과 가치에 관한 주체적인 리해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자주시대문학의 참다운 면모가 사상미학적순결성에 있다는 혁명적인 리념을 내세우시고 주체문학의 존재방식이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주체문학은 착취계급사회의 낡고 반동적인 문예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개척되었으며 자연주의와 형식주의, 수정주의와 사대주의 등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와의 투쟁정신은 오늘의 준엄한 현실속에서 더욱더 참다운 혁명문학의 중요한 속성으로, 그 존재의 근본요구로 되고있다. 사상미학적순결성, 낡고 반동적인 사상과의 비타협성으로 하여 주체문학의 사명과 성격, 생명과 가치가 굳건히 수호되며 높이 발양된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이처럼 문학의 사명과 성격과 생명과 가치, 그 존재방식 등 모든면에 걸쳐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에 관한 숭고한 리념을 밝혀줌으로써 새 문학 건설의 목표를 뚜렷이 하였다. 주체문학의 새 경지를 밝힌 이 숭고한 리상은 주체문학건설에 전망을 주고 신심을 주는 대



강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새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의 건설과 창조에 관한 리론, 문학평도의 방법들도 전일적으로 밝히시였다.

문학현상과 문학발전을 피상적으로 해석한데 그친 종래의 문학리론과 달리 주체의 문학리론은 주체문학의 새 경지를 지향하여 건설과 창조의 원칙과 방도를 주는 리론을 개척하였으며 문학건설의 주인인 작가들과 인민대중을 동원하며 령도하는 방법론을 완성하였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혁명적문학전통을 민족문학유산의 핵으로, 중추로 틀어쥐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주체사실주의를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방법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을 문학건설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하였으며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생명체를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으로 삼고 종자를 핵으로하여 성격중심의 문학을 진실하고 철학적 있게 창조하는 형상원리와 그것을 시, 소설, 아동문학 등 문학의 다양한 형태들에 구체화한 창작실천론을 밝히었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나아가서 당의 령도를 주체문학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문학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며 문학의 대중화를 적극 다그치고 작가를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대한 문학령도방법도 새롭게 확립하였다.

참으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은 자주시대의 문학건설을 승리로 향도하는 유일하게 옳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사람중심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히고 전일적인 체계우에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주체의 문학리론총서이다.

## (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자주시대가 요구하는 문학건설과 령도의 원칙과 방법을 탁월하게 천명하시였다.

주체문학건설의 원칙과 령도의 방법을 독창적으로 해명한 바로 여기에 로동계급의 문학리론발전의 새 경지를 열어놓은 주체의 문학리론의 위대성이있으며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주는 이 고전적로작의 거대한 의의가 있다.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리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새 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원칙과 문학건설으로 대중을 령도하기 위한 방법을 밝혀내는 문제였다. 반동적부르조아문학이 문단을 지배하는 사회적조건에서 로동계급문학이 대두하며 자기의 존재를 주장하던 선행한 시대에 로동계급의 문학리론은 부르조아문학의 반동성을 규탄하며 로동계급문학의 필연성을

론증하는데 리론적탐구의 과제를 집중하였으며 따라서 문학건설에서 보다 문학현상에 대한 과학적해석에 치중하였다.

광범한 근로대중이 문학건설에서의 자기 지위와 역할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고있었으며 문학운동에 참가하는 대중의 규모가 작고 수준도 낮았던 지난시기에는 문학리론에서 령도방법의 문제가 성숙된 과제로 나서지 않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문학리론은 문학의 건설원칙을 밝히고 령도의 방법론을 밝히는 새로운 리론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시고 이 시대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새 시대의 문학을 탄생시키는데 작용하는 요인은 과거의 문학유산에 대한 계승과 혁신이며 새 시대의 인간과 생활에 대한 형상적반영이다.

새 문학은 결코 빈터우에 건설되는것도 주관으로 꾸며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지난날의 문학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하고 혁신하는 조건에서만 건설될수 있으며 새 시대의 현실생활을 일반화하고 개성화하는 과정을 거쳐서만 창조될수 있다. 문제는 문학유산과 인간생활을 어떠한 원칙에서 대하는가 하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과거에 이룩된 민족문학유산에서 그 핵이며 중추를 이루는 혁명적문학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하며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모든 문학유산을 주체적립장에서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데 대하여서와 현실생활을 전형화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방법인 주체사실주의에 확고히 의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주체의 문학리론이 명시하고있는 문학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과 계선짓는다고 하면서 유산과 전통을 아무런 련관이 없는것으로 갈라놓던 일부 그릇된 경향을 바로잡아주시면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의 핵이며 중추, 주체적인 민족문학예술의 원형이며 그 명맥을 이루는 피줄기이며 만년초석으로 규정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그 사상적내용의 독창성과 진리성,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혁명성과 우월성, 경험의 풍부성과 업적의 위대성으로 하여 주체문학예술건설의 전행정을 방황지어주고 떠밀어주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무리 훌륭한 민족고전이라 하여도 그것을 오늘의 시대적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해나가야 하지만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명실공히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탁월한 사상은 지난 시기 범박하게 풀이되어온 유산의 계승과 혁신문제에 혁명적인 원칙을

세운 독창적인 해명이다. 이 혁명적원칙이 천명됨으로써 주체적민족문학건설위업이 자기의 역사적뿌리를 옳바로 찾게 되고 대를 이어 고수되며 빛나게 계승발전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찬란한 민족문학유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며 민족문학을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하는 귀중한 밑천이라고 하시면서 지난날의 민족문학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꽃피워나가며 이를 위하여 유산계승에서 역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이것은 새 시대의 문학을 문학유산의 풍만한 터전우에서 사회주의적민족문학으로 개화발전시킬수있게 한 문학건설의 탁월한 지침이다.

새 문학건설은 시대현실을 형상으로 반영하는 창조적과정이다. 새 문학의 창조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생활을 인식하고 평가하며 예술로 반영하는 미학적원칙으로서의 창작방법이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고 과학적인것이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창작방법을 종래에 통용하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주체사실주의로 선포하심으로써 새 문학건설의 위력한 무기, 새로운 창작방법을 정식화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문학예술이 의거하고있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그 형성의 사회력사적경위에 있어서나 철학적기초와 미학적원칙에 있어서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방법이다. 우리 문학예술이 의거하고있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주체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새 시대의 문학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문학예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1970년대에 이르러 우리 문학은 주체문학으로서의 새로운 성격과 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으며 드디어 우리 식의 창작방법을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새롭게 규정하고 그 본질과 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힐수 있게 되었다.

주체사실주의, 이는 유물변증법적세계관에 기초하여 현실을 혁명적발전과정에서 역사적구체성을 가지고 묘사할것을 원칙으로 내세운 종래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달리 사람중심의 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새로운 미학적원칙을 제기한 창작방법이다.

현실에 대한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은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근본원칙이다. 주체사실주의는 인민대중을 사회력사의 주체로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고 그들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자연이 개조되고 사회가 발전하며 인류력사가 전진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깊이있게 형상할것을 요구한다. 사람을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 내세우고 세계의 모든 변화발전과정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가장 정확히 그리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형상할수 있게 하는 바로 여기에 주체사실주의의 본질적우월성과 혁신적의의가 있다.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생활을 전형화하며 진실하게 그린다. 그리하여 사실주의문학이 전통적으로 고수하고 발전시켜온 전형화와 진실성의 원칙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견지한다.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와 현실, 사회와 역사를 보고 자주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전형화와 진실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여기에 주체사실주의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문학작품을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창작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에 담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며 그에 따라 문학의 성격과 사회적역할이 규제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음에 대한 원칙을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의 미학적요구로 내세우시고 사회주의적내용을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내용으로, 민족적형식을 자기 민족의 미감과 요구에 맞고 자기민족이 좋아하는 형상수단과 수법, 형상기교로서 새롭게 풀이하시었다.

참으로 자주시대가 요구하는 문학건설의 위력한 사상적 및 방법론적 무기인 주체사실주의에 대한 정식화와 선포는 인류문예사에 새 장을 펼친 획기적인 사변이며 전세계 진보적 인류와 작가들의 크나큰 기쁨으로 된다.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주체의 문학리론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것은 문학건설의 지토리론과 함께 문학령도의 방법론이다.

력사의 새 시대에 문학건설의 주인으로 광범한 작가들과 근로인민대중이 등장하였다. 이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는 옳은 령도방법을 확립하는것은 주체의 문학리론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삼고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문학을 대중화하며 작가를 혁명가로 준비시킬데 대하여 밝히심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령도의 참다운 방법을 확립하여주시었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대중적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방법으로 문학건설을 강력히 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문학을 대중화하고 창작의

직접적담당자인 작가를 혁명화하는 바로 여기에 문학에 대한 대중령도의 주체적인 방법과 묘술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의 생명선이다.》**

문학사업에 대한 주체의 령도방법에서 첫째가는 요구는 당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견지하는데 있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 창작과 건설에 대한 정책적지도이며 정치적지도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한 문학 창작과 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며 작가들과 광범한 대중이 문학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정치적으로 이끌어주고 밀어준다.

제국주의자들이 반사회주의적공세를 벌리고있고 일부 나라들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문학사업에서는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하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또한 당의 령도밑에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문학은 당의 령도밑에 대중의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힘에 의하여 건설되며 사회와 인민대중의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한다. 그러므로 문학사업을 개인주의에 기초한 직업화의 길로가 아니라 사회주의문학의 사회적성격에 맞게 집단주의에 기초한 대중적인 운동, 문학운동의 길로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문학운동이 힘있게 벌어져야 모든 작가들을 하나의 조직된 힘으로 묶어세우고 결기시키며 광범한 대중이 문학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할수 있다. 문학운동을 당의 령도밑에 당, 문학예술행정기관, 문예총이 3위일체를 이루어 적극적으로 벌리며 그것을 추동하기 위한 정치사상사업과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하며 행정실무화경향을 배격하고 여기서 평론가들이 한몫 단단히 하게 하여야 한다.

문학을 대중화하는것은 문학건설과 문학운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문학을 대중화한다는것은 광범한 군중을 문학창작활동에 널리 참가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학을 마음껏 즐길수있게 하는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문학작품보급사업을 개선하여야 하며 군중문학창작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그 지도를 강화하며 문학의 대중화를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 웅대한 목표에로 지향시켜 적극 내밀어야 한다.

문학사업에 대한 령도에서 중요한 문제는 창작의 직접적담당자인 작가를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작가에게 있어서 창작활동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혁명사업이다. 그러므로 모든 작가들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 당면제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찰자로 자신들을 불러준 크나큰 신임을 심장에 새기고 정치사상적으로나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해나아가야 한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이처럼 로동계급의 문학리론에서 공백으로 되여온 문학의 령도방법론을 새롭게 확립하였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주체의 문학리론은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건설과 령도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빛나게 밝힌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치로, 주체문학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 (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주체문학의 창작리론을 과학적으로 심오히 천명하시였다.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학작품창작리론을 주체대상과 창작과정 및 문학형태에 걸쳐 전면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창작실천에 빈틈없는 지침을 주고 주체문학의 대전성기를 영원히 꽃피워나갈수있게 한 바로 여기에 주체의 문학리론의 생명력과 위대성이 있다.

문학건설은 문학창조의 실천으로 구체화되며 작품창작을 떠나 문학건설이 추진될수 없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주체사실주의를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학을 건설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방법으로 제시하였을뿐만아니라 리론적탐구를 창작실천상견지에서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문학건설의 리론과 더불어 작품창작의 리론을 정립하였다.

이리하여 지난날 로동계급의 문학리론에서 단순히 작품을 구조학적으로 해석하는것이 고작이던 작품분석론은 새 문학건설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작품창작리론으로 전환되였다.

작품창작은 사회현실이라는 자기의 묘사대상을 떠나 이루어질수 없으며 형상화과정에 고유한 예술적생리를 반드시 타고나야 하며 더 나아가서 묘사방식과 련관된 형태상제약속에서 벌어지게 된다. 주체대상과 창작과정 및 형태적특성속에 이루어지는 창작실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밝혀진 창작리론이라야 명실공히 실천에 지침을 주는 리론이라고 할수 있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이 리상적인 과제에 완전무결한 대답을 주었다. 주체의 문학리론이 개척하고 확립한 창작리론은 종횡으로 완벽하게 짜인 과학적인 창작리론으로서 그것은 자주시대의 새로운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창작의 예술적생리에

철저히 립각하였으며 작품의 형태적인 특수성을 구현한 진정으로 실천적인 창작리론이다.

인류문예학은 일찌기 자기 력사에서 이렇듯 혁명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천의 요구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작품창작리론을 알지 못하고있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우선 먼저 자주의 새 시대가 안겨준 형상원천과 묘사대상이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생명체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히고 주체문학앞에 제기된 이 새롭고 영원한 형상원천에 맞게 문학작품의 주제대상별 창작원리와 방도를 구체적으로 천명하였다.

수령형상창조는 주체문학의 지상의 과업이며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은 주체문학의 제일주인공이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수령형상문학에서 수령으로서의 위대성을 잘 그리며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를 형상에 실현할데 대하여서와 수령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그릴데 대하여 가르치고있다. 이와 함께 주체의 문학리론은 수령의 후계자를 잘 형상할데 대하여 새롭게 제기하면서 후계자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품모와 업적에 모를 박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하여 밝혔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수령형상작품이 마땅히 주체문학의 본보기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고유한 예술적생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있는바 우선 수령의 특출한 사회적지위와 관련되는 무게있는 형상과제의 제기, 심오한 철학성의 구현, 수령과 관계되는 상대인물의 격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을 밝히었다. 다음으로 력사에 실지 있는 위인을 형상하는것과 관련되는 요구로서 원형자체를 절대시하는 견지에서 종자, 주제, 사상을 탐구하며 형상도 력사적사실에 맞게 창조할데 대하여 예술적허구도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하는 방향에서 적용할데 대하여 가르치고있다.

또한 수령형상작품의 창작목적에서 출발하여 양상과 성격창조에서 최대의 정중성과 충성심을 반영할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주체문학의 기본과제로서 또한 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할데 대하여 제기하면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특성과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을 잘 그려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부각할데 대하여, 당을 노래하는 송가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당조직선과 당일군의 전형을 잘 그려낼데 대하여 밝혀주었다.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의 형상원천과 관련되는 기본과업의 하나이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주체형의 인간전형에서 충신의 품모를 그리는데 힘을 넣을것을 강조하면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여나가는 과정과 밀접히 결합된 생동한 화폭을 창조할데 대

하여, 충신으로서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형상하며 생활단면을 찾아내고 세부화하며 그것을 세계관형성과정속에서 잘 그릴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고있다. 이와 함께 숭고한 공산주의적인간성을 깊이있게 그리며 성격의 전형화문제를 잘 해결할데 대하여 밝혀주었다.

수령과 당, 주체형의 인간형상은 주체문학이 자기의 새로운 형상원천에서 찾은 창작의 영원한 과제이다. 자기 창작의 기본주제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형상방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문학실천은 위대한 사회정치적생명체에 튼튼히 뿌리박게 되었으며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강화하는데로 힘있게 지향되게 되었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창작과정의 생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형상의 매요소들을 단위로 인간중심의 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실천적방도들을 심오히 천명하였다.

그것은 생활속에서 종자를 선택하며 성격중심의 형상, 진실성과 철학성을 가진 형상으로 꽃피우며 이러한 형상의 생리에 맞게 구성을 조직하고 인민적이며 사실주의적인 언어를 탐구하는 등의 여러 고리들을 내포하고있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작품의 주제와도 다르고 사상과도 다른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서의 종자의 본질을 바로 인식하고 탐구할데 대하여 종자를 실현하는 형상적화폭의 중심위치에 인간을 확고히 세워 작품을 사건문학이 아니라 성격문학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이러한 인간학적형상에서 진실성과 철학성의 결합을 보장하며 문학의 지성세계를 가일층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또한 형상에서 구성조직과 언어구사가 가지는 의의로부터 구성의 대를 바로세우며 그것을 예술적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으며 깊이있게 맞물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었으며 문학의 비결이 언어형상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언어를 탐구하고 살려쓰며 언어구사에서 사실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작품의 모든 형상요소들을 주체문학의 본성과 창작의 생리에 맞게 탐구하며 구사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주체의 형상론은 생활을 형상으로 전환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점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한 창작실천의 위력한 지침이다.

매개의 문학작품은 구체적인 문학형태에 속하며 생활을 형상으로 담아내는데서 고유한 묘사방식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작품창작리론으로 하여금 시, 소설, 아동문학, 극문학 등 매형태별 특수성을 반영한 형태별 창작실천론으로 심화될것을 요구한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지난시기 문학작품의 형태별특성을 해석하는데 머물렀던 문학형태론을 형태별창작실천리론으로 발전시켜 그것을 창작리론의 범주안에 인입함으로써 리론의 구체성과 현실

성을 강화하였으며 창작리론의 폭을 더욱 넓히었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시의 본성을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새롭게 정식화하고 한편의 혁명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시문학의 전투적기능과 호소적역할을 강조하고 현대정신을 근본속성으로 천명하였으며 이로부터 시문학의 창작실천방도들을 명시하였다.

주체의 시론은 시문학의 기본특성이며 생명인 서정성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에서 노래할데 대하여, 시문학의 음악성을 내용과 형식의 두측면에서 다같이 강화할데 대하여, 특히 흐름새와 박자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운률을 살려 그것을 서정을 양양시키는 날개로 되게 할데 대하여, 시문학의 다양한 형태를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며 가사창작에 깊은 주목을 돌려 그것을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되게 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있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소설을 문학의 대표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소설문학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것을 강조하면서 우선 문학의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생활을 이야기식으로 펼쳐나가는 소설문학고유와 특성을 더 잘 살릴데 대하여 밝혀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심리묘사, 세부묘사에 힘을 넣으며 문학적인 이야기를 매혹과 감동의 연속으로 만들데 대하여 가르치고있다.

주체의 소설론은 우리의 소설문학이 온갖 낡은 것에 도전하는 새형의 문학으로 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탐구를 적극 벌리며 구성과 형상수법, 소설형태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경지, 풍만한 세계를 개척할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아동문학이 인간과 생활을 어린이의 시점에서 보고 평가하며 그려내는 기본특성을 가진다는데 대하여 밝혀주면서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특성을 잘알고 그에 맞게 형상을 창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다시말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높은 정신상태와 지능수준 그리고 남달리 깨끗한 마음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는 한편 낡은 사회에 대한 표상과 혁명투쟁의 시련에 대한 체험이없는 그들의 실태에 비추어 형상을 창조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고있다.

또한 주체의 아동문학론은 유년기와 소년기의 연령심리적특성을 잘 살리며 문학창작의 일반적요구를 구현하면서 작품의 진실성과 형상의 기발성, 독창성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밝혀주었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이밖에 문학의 모든 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킬것을 강조하면서 극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극적인것을 공부정사이의 대립과 투

쟁에서만 찾는 좁은 리해를 극복하며 창작실천을 다양화할데 대하여, 특히 텔레비존문학을 여러형태에 걸쳐 새롭게 개척할데 대하여 가르쳐주고있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나아가서 문학평론이 없는 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시대와 문학예술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식의 새로운 평론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일데 대하여 가르치고있다.

우리 식 평론은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우리 나라 실정과 우리 문학예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작된 평론이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평론의 근본사명인 문학에 대한 선도적역할을 높이며 비평에서 동지적리론을 구현하고 대중성을 강화하며 평론활동에서 조직성과 집단주의적성격을 견지하고 창작으로서의 문학평론의 질을 제고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고있다.

주체의 문학형태론은 이와같이 문학의 여러 형태에 걸쳐 창작실천의 원리와 방도들을 독창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명하였다. 주체의 문학리론에 의하여 문예학상 처음으로 작품창작리론이 과학적으로 확립되고 주체의 인간학을 개화발전시킬수 있는 창작의 영원한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주체의 문예학은 문학창조의 위력한 수단으로 더욱 높이 발전하였다.

## X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은 문예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문학리론을 정립한 불멸의 력사적문헌이다.

영광스러운 주체사실주의를 긍지높이 선포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리론의 진면모와 그 진리성, 위대성을 남김없이 파시한 불멸의 대저작 **《주체문학론》**은 인류문학의 오늘과 미래를 향도하는 백전백승의 기치로 되었다.

위대한 저작을 받아안은 모든 작가들과 일군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모든것이 풀렸다, 눈앞이 환하다, 힘이 솟구친다고 격정에 넘쳐 부르짖고있으며 고전적로작을 투쟁의 기치마냥 높이 들고 주체문학건설에 신심높이 떨쳐나서고있다.

은 세계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인류는 불멸의로작 **《주체문학론》**을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노래의 노래, 세상에 다시없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세월은 흐르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세상만물도 변하기 마련이다. 하나 문학 건설과 창조의 위대한 학설 **《주체문학론》**의 진리성, 위대성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날것이며 위대한 진리를 신념화하고 주체사실주의의 한길로 나아가는 문학대오의 장엄한 진군은 세기와 세기를 넘어 영원히 이어 질것이다.

# 우리는 백전백승한다

림공식

이 땅의  
총잡은 전사라면  
그가 누구든지  
한결같이 신심에 넘쳐있더라

미더운 얼굴마다엔  
무적의 용사만이 지닐수 있는  
철의 의지  
도도한 기상이 비껴흐르더라

한결을 걸어도  
보무당당  
영광의 열병광장 지나듯  
척- 척- 지축을 울리거니

오, 물어보라  
어느때든 물어보라  
그러면  
기쁨과 환희를 안겨주는  
병사들의 열띤 웨침소리가  
하늘땅에 메아리 친다  
-우리는 백전백승한다!

백전백승!  
격정에 목매여 되뇌이는  
포화속을 헤쳐온 최전연초소의 장령  
감격에 젖어 말한다  
육살거리는 수십만 대적도  
총포성 울림없이 한수로 전률케 한  
위대한 령장이신 **김정일**동지  
그이의 천리해안의 지락을 두고

산악같은 파도를 헤쳐가는  
바다의 용감한 해병들  
영광의 항로를 찬란히 펼쳐주신

그 영상 숭엄하게 우리르며  
뜨겁게 뜨겁게 말하더라

하늘길 만리로  
번개쳐 날으는 슬기론 비행사들  
몸소 시험비행도 함께 하시며  
그이께서 밝히신 일당백전법으로  
제공권을 억세게 틀어쥔  
그 벽찬 희열을 안고  
아득한 창공에 새겨간다  
-우리는 백전백승한다!

아, 백두의 총성속에서  
비범한 군사적 예지를 키우시고  
전화의 그 나날  
최고사령부 작전대결에서  
무비의 담력을 키우신  
겸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명장중의 명장이시며  
희세의 전략가이신  
그이를 진두에 높이 모시여  
우리 어찌 위훈 떨치지 않으랴  
우리 그 어찌 승리하지 않으랴

두려움 없어라  
그 어떤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하늘 땅 바다초소마다  
승전의 북소리  
장엄하게 누리에 울려 퍼지리니

오오, 언제나 그 언제나  
군사의 영재  
겸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계시여  
무적의 대오는 영광떨치리라  
-우리는 백전백승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항일혁명선열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높은 책임성,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 중편소설이 장편소설로 된 이야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30돐을 맞으며 수많은 장중편소설들이 출판되어 명절을 즐기는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었다.

뜻깊은 국경절을 기념하여 출판된 수많은 소설들 가운데는 장편소설 《영원한 미소》도 있었다.

그런데 장편소설 《영원한 미소》를 받아안은 사람들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바로 3년전에 《영원한 미소》라는 중편소설이 나왔기때문이었다.

중편소설 《영원한 미소》가 3년만에 장편소설로 다시 태어난 여기에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1971년초였다.

혁명전적지에서 창작생활을 하고있던 한 작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정치적인임과 배려에 의하여 한 항일혁명투사와 그 일가의 투쟁이야기를 담은 중편소설을 쓸데 대한 영예로운 과제를 받아안게 되었다.

지금까지 단편소설만 써오던 작가로서는 영예로우면서도 무거운 창작과제였다.

더우기 간고한 항일무장투쟁과 투사들의 생활에 대한 깊은 파악도 없고 해방전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우리 인민들이 겪은 쓰라린 생활에 대한 체험도 없는 작가로서 그런 생활을 담은 큰형식의 소설을 써낸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작가는 영예로운 창작과제를 맡겨준 당의 높은 신임에 창작적성파로 보답함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리라 결심하고 소설창작에 달라붙었다.

그때로부터 4년만에 작가는 드디어 중편소설을 완성하였다.

첫 중편소설을 쓰는 과정에 작가는 고충도 많았지만 이제는 큰 형식의 작품도 얼마든지 쓸수 있다는 신심도 굳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은연중 새 작품을 쓰리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날이 흐를수록 마음속 결심은 더욱 영글어갔다.

그리하여 1976년초부터 새 중편소설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항일혁명투사를 원형으로 하는 새 작품 준비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던 1977년 여름 어느날 깊은 밤이었다.

우산장창작실에 있던 작가는 당중앙위원회로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작가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한달음에 달려가니 이미 문예총과 작가동맹, 문예출판사의 책임일군들이 와있었다.

작가가 자리에 앉자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은 몸가짐을 정중히 하더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방안은 긴장속에 잠겨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7년 5월 22일 중편소설 《영원한 미소》를 친히 읽으시고 이 중편소설에서뿐만아니라 우리 문학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시를 전달해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설의 전반부는 잘 썼는데 작품의 심장부분을 이루는 중간부분에서 유격대에 입대한 주인공의 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리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그 부분을 잘 고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작가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청천벽력이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작가의 번민은 온몸을 얼어매였고 심장은 쿵쿵세찬 박동으로 하여 진정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편소설 《영원한 미소》의 내용은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철규가 유격대에 입대하여 경찰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적후에 들어가 공작하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어 마지막에 자기 이발로 혀를 끊고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는것을 그리였는데 아마 중편소설 《영원한 미소》의 주인공은 마동희동무를 녀두에 두고 형상한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설에서는

마땅히 주인공이 전투에 참가하여 완강하게 투쟁하는 모습,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뻐하는 장면, 예술소조활동을 맡아가고 흥겹게 생활하는 장면, 부대가 어느 농촌마을에 주둔하였을 때 군중정치사업을 아주 능란하게 하면서 자기의 고향사람들도 혁명화하여 다 혁명에 떨쳐나서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생각하는 장면 같은것을 그려야 하겠는데 그저 주인공이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여 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하다가 체포되는것으로 그리다보니 소설이 아주 싱겁게 되었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으면서 작가는 자기가 범한 과오가 단순히 창작기량상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미학사상에 관한 문제라는것을 통절히 느끼였다.

더우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작가를 책망할 대신 오히려 위대한 수령님께 관계부문 일군들이 중편소설 《영원한 미소》에 대한 심의를 잘 조직하지 못한것 같다고 말씀드렸다는것을 알았을 때 작가는 진정 몸둘바를 몰랐다.

잘못은 응당 작품을 쓴 작가에게 있건만 작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려 오히려 관계부문일군들이 심의를 잘 조직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넓고도 깊은 은정에 목매여 작가는 끝내 눈굽을 적시고야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품을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시면서 잘못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일깨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소설에서 주인공이 부상을 입고 혁명동지들에 의하여 구원되는데까지는 아주 흥미있고 멋있게 썼는데 사령관이 다시 주인공 철규에게 지하공작임무를 주어 떠나보내는 장면부터 재미없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주인공 철규와 조금이라는 처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조금은 죽을 고생을 다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였다, 그러나 철규와 조금이 서로만나지 못하다가 철규가 지하공작임무를 받고 떠나는 날에 한시간도 되나마나하게 만나는것으로 만들어놓았다, 작가는 소설에서 혁명가들이 인정이 많은것처럼 그리려고 하였지만 사실은 인정이없는 사람들로 그려놓았다, 사랑하는 사이인 철규와 조금을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게 하다가 철규에게 지하공작임무를 주어 떠나보내면서 밤에 데려다가 한시간도 못되게 만나고 헤어지게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심중히 말씀하시

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인공 철규가 혁명가의 강한 의지와 투지, 혁명적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철규가 경찰임무를 몇번 수행하고 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하는것만 그렸지 그가 항일유격대의 생활을 통하여 혁명화되어가는 과정을 그리지 못했다고, 이것은 소설에서 심장이 빠진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시였다,

소설에서 범한 과오는 참으로 심각한것이였다.

특히 대원들과 인민들에게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사령관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여 그이의 높은 권위를 훼손시킨것은 이 작품의 기본결함이며 돌이킬수 없는 과오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잘못된 작품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될것이 못내 가슴아프신듯 조용히 수령님께 저희들이 중편소설 《영원한 미소》를 다시 읽어보고 수령님의 교시대로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저희들!》

소박하고 겸허한 그 말씀속에는 자신을 수령님의 한 전사로 여기시는 그 불같은 충성심만이 아니라 한 작가의 과오, 작품의 결함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안으시는 한없이 숭고한 의리와 위대한 사랑이 뜨겁게 굵어치고있었다.

그 의리, 그 사랑이 하도 고마와 작가는 어깨를 들먹이며 끝없이 흐느끼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편소설 《영원한 미소》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작품을 훌륭히 수정완성하도록 창작방도를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7년 5월말 친히 작품의 수정안을 보아주시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일일이 바로잡아주시고 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높이고 항일유격대생활을 폭넓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하여 중편소설을 장편소설로 만들며 당력사연구소와 항일혁명투사들이 작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줄데 대하여서와 유능한 작가, 평론가들이 작품심의를 통하여 작가를 도와주도록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그리고 이 작품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한뼘을 계기로 출판하여 충성의 보고를 드릴데 대한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의 수정방도에 대하여 장면장면이 화쪽으로 안겨오도록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은 전3편으로 구성하되 1편에서는 주인공의 입대전생활, 2편에서는 항일유격대생활을 통한 주인공의 혁명화과정, 3편에서는 지하공작과 옥중투쟁을 보여줄데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이것은 원형의 생활을 가장 폭넓고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는 구성형식으로서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도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인공의 입대후 혁명화과정을 취급하게 되는 제2편을 새로 잘 써야한다고 하시며 그 내용을 일일이 밝혀주시었다.

제2편은 그렇게 절절히 소원하던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유격대생활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주인공 철규가 새 군복과 무장을 수여받고 국내에로 진격하여 고향사람들에게 자기의 어엿한 모습을 보여주고싶은 충동을 금치 못해할 때 소대장 강중삼이 그의 들뜬 기분을 알아차리고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해설하면서 교양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도록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다음부분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사건과 인간관계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신 다음 소설 2편의 마감은 철규가 초급이를 자주 만나 혁명적영향을 주는 장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규와 초급이를 부르시여 농마국수를 함께 나누시는 장면, 어버이 장군님의 크나큰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고야말군은 결의를 안고 밀영을 떠나는 철규가 초급에게 장군님께서 주신 소책자를 넘겨주며 돌아올 때까지 장군님을 잘 모셔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으로 끝내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영광의 한길에서 어느 한 전사도 락오자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주기 위하여 파오를 범한 이름없는 한 작가를 위하여 것처럼 세심한 지도와 사랑을 안겨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에 목이 매여 작가는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그는 누를길 없는 걱정을 안고 스스로 혀를 끊고 혁명의 사령부를 지켜낸 주인공처럼 일편단심당과 수령께 충성다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은정에 높은 창작적성으로 보답할 굳은 결의

를 담아 지도자동지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그처럼 바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편지를 만일 보시게 된다면 그이의 귀중한 시간을 축내드리는것으로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진정을 아뢰고싶은 뜨거운 심정만은 억제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1977년 6월 중순 작가는 편지에 쓴 결의대로 꼭 좋은 작품을 쓰라고 본인에게 전하라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전달받게 되었다.

한번 사랑의 품에 안은 전사는 영원히 책임지고 충성의 한길으로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에는 참으로 끝이 없었다.

그날부터 작가는 솟구쳐오르는 창작적열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 작품의 종자와 인간관계, 구체적인 줄거리 그리고 주인공들에게 체험시킬 상세한 생활자료들을 가지고 집단과 동지들의 방조밑에 중편소설 《영원한 미소》를 장편소설로 전개할 개작안을 세워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로부터 얼마후인 8월 3일 또다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작가가 삼가 올린 소설의 개작안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그대로 작품을 쓸데 대한 크나큰 믿음과 신심을 안겨주시었다.

무한한 고무를 받아안고 불타는 창작적정열로 가슴을 뚫이며 작가는 충성의 창작전투를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집필이 시작된 때로부터 불과 몇달사이에 방대한 량의 장편소설원고를 탈고할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이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못내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빨리 출판하여 공화국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선물로 올리도록 하여주시는 크나큰 배려까지 돌려주시었다.

진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심중한 결함을 범했던 중편소설 《영원한 미소》는 장편소설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 어느 나라 문학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중편이 장편으로 된 이야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중편소설이 장편소설로 개작완성된 전설같은 이야기는 소설문학의 개화발전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 삶에 대한 생각

안정기

### 사랑의 봉우리

흙과 돌로 솟아난  
그런 산 그런 봉이라면  
내 무엇하러 또 올라  
한번 보면 그만인것을

흙속에 배인 사랑  
돌속에 스민 사랑  
산이 되고 메부리 된  
아, 주작봉이여

우리 수령님 설한풍 만리길  
한줌의 량식, 한장의 모포마저  
자신 위해 남기신것 없으시더니  
여기에 쌓였구나 사랑의 산

우리 수령님 눈비속에 다시 반세기  
좋은날 궂은날 어느 하루도  
그네를 잊지 못하시더니  
여기에 솟았구나 사랑의 봉

받으려고 준것이라면  
그 사랑 어이 산이 될가  
덕을 보려 준것이라면  
그 사랑 어이 봉이 될가

사랑이여 사랑이여  
위대한 심장의 뜨거운 분출이여  
너는 신념이고 의리더라  
너는 열정이고 힘이더라

살아 아니받은것 없고  
떠나 아니누린것 없는  
수령님 전사들만이  
받아안는 영생의 숨결이더라

오 주작봉이여  
우리 수령님 인덕이  
사랑의 결정체로 솟아올라  
하늘에 빛나는 성봉이여

### 친필비앞에서

여기 오면 본다  
여기 오면 안다  
명문이 무엇이고  
달필이 어떤것인지

만년청암 통채로 다듬어  
옥필에 금먹을 찍어  
일필휘지한 글발  
수령님의 친필비!

획마다 퍼덕이는 힘  
글자마다 번뜩이는 슬기  
보라, 다시 보라  
그것만인가 그것뿐인가

천고밀림 그 어느 나무밑  
쓰러진 전사를 안고 흔들며  
눈을 뜨라고 조국이 지척이라고  
목메여 불러부르던 그 목소리

못잊으시여  
그날의 아픔 오늘도 못더시여  
애모쁜 추억속에 새기시던 그 마음

그 뜨거운 심혈이 젖어들어  
세상에 빛나는 친필비  
인간애의 영원한 석경이며  
혁명적의리의 금자탑인 친필비

동서의 문호들이여  
고금의 명필들이여  
오시라 한번 오시라  
피가 뛰고 숨결높은 이 비둘앞에  
넋으로 웨치는 이 글밭앞에

그러면 보게 되리라  
명문달필이 어떤것인지  
그러면 알게 되리라  
우리 수령님이 어떤분이신지

난날-전사한 날  
그 사이가 너무도 짧아  
바라보는 눈 핑 젖어들어  
내 흰머리 숙이노라

10대 20대 길어 30대  
그렇게 일찌기 가면서  
값없는 이 몸도 오래오래 살라고  
제 나이를 다 넘겨주었던가

삶의 기쁨  
죽음의 고뇌  
그들은 그걸 몰라서  
눈덮인 산야에 피를 뿌렸던가

머리를 숙이노라  
해방의 그날부터 파란많은 세월  
나도 당을 따라 함께 왔다고  
잠시나마 자부했던  
그 생각조차 부끄러워

한몸 티끌과 같이 여겼어도  
산악보다 거창한 그들 삶의 무게를

## 삶

내가 걸은 인생의 얇은 자욱으로  
비해본 그 마음조차 죄송해

투사들이여 그네들  
수령님 받드는 길에  
짧아도 빛나게 살아  
흰머리 없어 오늘도 젊어사노라

이 땅의 청춘들과 함께  
래여날 먼 후대들과 함께  
혁명을 하며 노래를 부르며  
웃고 떠들며 불같이 사노라

아, 숙인 머리 들지 못해  
내 그대들앞에 꿇어앉아  
오래도록 대돌을 쓸어만지며  
뜨거운 눈물로 묻노니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 이제 무엇을 하면  
그대들앞에 머리들수 있는가

## 붉은기

한자루 총대에 운명을 걸고  
넘나든 산밭은 천인가 만인가  
언땅이 구들이고  
눈판이 밭상이던 그대들  
어이 웃고 노래할수 있었던가

물어보자 어디서 솟았는가  
백만관동군을 턱밑에 깔보는 그 배심  
정예의 《황군》을 달고 천산만악을 넘어  
사령부를 지켜 조국을 살린 그 용맹

물어보자 어찌하여  
그대들 사랑엔 만년설도 녹아내리고  
그대들 울음엔 밀립도 흐느꼈던가

피흘린 동지를 그러안고  
부르며 땅을 치며 한밤이 모자란  
그 불덩이 가슴 그 통곡이 아니었더나

물어도 물어도 대답은 없고  
두리엔 다만

반신상을 감돌며 속삭이는 술바람  
사람들 손에 손엔 추모의 꽃송이

후드득 가슴이 뛰여 번쩍 눈을 드니  
휘날리누나 저기 주작봉의 붉은기  
아, 내 어이 물었던가  
거기에 그 대답 다 있는것을

## 영원한 어머니

꽃다발 한아름  
어머니앞에 내려놓고  
꿇벅 절을 하는 저애가  
어머니, 제 말손자입니다

아직은 유치원에 다니지만  
때로는 엉뚱한 말을 해서

어른들을 웃기기도 하고  
말문이 막히게도 한답니다

우리를 따라오며 말속에 끼여들며  
저애가 무어했는지 아십니까  
-김정숙어머님은 엄마께도 어머니  
할아버지께도 어머니

우리 선생님과 내게도 어머니  
왜 모두 어머니라 부르나요?

나는 얼른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런 땐 무어라고 말해줘야 할지  
어머님의 그 위엄 그 사랑  
한종일 말해준대도  
저애의 물음에는 대답으로 못될것이고  
또 아직은 알지도 못할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가깝고 가장 정깊은  
그 이름이 어머니여서  
세월이 가고 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누구나 어머니라 부르고싶은  
그분이 김정숙어머님이어서  
우리모두가 그렇게 부른다고

백두산의 험한길 다 걸으시며  
우리모두의 행복을 찬란히 꽃피워주신  
향도의 태양을 안아올리셨으니  
그렇게 불러야 인민의 도리라고

어머니  
이것이 어찌 마땅한 대답이겠습니까  
이것은 대학생들앞에서나 하는  
너무도 일반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며  
다시 돌아보며  
생각, 생각속에 내리는  
렬사릉의 총계길

뒤에서 문득  
그 누가 부르는것 같아  
따라오며 소리치는것 같아  
주춤 발걸음을 멈추니

울려오누나 가슴가득  
백두와 눈보라소리  
백포자락 퍼덕이는 소리  
삭삭 솟눈길 헤치는 소리

어인 일인가  
맑고 푸른 하늘아래

그러나 어머니  
나는 믿습니다  
저애가 이것을 알 때가 꼭 올것이라고  
제스스로 심장으로 느낄 날이 있을거라고  
먼 후날 저애도 제 손자와 함께  
여기에 찾아와 그런 물음을 받으면  
나처럼 대답대신 눈곱이 젖을것이라고

조국이 있고  
민족이 있고  
이 땅이 있는 한  
혁명의 어머니로 조선의 어머니로  
부르고 또 부를 어머니시여

흐르는 세월속에 나이를 멈추시고  
언제나 웃으시며  
언제나 오늘에 사시며  
아들딸을 맞아주실 어머니시여

저애의 꽃다발을 받아주십시오  
그속에 정녕코 어머니로 모시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7천만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 영원한 우리 어머니시여

## 나를 받아다오

평화로운 강산에  
때아닌 총소리 나팔소리...

수령님 웅위한 혁명의 첫 세대들  
세월을 따라 멀리멀리  
나를 앞서 지나간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여기 지금도 가고있구나

아, 영광의 대오여  
나를 좀 받아다오  
그대들 맨 뒤자리도 좋으니  
받아다오 그 고난의 행군길에

믿고 받아다오  
그대들 영원한 청춘대오에  
세대가 다르다 탓하지 말고  
나도 그대들 걸음새로 가게 해다오

# 그 미소속에

허수산

어쩌면  
그리도 기쁘시여  
어쩌면  
저리도 환히 웃으시랴  
  
이 땅우에  
매일같이 솟아오르는  
웅장한 건축물들, 황홀한 거리들  
  
그 준공테프 끊으시며  
10년은 더 젊어지시는듯  
그리도 밝게 그리도 환히 웃으시는  
우리 수령님  
우리 수령님  
  
저 밝은 웃음속에  
날에 날마다 수풀처럼 일떠선  
청춘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그 모든 행복의 탑들과 시대의 기념비들  
새로운 모양과 의미를 띠고  
이 땅우에 다시 솟아오르는듯...  
  
생각도 깊어지누나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리려  
세월의 찬눈비 다 맞으시며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동지

쉽없이 바치시는 정력과 심혈은 그 얼마  
  
거리면 하나의 살림집  
부엌세간에 이르기까지  
극장이면 하나의 지붕  
세부 조형미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마음쓰시며 지도해주셨나니  
  
한번 걸으셔도 될 길을  
그 몇번이고 다시 걸으시며  
어버이 우리 수령님 기쁨 위해  
이 땅우에 아로새겨오신  
별처럼 빛나는 충성의 자욱이여  
  
그이 바치시는 정력적인 령도로  
어버이수령님 언제나 환히 웃으시고  
그 기쁨의 미소속에  
우리 인민은  
날에 날마다 행복한 삶을 꽃피우거니  
  
아 세기의 창공높이 일떠서는  
시대의 기념비들 준공테프 끊으시며  
어버이수령님 지으시는 그 밝은 미소  
홍하는 로동당시대에 보내시는  
다함없는 축복, 축복이여라

## 명제해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은 문학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문학에서 사상성이 없으면 예술성도 없고 예술성이 없으면 사상성도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문학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을 전제로 하고있다.

사상성은 문학의 중요한 속성이며 그 가치를 평가하는 첫째가는 기준이다.

문학작품은 사람들의 흥미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상교양을 목적으로 하여 씌여지기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작가의 사상이 담겨지기마련이다.

작품에 반영된 사상은 작가의 사상과 견해의 표현이며 세계관의 반영이다.

작품의 사상이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려는 작가의 사상과 의도, 견해의 표현이라면 사상성은 작품에 반영된 사상의 성격, 사상적경향성이라고 할수 있다.

사상적경향성이 좋은가 나쁜가에 의하여 문학의 질적특성이 규정되며 그 성격이 특징지어지며 여기로부터 혁명적문학과 반동적문학이 갈라진다.

그러므로 사상성은 문학의 사회계급적성격을 규정하는 근본속성으로 된다.

사상성을 떠나서는 사상교양의 수단이며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로서의 문학의 존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문학의 사상성은 문학으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옹기 수행할수 있게 하는가, 할수 없게하는가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의 하나이며 문학의 계급적성격을 표현하는 기본속성으로 된다.

예술성은 문학이 가지고있는 고유한 속성이다.

예술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문학은 사상성을 생활형식을 통하여 감성적으로 전달하며 예술적흥미를 자아낸다.

예술성은 인간과 그 생활을 흥미있고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미학적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문학의 고유한 속성이다. 문학작품에서 사상성만 있고 예술성이 없다면 그러한 작품은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며 강연제강이나 신문의 사론설과 다름없게 된다.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 이것만이 문학작품의 참다운 가치를 규정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으로 된다.

예술성은 일정한 사상적내용을 생동하고 감명 깊게 그려내는 형상수준과 관련되는것만큼 우선 작품에 담겨진 사상적내용이 의의있고 뚜렷한것이여야 한다. 우리는 형상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정치와 사상에서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면서 예술성을 높이는데 낮을 돌리지 않는 좌경적편향을 극복해야 할뿐아니라 사상성을 홀시하고 예술성 일방만을 강조하는 우경적편향인 예술지상주의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문학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기 결합시켜나감으로써 사람들을 미학적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 사상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기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창작하는데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

원래 문학작품은 높은 사상성을 고상한 예술성으로 표현한것으로서 높은 사상성을 떠나서는 사상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할수 없으며 그것은 고상한 예술성으로 표현되었을 때에만 위력한 정서적감화력과 예술적견인력을 유감없이 발휘할수 있게 된다.

문학작품은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결합된 상태에서 존재하며 자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그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거나 이 두 측면을 분리해서도 안된다.

사상성과 예술성은 문학작품에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있지만 언제나 사상성이 일차적이고 우위적이다. 하지만 예술성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되며 량자는 옹기 균형과 결합을 보장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상성과 예술성을 저울로 단다고 할 때 사상성이 더 무겁고 예술성이 가볍다든가, 예술성이 더 무겁고 사상성이 가볍다든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시었다.

작품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은 완전히 결합되더라도 옹기 균형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은 문학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량자 결합과 균형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두번째 위인을 맞다

아버지가 자리에 눕자 석천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고 늘 바빠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하늘에서 백두산에 장수가 내려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곳마다에서 일본놈들을 쳐부신다는 희한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언제인가는 주막거리에 내려갔다가 축지법을 쓰시는 백두산장수가 군사를 일으키자 백두산마루에 전에 없던 큰별이 떠서 밝은 빛을 뿌린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온 8도강산의 청년들이 백두산장수의 부하가 되기 위해 백두산으로 삼삼오오 떼를 지어 구름처럼 밀려가는데 조만간에 조국이 광복된다는 것이었다.

(히야,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나도 백두산장수를 찾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한 석천은 그날저녁 자기의 결심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는 한참동안 말없이 앉아있더니 이윽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석천아, 이 애비가 네 마음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우리야 이 집에서 대를 이어 살면서 위인들을 잘 맞이하라는 하늘의 계시를 받지 않았느냐? 첫번째 위인은 이미 맞이했었고 이번에 두번째 위인이 백두산정에 내렸은즉 조만간에 우리 집에도 들리실텐데 네가 응당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석천은 아버지의 분부대로 집마당과 길도 넓히면서 두번째 위인을 맞을 준비를 착실히 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하루는 수수한 농사군차림을 한 젊은 사나이가 대문안에 들어서더니 집주인을 찾는 것이었다.

방안에서 노전을 엮던 석천은 혹시 백두산장수가 오신게 아닌가 하여 뛰어나가보니 그 사람은 자기는 백두산장수의 부하 김창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백두산장수의 부하?》

석천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했다.

그는 백두산장수 부하의 아래우를 찬찬히 훑어 보았다. 그런데 조금도 류다른데가 없었다. 김창해란 사람은 덩비지 않고 침착하게 차근차근 말하였다.

그는 강계와 장강, 랑림으로 쉽게 빠질수 있고 읍거리와 가까우면서도 외따른 이곳 설매골에서

일할 파업을 백두산장수로부터 받고왔다고 하면서 집자리를 하나 골라달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석천은 그만 어이가 없었다.

《아니, 총을 잡고 왜놈을 칠 생각은 안하고 집을 짓고 살겠다니, 원 참.》

하지만 백두산장수가 보낸 부하라기에 막바지 둔덕에 터를 닦고 잠간사이에 집 한채를 지어주었다. 집을 지어주면서 대상해보니 김창해 역시 아는것이 많고 사람을 끌어당길줄 알았다.

창해는 집을 지어놓고 몇해째 가족을 데려올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 집에는 매일밤 낯선 사람들이 와서 하루밤씩 묵어가고 어떤 때에는 여라문명씩 모여서 무슨 회의같은것도 하고는 헤어지곤 했다.

그리고 언제인가는 마을에 야학을 차려놓고 글공부를 시키더니 조금후에는 마을청년들로 무슨 회를 무어놓고 마을에 있는 서당에 간판까지 커다랗게 내걸었다.

그러자 어리무던하고 일밖에 모르던 마을사람들이 개명을 해서 유격대에 보낼 무기와 원호물자를 마련했고 이것을 어디론가 매일 날라가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석천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가 생각하던 끝에 아버지와 의논을 한 다음 집안에 있는 돈을 몽땅 털어 커다란 말 세필을 사서 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매일 먼길 가는 사람들이 타고 가기도하고 짐도 실어나르도록 하였다.

이렇게 석천은 그들을 도우면서 이제나저제나 백두산장수가 집에 내리시기를 학수고대하였다.

또 몇해가 지난 어느해 가을 이른아침이었다. 이날도 어느날과 마찬가지로 석천은 아침일찍 일어나 집안팎을 깨끗이 쓸어내고 개울물에 나가 세수를 한후 무명수건으로 닦는데 앞산 봉우리에서 《호호호웅-》하는 독특한 말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문명 우리 집 말울음소리는 아닌데 혹시?…)

석천은 반신반의하면서 산봉우리를 쳐다보다 그만 입을 벌린채 굳어지고 말았다.

아침노을을 이고있는 동쪽 산봉우리에서 발목에 흰구름을 감은 롬바 한필이 네굽을 안고 앞산 봉우리위에 날아내리며 또다시 《호호호-》하고 투레질을 하는 것이었다.

뜻밖의 광경에 석천은 멍청하니 산봉우리를 바라보는데 이자 방금 롬바가 내린 봉우리에서 웬 담너 두사람이 산을 가볍게 내려오는 것이었다.

(누굴가 혹시?…)

자세히 보니 앞에서 오는 사람은 이전부터 창해의 집에 자주 오곤하던 한필공이 분명한데 까만치마에 붉은색 저고리를 받쳐입은 녀인은 누구인지 알수 없었다.

어리둥절해 서있는 석천에게로 다가온 한필공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 너 석천이로구나. 그래 아버지 계시냐?》

《예, 제십니다.》

석천은 뒤에 오는 녀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대답하였다. 한필공이 한걸음 비켜서며 석천에게 말을 하였다.

《석천아, 인사드려라. 백두산에서 오신분이시다.》

《예? 백두산에서요?》

석천이 백두산이라는 말에 놀라 되묻는 사이에 뒤따라오던 녀인이 머리를 가볍게 숙이며 《수고하십니다.》 하고 먼저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어정쩡해진 석천은 열결에 《예, 저...》 하고는 몸돌바를 몰라하다가 녀인이 머리를 드는 순간 그만 《아》 하고 굳어지고말았다.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에 영채도는 눈빛, 환하게 웃을 때 어려오는 자애로움...

석천은 대번에 이 녀인이 보통녀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면 이 녀인이 것처럼 명성높은 백두산장수란 말인가? 아니야, 백두산장수는 키가 구척장신에 흰 수염이 서발이나 된다던데... 그러면 과연 아닐까?)

석천이 한동안 얼빠진 사람처럼 멍청하니 서있다가 집마당에 들어서며 아버지에게 손님들이 왔다는걸 알렸다.

아버지가 토방에 나서자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는 인차 방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에 들어선 한필공은 녀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오늘이 바로 가문의 두번째 소원이 풀리는 날인가 봅시다.》 하고는 싱글벙글 웃는것이였다.

아버지와 석천은 《아니 두번째 소원이라니?》 하고 의아해하면서 다음말을 이르는데 밖에서 창해가 찾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한필공과 그 녀인이 일어서면서 《저 할아버지, 이른아침부터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만 실례하겠습니다.》 하고는 창해와 함께 초막집으로 올라가는것이였다.

한낮이 되어오도록 석천은 도저히 일손이 잡히질 않았다. 아침에 만났던 그 녀인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눈앞에는 환하고 인자한 그 영상이 지워지질 않았다.

《에익, 내 창해선생을 만나 알아보리라.》

석천이 끝내 참지 못하고 초막집으로 막 달려가려는데 앞산 봉우리쪽에서 아침에 들리던 말을 음소리가 또다시 나더니 점점 멀어져갔다.

잠시후 산마루에서 창해가 성큼성큼 내려왔다.

그는 석천에게 그 녀인이 바로 백두산장수와 함께 하늘에서 내린 백두산녀장수이시라고 알려주었다.

《아뿔싸, 우리 집에 찾아오신 두번째 위인을 못알아보다니.》

석천이와 아버지는 그만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할아버지, 이 책을 받으십시오.이 책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친히 쓰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입니다. 백두산녀장수님께서 이 책을 할아버지에게 드리라고 저에게 부탁하고 떠나셨습니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

책을 받아든 용무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였다.

그때부터 용무는 젊은 사람 못지 않게 기운이 넘치여 아들 석천과 함께 창해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극성스럽게 도와주었다.

마을에는 조국광복회조직이 생기고 모두가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나라 찾을 성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그후 몇해가 지나서 왜놈이 망하고 석천이는 해방된 조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였다.

해방후에야 그들은 백두산녀장수가 다름아닌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해방과 함께 기쁨이 커갈수록 석천은 마음속에 근심이 커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나이는 들어 점점 늙어가는데 하늘의 계시대로 아직 세번째 위인을 모시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새 조국 건설에 분망하신 그분들이 언제 이 산골에 오실새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석천은 어느날 여덟살잡이 아들 문호를 불러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

《애 문호야, 이제 세번째 위인은 네가 모셔라, 우리 가문이 이 집에 살면서 세분의 위인을 모시라는것은 하늘의 계시가 아니냐? 옛날부터 여기 설매골 앞산을 장수가 날곳이라고 해서 장자덕이라고 했거늘 꼭 세번째 위인도 나타나서 우리고장을 더 잘살게 해주실게다.》

철없는 문호이지만 말뜻을 알았다는듯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김우경



## 내 고향 하람산

박웅전

### 숨은 영웅의 산

왜 몰랐던가  
우리고장 제일 높은 령봉이라면  
산중에도 높은 산 너를 꼽았고  
우리고장 이름난 명산이라면  
열두꼭포 장관인 너를 자랑했건만

등산길 오르면서도  
탐승길 헤치면서도  
왜 미처 몰랐던가  
창바위, 수리바위, 치마대  
너의 산악이 왜 그리도 기세충천하고  
너의 밀림이 왜 그리도 푸르청청했는지...

용서해다오 하람산아  
너의 기슭에 태를 묻고 살면서도  
네가 지닌 혁명의 고귀한 뜻  
모르고 살아온 이 아들을

《항일명장》, 《항일녀장수》  
《백두광명성》

이 나라 3대자랑 가슴깊이 새겨안고  
백두산에서 타오른 혁명의 횃불을  
억세게 받아안아 봉화로 올리며

황해라 드넓은 조국땅 한복판에  
광복의 불씨를 뿌려왔건만

백두밀영사령부를 받아들여온  
비밀근거지시절처럼  
백두산 혁명전적지를 내세우며  
너는 그리도 수십년 세월 말이 없었던가

아름드리 구호나무 부둥켜안고  
감격에 목메여 눈물 씻으며  
내 다시금 너를 쳐다보나니

너의 높이는  
백두산을 따르며 자란 높이  
너의 즐기줄기는  
백두의 혈통을 이어온 피줄기  
그 뿌리에서 우리 사는 향촌이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었거니

내 고향 하람산아  
너는 혁명의 만년채보를 가슴에 안고  
백두의 위업 중심으로 받들면서도  
아직 그 이름 알려지지 않은  
아, 이 나라 숨은 영웅의 산이었구나!

### 편지를 쓰거라

팔애야  
어서 편지를 쓰거라  
초소에 서있는 네 오빠에게  
우리 고향 하람산에도  
항일영웅들의 글발이 나왔다고

봄철이라 지금쯤 진달래가 폈겠지  
가을이라 산열매 무르익겠지...  
네 오빠는 편지마다  
하람산 이야기 빼놓지 않더니

얼마나 기뻐하랴  
항일혁명의 뜻이 어린

성스런 고장의 태생이라고  
축하해줄게다  
초소의 지휘관들, 전우들 모두가

하지만 팔애야, 꼭 쓰거라  
힘난한 세월에도 변심없이  
불멸의 자욱을 지켜온 하람산이  
이제는 아버지보다 더 엄한 눈길로  
지휘관들 보다 더 힘찬 구령으로  
너희들 후손들을  
대를 이어갈 혁명의 한길  
위훈의 한길로 부르고있음을!

### 내 고향의 첫 집

사무친 인민의 원한을 풀자고  
복수의 칼날을 폭포수에 적시어

바위에 갈고갈아 칼석골인가  
충암절벽이 요새를 이룬

하람산 칼석굴 밀영자리여

아직도 파묻힌 돌장을 뒤집으면  
검은 연기 생생히 그슬린 온돌장  
세월의 눈비에 강대가 진대되고  
진대가 진토된 귀틀목

저 돌절구는 아침저녁  
풀뿌리 찢어서 작식을 보장했으리  
저 수정같은 샘물은  
먼길 달려온 투사들의 타는 목  
추겨주었으리

안개 자욱한 저 밀림속 오솔길로  
얼마나 용감한 소부대대원들이  
얼마나 활달한 정치공작원들이  
찾아오고 떠나갔으랴  
떠나간이들 험준한 산발 타고 넘어  
드넓은 조국땅 한복판에  
얼마나 많은 투쟁의 불씨 뿌리였으랴

집이여

하람산 밀영의 귀틀집이여  
너는 암운이 드리운 그날에도  
조선의 숨결을 안고  
조국해방의 해돋이를 마중해  
추녀 높이 들고 서있었으니

산기슭 강기슭

자리 좋은곳에 집 또한 많아도  
협산의 낭끝에 자리잡고  
혁명의 가장 큰 임무를 지켜온 집  
우리 고장 하많은 집중에서도  
백두밀영에서 태어나온 투쟁의 집  
너는 너는 내고향의 첫 집

아, 아름다운 내 고향  
고래등같은 기와집 늘어날수록  
더 높이 쳐다만보이는  
하람산 밀영의 귀틀집이여

## 한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장건식

제가 낳아 키워낸 자식이지만  
어떻게 그런 용단 내릴수 있었던가  
20여년  
애지중지 안아키운 꽃같은 딸들을  
영예군인들에게 시집보낸 아버지

누구나 제자식 귀한줄은 알라도  
그 어느 부모가 남의 자식 먼저 생각했던가  
꿈많은 네명의 딸이 영예군인의  
팔이 되고 눈이 되고  
길동무 되기를

아, 그는  
조국이란 큰 마당위에 자신을 세운 사람  
나라 위해 피흘린 전사들을  
존경과 동정에 젖어 바라보면서도  
누구도 쉬 결심못하는 장한 일을 했구나  
그 인정의 한계를 벗어나  
한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그는 순간순간을  
우리 당의 심장으로 숨쉬는 사람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토록 가슴 아파하시는 그 진정을  
스스로 깨우쳐 안고 애태운 당원

우리 당의 그 깊은 심정을 두고  
얼마나 모대기며 가슴 태웠으면  
그 귀여운 딸들의 등을 밀어  
조국의 또 한뜨락을  
당의 따사론 해빛으로 채웠으랴

아, 말하기는 쉬워도  
누구나 선뜻 하기 힘든 일을  
말없이 실천으로 보여준 서상보  
그는 진정한 애국자  
우리 당의 참된 동행자

심장으로 목숨으로  
온 뉘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당과 함께 숨쉬는 이런 당원들이 있어  
온 나라는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사람마다 그늘없는 친형제로 밝게 웃는구나

## 축복

백철수

흔히 막내딸을 두고는 사랑받이를 시집보내느니보다 차라리 제가 가는것이 낱을듯싶은게 부모의 심정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기관차대의 준비기관사 서상보는 귀염둥이 막내이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잔주름잡힌 얼굴에서 노상 웃음을 거둘 줄 몰랐다.

좀해 웃는 법을 모르던 그의 얼굴에 때없이 피어나는 웃음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추측하였다. 딸 여섯을 다 시집보내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게 되었으니 부모구실을 다했다는 안도감에서 그럴것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딸부자로 불리우던 그가 이젠 사위부자로 불리우게 된 기쁨때문에 그럴것이라고도 말하였다. 그러나 그 집 사위들의 래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픈 가슴을 메우기위하여 우정 지어보이는 웃음일것이라고 넘겨짚어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럴만도 한것이 서상보는 첫째와 둘째의 두 딸을 군인에게 시집보낸 다음 셋째와 넷째, 다섯째를 련이어 영예군인에게 주었다. 그런데 막내이사랑받이까지 몸이 불편한 영예군인에게 시집보내려고 결혼식준비를 서두르고있으니 그의 마음이 어떻게 스스려울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뒤에서 돌아가는 그런 말을 얻어들은 안해 류찬실은 너무도 분하여 드러누워버리었다. 자칫 잘못하면 기쁜날이 통곡하는 날로 될것만 같은 그 정황에서도 서상보는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혼연히 웃으며 말하였다.

《누가 그런다고 우리 일이 달리 될수야 없지. 귀등으로 흘려보내구려.》

하늘이 무너져내려도 드림이 없을 남편의 태연자약한 모습에 안해는 기동을 안은듯 다시 일어나서 일손을 잡기는 하였지만 기관사인 남편을 전시수송에 내세우고 후방에서 겪었던 고심살이가 눈앞에 되살아올라 혼자 가만히 눈물을 지었다.

(저 령감은 죽을 때까지도 남편을 섬기면서 겪는 녀자들의 마음고생은 모를거야. 그저 시집만 보내면 다 되는줄로 알고있으니...)

서상보는 강심먹고 일어나 다시 일손을 잡은 마누라에게 은근히 동정의 눈길을 보냈을뿐 태연스레 앉아 자주 밖을 내다보았다. 그럴 때마다 혼연하던 그의 얼굴에 한가닥 초조한 빛이 비끼군하였다. 그것은 지난날 군무했던 구분대를 찾아간 막내딸의 신랑 홍농호가 돌아오지 않기때문이었다.

사흘전 농호는 어제날의 저희 군부대가 이미 말았던 발전소대상건설을 끝마치고 평양-희천사이 고속도로도로공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멀지 않은 곳에 이동되어왔다는것을 알아가지고 달려와서 그리운 전우들을 찾아보고오겠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오늘 만난 지휘관동지에게 제가 결혼하게 되었다고 말했더니 한번 신부를 데리고 구분대에 찾아오라고 신신당부합디다. 먼저 전우들을 만나보고 돌아와서 결혼식을 한 다음 창화를 데리고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서상보는 꽤히 승낙했었다. 군사임무수행중 부상을 입고 부대를 떠났던 농호가 딸 장화와 함께 신혼부부차림을 하고 찾아간다면 전우들이 얼마나 기뻐할것인가. 어렵고도 중요한 공사를 전투임무로 받아안은 전사들에게 그이상 큰 고무로 될 일은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신랑신부의 군부대방문은 한시도 미룰수 없다. 혼례를 치르는 즉시 상에 차려놓았던 음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떠나도록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것을 다른 사위들이 찬성할가?)

불쑥 이런 의문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자 서상보는 갑자기 가던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둥거리었다. 눈앞에 얼른거리는것은 세 사위들뿐만아니다. 그뒤에는 영예군인공장의 술한 로동자들이 서있다. 그럴것이 공장에 다니는 사위들과 그일손을 도와 함께 기대를 잡은 세 딸들이 모두 일을 잘하여 막내이의 결혼식은 온 공장의 관심사로 되어왔다. 물심량면으로 방조를 아끼지 않은 그 고마운 사람들을 섭섭하게 하여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서상보는 엇갈리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렇게도 저렇게도 작정을 못하고 혼자 궁식거렸다.

이때였다. 밖에서 인기척이 부산스럽더니 농호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군부대에 다녀온것을 말하기 앞서 영예군인공장 초급당비서가 온다고 귀뜸하였다.

(초급당비서동지가? 갑자기 웬일인가?)

서상보가 문을 열고 내다보니 초급당비서가 세 영예군인사위를 데리고 사립문을 들어서고있었다. 며칠이 멀다하게 자주 찾아와서 집안의 크고작은 일들을 의논하며 살펴주어서 한집안식구처럼 여겨온 서상보였지만 오늘은 사위들과 함께 더군다나 군부대를 다녀온 농호까지 앞세우고 온데는

절로 의문이 생기지 않을수 없었다.

초급당비서는 옷방에 들어서듯마듯 그 의문부터 풀어주려고 말을 뗐다.

《상보아버님, 농호동무가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들었는데… 군부대에서 농호동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결혼식을 차리겠다고 합니다.》

《군부대에서 농호의 결혼식을 차리겠다니… 농호야 제대된 몸이 아닙니까?》

《제대되어 우리 공장 사람으로 되었지요. 하지만 불련한 몸으로 제대된 농호동무가 장가가게 되었으니… 그것이 대견스러워서 그 신부를 자기네가 축하하겠다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

서상보는 너무도 뜻밖의 소식에 말을 못하고 사위들을 둘러보았다.

《아버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영예군인인 만사위 강창국이(원래 순서를 따지면 셋째인데 여기서는 필요상 만사위로 부르기로 하자.) 사위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말을 이었다.

《군부대가 우리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 준다는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 자신들이 당하는 일처럼 기쁩습니다. 떠나온 조국보위초소를 늘 그리며 잊지못하는것이 우리들의 심정인데… 더군다나 우리몸의 한부분을 바치고 왔다는것을 생각하면…》

강창국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슬며시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갔다. 다른 사위들도 젖어오르는 눈길을 들지 못하고있었다.

서상보는 한동안 눈만 슴벅거리다가 아래방 미닫이를 열면서 《여보, 마누라.》 하고 불렀다.

《나도 다 들었어요.》

안해는 치마자락으로 눈굽을 훔치면서 갈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 집일을 부대에서까지 그렇게 알아주고있으니… 어쩌면…》

안해의 목소리는 어느덧 흐느낌으로 흐려버렸다.

《그러면 됐습니다.》

초급당비서는 격동된 심정을 절절한 목소리에 담아 즐거운듯이 말을 뗐다.

《그럼 하던 잔치준비를 중지하고 사흘후에 부대로 떠나갑시다. 나는 이 사실을 시당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니, 시당에까지야… 우리가 해온 결혼식감을 가지고 군부대에 다녀오면 될 일을 가지고…》

서상보가 이렇게 밀막듯이 말하자 초급당비서는 우선우선한 얼굴로 말하였다.

《군민관계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걸 당에서 몰라서야… 우리 당에서는 꼭 알아야 합니다.》

서창화의 결혼식을 군부대에 가서 하게 된다는 보고를 받은 시당에서는 결혼식상에 놓을 식품과 지원물자를 덧붙여 마련해주고 그 당일에는 서상보일가가 타고갈 버스 한대를 통채로 보내주었다.

(나는 고작 딸의 결혼식을 마치고 상을 허물어 가지고 군부대를 방문하면 될줄 알았는데 당에서는 우리 일에 이렇듯 큰 관심을 돌려줄줄이야.)

서상보가 이렇게 놀라운 생각을 할만도 하였다.

버스에는 결혼식차라는것을 표시하여 꽃테가 둘러졌고 일가가 차에 올라 떠나는 날에는 소년단원들이 노래부르며 오래도록 손을 흔들어주었다. 이렇게 되니 꽃을 가슴에 달고 나란히 앉은 신혼부부는 더 말할것도 없고 서로 쌍쌍이 자리잡은 딸네부부들도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여났다.

사위들은 마치 전송을 받으며 군대에 입대했던 그날의 감격에 사무치듯 흥분에 떠있었다. 영예군인인 만사위 강창국은 의족인 바른다리 대신 왼발로 장단치며 코노래를 흥얼거리고 화상을 입어 볼품없이 된 얼굴을 남에게 안보이려고 늘 고개를 수긋하고있던 둘째 임창식이기도 오늘은 얼굴을 번쩍 쳐들고 결혼식장에서 읊을 자작시를 외우느라고 씩없이 입술을 놀리고있다. 대퇴골절로 역시 의족을 찬 셋째사위 백명학은 내성적이어서 말할수적던 성미를 어디에 공저버렸는지 오늘은 제일 많이 우스개소리를 한다. 딸들은 그렇게 기뻐하는 자기 남편을 보는것이 이른데없이 좋은듯 발그레상기된 얼굴에서 미소를 거둘줄 모르고있다. 오늘따라 그러한 딸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와보이는지… 하늘의 선녀에나 비길가?

안해와 함께 뒤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서상보는 신비스럽게 젖어드는 황홀한 심정에 휩싸여 이것이 꿈이 아닐가 하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온 가족의 기쁨을 싣고 달리는 버스… 고르로운 기관의 동음… 귀에 익고 손에 익은 기관차에서는 볼수 없는 배기가스와 쾅무니에 달리는 먼지구름… 가족의 행복을 싣고 뺨스는 나는듯이 달리고있는것이다.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이 엄연한 현실은 불현듯 서상보로 하여금 군수렬차를 운행하면서 겪었던 전쟁시기의 일을 눈앞에 떠올리게 하였다.

인간의 가치를 심판하여 아름답고 정의로운것을 빛내여주고 그것과 상반되는 온갖 불필요한것을 털어버리게 하여주던 전쟁, 그 나날속에서도 중상자를 후송하면서 한 간호원이 기울인 지극한 정성은 마치도 서상보에게 오늘의 행복을 마련해주기위해 발휘한 숭고한 모범처럼 가슴뜨겁게 안겨오는것이였다.

1952년 가을, 적들의 《추기공세》를 파탄시키기위해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릴 때 전선수송을 맡은 기관사들의 투쟁도 격렬하였다. 전사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총포탄을 실은 렬차를

취파리떼같은 적기들을 피하며 전선으로 운전해 가는것도 가슴죄여지는 일이었지만 한시가 새로운 중상자들을 받아실고 후방으로 들어오는것도 숨가쁘기 이룰데 없었다.

대피굴간을 떠나 한시간도 달리지 못했는데 철길감시초소에서 급정거신호를 보내여왔다.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인 상보는 기관차에서 뛰어내렸다. 앞으로 걸어나가보니 철길에 시한탄두개(하나는 철길복판에 다른 하나는 철길쪽에)가박혀있었다. 그것이 튀면 궤도가 허공 들려나고, 원상대로 보수하려면 하루나절이나 기다려야 할판이다. 중상자들을 실고 그렇게 지체한다는것은...

다급한 정황에서 상보는 주저하지 않고 시한탄을 안아올렸다. 작렬하면 사람을 형체없이 날려버릴 두개의 피물을 멀찍이 똑박에 내쳐버리었다. 그리고 기관사에게 통과신호를 보내고났을 때에야 쪽 찌버린듯이 전신의 맥이 풀린것을 알아차렸다. 상보는 기관차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유개 화물방통에 기여올라가 쓰러지듯 누워버렸다.

(기관사동지도 리해하여주겠지... 다음역까지는 좀 쉬어야겠어. 못참겠는걸...)

엄습하는 피로에 실려 몽롱한 생각을 좇고있는데 《이 열차는 어느쪽으로 가고있소?》 하고 물어보는 목소리가 무겁게 울리었다.

《후방으로 가고있소.》

상보는 이렇게 대답하며 방통안을 더듬어보았다. 사방이 막혀 어둡시그레한 속에 온통 봉대로 휘감긴채 누워있는 중상자와 그결을 지키고앉아있는 간호원의 모습이 보이었다. 그리고 의무실로 꾸린듯 한쪽 구석에는 백포가 드리워져있었다. 그제야 상보는 자기가 중상자를 후송하는 방통에 올랐다는것을 깨달았다.

《후방을 지키기 위해 나간 군대가 전선을 버리고 후방으로 간단말이요? 안될 소릴... 간호원동무, 다음역에서 나를 내려놔주오.》

중사가 목갈린 소리로 부르짖었다.

《분대장동무, 자꾸 이러지 마세요. 분대장동무는 후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지 않아요.》

아직 애되어 가랑머리도 땅지 못한 단발머리간호원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리었다. 그러나 분대장의 투정질은 도수가 높아지지만 하였다.

《동무는 나를 뭘로 만들려구 그따위 소리만 하오. 대원들이 피흘린곳을 두고 어디로 가라는거야. 나를 고지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용서치 않겠소.》

《분대장동무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임무를 수행해야지 않아요... 여기 오른 기관조사동무도 분대장동무를 빨리 후송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있는지 ...》

《걸어치우시오. 후방으로 보내지 못해 애쓴다

는걸 다 알고있소.》

상보는 분대장의 목소리가 자기의 헌신적인 노력을 칼로 베어버리는것만 같은 모독감에 벌벌 일어섰다.

《분대장동무, 자기만 조국을 위해 싸운다고 재세하지 마시오. 이렇게 생트집부리는걸 보자고 우리가 목숨을 내대고 이 열차를 운행하는줄 아오?》

상보의 편잔에 분대장도 격동되였다.

《전투장에서 떼내지 못해하면서두 목숨바쳐 열차를 운행한다구? 그건 반동놈의 소리야!》

《아무 소리나 망탕... 동무도 인민군대요?》

상보가 자제력을 잃고 이렇게 소리치자 분대장도 마주 일어서면서 소리쳤다.

《진짜 반동이구나, 총! 내 총을...》

분대장은 얼굴에 감은 봉대를 잡아뜯으면서 부목을 댄 다리를 내짚다가 쿵! 하고 그자리에 쓰러졌다. 《어마나!》하는 간호원의 비명과 함께 백포를 들치며 군의가 달려나왔다.

《왜 와서 소동이요? 자기 초소나 지킬게지... 빨리 나가시오!》

...상보는 그날 어떻게 기관차로 돌아왔는지 또 어떻게 목적지까지 무사고로 운행을 마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열차를 대피굴에 은폐시키고 기관사가 주행과정에 시한탄을 제거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기관차대장실로 갔을 때 상보는 기관차를 쓰다듬으며 혼자 속다짐하였다.

(나의 철도근무는 오늘로 끝장이다. 군사동원부로 찾아갈테야. 철도에서 일했다고 입대를 거절하면 군부대로 찾아가고 말아야지. 군수물자를 수송하면서 사권 지휘관들도 있으니까...)

서상보의 생각은 간호원의 출현으로 중단되였다.

《여기 있는줄 모르고 사방 찾아다녔네.》

반기며 다가서는 간호원의 얼굴에서 유표한것은 왼쪽 볼에 박힌 당콩알만한 기미였다. 어둡시그레한 방통안에서 알아보지 못했던 그 류다른 얼굴특징을 상보는 신비스럽게 바라보면서 물었다.

《무슨 일로 찾았소?》

《분대장동무가 보내서 왔어요. 조사동무에게 자기가 한 행동을 사죄한다고...》

상보는 뜻밖의 말에 간호원의 얼굴을 얼없이 지켜보기만 하였다. 그러자 간호원은 자기 얼굴의 기미때문에 그러는줄로만 안듯 손으로 왼쪽을 가리우며 말을 이었다.

《분대장동무를 리해해주세요. 우리 방어계선에서 쑥 빠져져나간 주먹고지란데서 중상당했는데... 거기를 빼앗기면 우리 방어선에 큰 금이 가게 된다는것이였어요. 거기 전투가 얼마나 가렬했던지 여덟차례나 기여오르는 원썬놈들을 물리쳤어요. 제가 배비변경하러 나가는 소대를 따라 고지

에 나갔을 때엔 분대원들은 다 희생되고 분대장 동무도 경기관총을 안은채 쓰러져있었어요. 담가에 실려 군의소에 와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부터 자기를 왜 후송했는가고 야단이에요. 원쑤를 천백배로 복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분대원들을 잃은게 얼마나 원통했으면...》

간호원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었다. 불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까만 기미우에 피방울처럼 맺혔다가 떨어지는것을 지켜보던 상보는 무겁게 고개를 수그리었다.

(그런 영웅분대장인줄 모르고 그앞에서 재세하지 말라고 호통쳤으니... 어리석게도 시한탄을 제거한 일을 코에 걸고서... 그리고도 모욕당한게 분하다고 기관차를 버리고 달아날 생각까지 했으니 얼마나 비열한 일인가.)

상보는 자신에 대한 불만과 환멸로 하여 화염속에 휩싸인듯싶었다.

간호원은 눈물을 씻고 천진하게 물었다.

《분대장동무를 용서해주시겠지요?》

《그건 내가 할 소리요.》하고 서상보는 격한 감정에 싸여 무뚝뚝하게 말하였다.

《돌아가면 분대장동무에게 전해주오. 나도 고지에서 희생된 분대원들 원쑤를 갚는 심정으로 초소를 더 잘 지키겠대구.》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정말... 정말 고마와요. 분대장동무도 기뻐할거예요.》

간호원은 시간이 급한듯 돌아가려고 하였다.

《분대장동무를 잘 치료해주시오. 다시 대오에 설수 있겠지요.》

《...》

분대장의 증상이 어느 정도라는것을 잘 아는 간호원은 대답을 못하고있었다. 그 심정을 읽은 상보는 무겁게 큰 숨을 내그으며 말하였다.

《그런 영웅분대장을 대오에 세우지 못한다면 군의와 간호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알겠어요. 분대장동무는 다시 대오에 서게 될거예요.》

간호원은 상보의 열정에 타는 간절한 당부에 이끌리어 이렇게 대답하며 천진하게 웃어보이였다. 그런데 그 미소는 바른 불에 움푹 패이는 보조개와 다르게 원불의 검은 기미로 하여 어디라 없이 근엄해보이였다. 그리하여 서상보가 후날 간호원을 회상할 때 정겨운 모습과 엄숙한 모습이 눈앞에 엇갈리곤하였다. 그런 특징적인 인상으로 해서 더더욱 잊을수 없었던지 30년세월이 흐른뒤에도 서상보는 틀머리를 엮고 귀밑머리 희여진, 로색이 완전히 비긴 점잖은 부인의 모습에서도 전화의 그날에 만났던 애 어린 간호원의 자취를 알아볼수 있었던것이다...

그것은 첫째와 둘째딸을 현역군인과 제대군인한테 시집보낸 서상보가 셋째딸 창순의 대상자를 고르던 때였다. 전쟁때 무명의 영웅분대장에게서

받은 사랑과 증오의 피 어린 정신이 량심의 거울속에 비쳐있어 창순이도 군인에게 주려고 생각했지만 미처 그런 사위를 고를 사이가 없었다.

방직공장에서 작업반장을 하는 창순이가 휴가를 받고 집에 오자 사처에서 훌륭한 혼처가 나타나서 저마끔 요구해나섰다. 딸자식을 많이 둔 집의 딸들이 자립성이 감하고 똑똑하다고들 한다. 그 말과 같이 상보의 딸 여섯자매가 한결같이 어무쳤지만 그중에서도 셋째는 씻은 팔알같았던것이다.

여기저기에서 탐내는 대상자들이 자주 나졌다.

하루는 서상보가 기관차대의 일을 끝내고 퇴근해오니 안해가 꾸념하였다.

《여보, 빨리 골라잡아야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별의별데서 다 오겠어요. 오늘은 글썽 불구자까지 소개해오니...》

《그건 무슨 소리요?》

《글썽, 영예군인공장에서 사람이 오지 않았겠어요. 내놓고 거절하기 뭇해서 좋은 말로 돌려보내긴 했지만...》

《영예군인이 어떻대구... 그런 소린 하지 마오. 창순이한테 다 말겨놓소.》

《에그- 우리가 점찍어주어야지. 그랜 반장노릇하면서 눈코뜰새 없었던지 선을 불념도 않고 그저 집일만 해요.》

《그럼 애인이라도 있는게지...》

《물어보았어요. 없대요.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정해주는데면 된다면서... 다 우리에게 맡겨요.》

(아무렴 부모를 믿고 하면 등탈이 없지. 착실한 창순에게 나무랄데 없는 대상을 골라줘야겠다.)

서상보는 이렇게 속다짐하고 다음날엔 제기해온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여볼 작정을 하고 일찌감치 퇴근길에 올랐다. 역구내의 화물창고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중년나이를 넘긴 녀인이 화물지도원을 붙잡고 통사정을 하고있었다.

《...원료가 못가면 분기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해요. 꽃을 계속 피워나갈 한마음으로 생활하는 영예군인들은 가슴을 칠거예요.》

간절한 목소리에 이끌려 상보는 녀인을 바라보다가 얼굴에 유표하게 박힌 기미를 알아보고 우뚝걸음을 멈추었다. 녀인은 그런줄도 모르고 그냥 화물지도원을 붙잡고 애원하는데 입가에 그리미소가 원불의 기미로 하여 오히려 엄격한 빛으로 이그러지고있었다. 그것을 눈여겨보던 상보는 저도 모르게 녀인앞으로 다가섰다.

《저... 미안하지만... 전쟁때 군대에서 간호원으로 복무하지 않았습니까?》

녀인은 상보의 철도복차림을 유심히 살피며 혹시 도움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연미연한 빛으로 되물었다.

《전선부대군의소에서 간호원으로 복무한적이

있어요. 뉘신지?》

《아- 영웅분대장을 후송했던 간호원동무가 맞군요. 나는 기관조사로 그 렐차를 끌었습니다.》

영웅분대장이라고 부른 후송환자가 회상의 실마리를 토티주어 너인도 서상보를 알아보고 그때의 청춘으로 돌아간듯 주름잡힌 얼굴을 환히 빛내었다. 둘이는 서로 손을 맞잡고 잠시 어쩔 줄 몰랐다. 그러다가 상보가 먼저 분대장에 대해서 물었다. 후송되어가서 어떻게 되었는데, 옛간호원의 대답은 치명적이었다. 얼굴에 당한 화상은 원상에 가깝게 치료되었지만 한다리는 끝내 잘랐다니... 그렇게도 전투대오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생떼질이었는데... 상보가 서운해하는것을 보고 너인은 말하였다.

《군사복무는 불가능했지만 우리 혁명대오에선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전쟁이 끝나자 영예군인전문학교를 졸업했어요. 지금은 영예군인공장에서 지배인으로 사업한답니다.》

《그랬으면 됐습니다.》

상보는 안도의 숨을 내구고 어떻게 분대장의 그후 생활을 것처럼 잘알게 되었는데 물었다. 그러자 너인은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하였다.

《그인 저의 세대주랍니다.》

상보는 너무 뜻밖이어서 너인의 얼굴에서 놀란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너인은 말을 이었다

《그때 조사동무는 저에게 당부하지 않았어요. 분대장을 꼭 대오에 다시 서게 하라고, 그러자면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겠기에... 우린 부부가 되었지요.》

상보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면서도 그 단순하고도 명백한 리치가 더 크게 가슴을 흔들어주어 아무 말도 입밖에 낼수 없었다. 손락에 넘친 분대장의 투정질에 눈물만 짓던 이 녀자가 만신창이된 분대장을 회복시키고 한개 공장의 지배인으로 내세우자니 그 수고가 오죽했겠는가.

이윽고 상보는 말하였다.

《정말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너인은 뜻밖이란듯이 상보를 얼핏 쳐다보다가 자기는 다리 없는 남편을 섬겨오면서 아직 한 번도 그것을 고생으로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하였다.

상보가 의문을 풀지 못하자 너인은 정색한 낯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천리마대고조시기, 한 영예군인공장을 찾아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공장에서 기술혁신을 하여 생산을 2배로 늘이고있는것을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말씀하시었다.

《전선에서 피흘리며 싸운 동무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앞장서서 계속꽃을 피우고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소.》

그날 수령님께서 공장을 돌아보시다가 너인

들이 영예군인 남편들과 함께 기대를 잡고있는것을 보시고 그들이 몸이 불편한 남편들을 도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것도 일일이 료해하시고나서 크나큰 믿음을 표시하여주시었다.

《나는 조국을 위해 피흘린 영예군인동무들이 불편한 몸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그 안해들을 만나보니 이제 마음을 놓게 되었소. 나의 근심을 녀성동무들이 덜어주었소.》 그러시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는 녀성들을 앞자리에 세워주시었다.

녀성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었다. 그러자 울면 안된다고 하시며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의 결혼식에도 와보지 못했는데 밝게 웃는 잘된 사진을 가지고가서 보아야 내 마음도 즐겁지 않겠소.》

친정아버이의 심정으로 헤아려주시는 수령님의 하해와도 같은 사랑에 너인들은 흐르는 눈물을 걸잡지 못하였다. 그날 사진을 세번이나 다시 찍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어요.》

수령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방안에 모시는 날이었어요. 제가 행복에 넘쳐 눈굽을 훔치자 주인도 갈린 목소리로 이러지 않겠어요. <전쟁때 미국놈들을 마저 쫓아내지 못하고 전선에서 돌아온 것이 평생의 한이었는데 수령님께서 임무를 다하지 못한 이 못난 자식을 탓할 대신 불편하게 지낼가봐 잠을 못드셨다니... 어보, 우리 일을 더 잘하여 수령님께서 마음을 놓으시도록 합시다.》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된 저는 공장진료소에서 준의로 일하던것을 그만두고 공장의 인수원이 되었어요. 남편의 사업을 직접 돕고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이야기를 마친 너인의 얼굴에는 남다른 긍지가 넘쳐있었다. 그것이 어떻게든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지 웃을 때에도 근엄해보이던 원불의 기미까지도 검은 광채를 띠고 진주처럼 반짝이였다.

상보는 크나큰 감동에 싸여 너인의 행복에 넘친 얼굴을 황홀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자기자신으로 돌아오면서 무겁게 눈길을 떨구었다. 그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목소리가 한숨처럼 새어나왔다. 그것은 너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속에 후광처럼 비쳐드는 딸 창순의 혼처를 바로 정하게 된데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시였다. 그러나 그 감사의 정에는 기쁨과 피로움이 이중으로 굴절되어있었다.

(제기된 여러 혼처들중에서 영예군인을 뒤전에 밀어놓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런 피로운 생각이 비껴들 때면 전화의 날 분대장을 후송해오면서 받은 모욕감을 누를수 없어 철도일을 쥐여던질 막다른 생각까지 했다가 간호

원에게서 분대장의 영웅적인 투쟁이야기를 듣고 서야 마음을 다잡을수 있었던 일이 되살아올랐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때처럼 그전날의 간호원에서 생활의 궤도를 바로잡히우고있다는 생각이 새삼스러워지는것이였다. 그런데 전화의 그날에는 분대장을 동정하여 눈물만 앞세우던 간호원이였지만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지배인으로 된 분대장과 인수원으로 사업하는 자기자신에 대해 얼마나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인가. 거기에는 3년을 바쳐 창조해온 자기 행복에 대한, 그 무엇으로써도 바꿀수 없는 긍지가 높이 울리고있는것이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든 가슴을 크게 뒤흔들어주었던지 그날 상보는 너인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자 안해와 딸을 앞에 앉혀놓고 말하였다.

《나는 헛살아왔어. 우리 수령님께서와 당에서 제일 아끼는 영예군인을 젖혀놓고 헛판 생각을 하였으니...》

상보는 긴숨을 내긋고 오늘 만난 너자인수원에 대해 이야기하고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창순의 행복을 마련하는것도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기쁨을 드리는데서 찾읍시다. 그래서 나는 영예군인을 사위로 맞아들이려고 하요.》

안해는 남편의 얼굴에 비친 엄숙한 빛에 기가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창순이만 애처롭게 지켜보고있었다. 그런데 창순은 고개를 다소곳이 수 그리고 침묵만 지키지 않는가. 찬성인가? 반대인가? 부모는 자식의 몸을 낳지만 마음은 못낳지 않는다. 상보의 마음속에 불안한 그늘이 스칠 때 창순이 고개를 반쯤 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버지,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만해도 다행이였다. 상보는 안도의 숨을 조용히 내쉬고 말했다.

《알겠다. 이런 일은 강요해서 되는것도 아니니 며칠이 걸려도 좋다. 깊이 잘 생각해서 걱정하여라.》

상보는 딸의 확답을 받자면 2~3일은 걸리리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쉬울수 있겠는가.

그러나 창순의 일은 전혀 예상밖으로 번져갔다.

이튿날, 점심시간에 집에 돌아온 상보는 안해한테서 창순이가 영예군인공장에 갔다는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다. 총각이 선보려 와야지 처녀가 찾아다니는다는게 무슨 소린가? 상보는 화를 냈다. 그러자 안해는 실췌해서 항변하는것이였다.

《그럼 당신은 청혼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도 안보고 그저 영예군인이면 된다는거예요? 하두답답하니 창순이도 그곳 당조직에랑 들러서 알아보려고 갔겠지요. 너무 외고집만 부리지 마세요.》

듣고보니 일은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응당 부모가 해줘야 할일을 못해줬으니... 오죽 답답하면 그애가 그랬겠는가? 상보는 자신을 뉘우치며 오늘은 일찌기 돌아와서 상대자를 더 잘 알아볼작정을 했다.

저녁무렵, 상보가 집에 돌아오니 안해가 사립문가에서 기다리고 서있었다.

《여보, 왔어요. 왔다니까...》

《누가 왔다는거요.》

상보는 수선을 떠는 안해를 지켜보았다.

《사위감이 왔어요. 창순이가 데리고왔군요.》

《?!》

상보는 영문을 알수 없어 흥분에 뜬 안해의 얼굴을 얼없이 지켜보기만 하였다.

《다리가 하나 없긴 해두 사람이 어찌도 잘나고 속이 튼튼는지... 군사분계선을 넘어 기여든 놈들과 싸우다 다리를 잃었다누만요. ... 글썽 창순이가 그 사람이 불편한 몸으로 우리 집에 들어서기 거북해할가봐 부축해왔군요. 어서 들어가서 사위 될사람의 큰절을 받으세요.》

상보는 안해한테 등을 떠밀리우며 집안에 들어섰다.

흰칠한 이마와 질은 눈섭아래에서 부리부리한 눈이 번쩍 빛나는 젊은이가 일어나서 절을 하려고 몸을 일으켰다. 허나 의족한 다리가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한쪽으로 기우뚱 쏠리였다. 그러자 곁에 앉았던 창순이가 재빨리 일어서면서 부축해주었다. 그것을 스쳐본 상보는 얼른 다가서서 그의 손을 잡으며 현현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절은 무슨 절...》

창순은 곁에서 조용히 웃음을 머금고있었다.

상보는 그런 딸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큰 공장에 가서 작업반장을 한 애가 다르긴 다르구나.)

창순은 강창국과 결혼하자 방직공장에서 영예군인공장으로 적을 옮기고 남편의 곁에서 기대를 잡았다. 기대청소며 소재를 갖춰주는 일이며 남편의 불편한 일손을 도와주면서 천을 짜던 알뜰한 솜씨로 연마작업을 하였다.

창순의 그런 진취적이고도 세심한 행동은 손아래 동생 창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섯자매중에서 제일 활발하고 정의감이 강한 창실은 언니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제기된 여러 청혼자들을 다 밀어버리고 영예군인을 배우자로 정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있었다. 그것을 아는 상보는 창실에게 이렇게 당부했었다.

《창순인 공장에서도 가정에서 몸이 불편한 남편을 돕느라고 일손이 바쁠게다. 직장에서도 가까운 네가 잘 도와주어라.》



창실은 그 말을 명심하고 직장일이 끝나면 언니네 집에 달려가서 빨래도 해주고 동자일손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세로비서인 언니의 남편 강창국한테는 명절날은 물론 보통날에도 영예군인들이 자주 찾아오곤하였던 것이다.

창실이가 보고와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강창국은 작업반의 기술혁신문제를 토론하기도 하고 오락회를 벌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초소의 전사생활을 그대로 옮겨다놓은듯 영예군인들은 활기와 열정으로 들끓는다고 하였다. 그것을 그려보이는 창실의 얼굴에도 생기가 넘치는것을 보고 상보는 흐뭇한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신절살림에 웃음이 넘친다니 꽃은 활짝 피어나겠지. 아무렴, 나라에 피를 바친 영예군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1년이 지나자 그렇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던 창실이가 웬일인지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혹시 창순이네 부부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닐까?

하루는 금급증을 이기지 못해 상보는 창실에게 물었다.

《너 요즘 창순이네한테 들려보느냐?》 ,

《예, 들려군해요.》

《그래, 다른 일은 없더냐?》

《요즘 언닌 산전휴가를 받았어요. 아저씨 산원에 입원하라고 하고 언닌 시어머니만 모셔오면 된다고 하면서 다름질을 해요.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는 시어머니가 곁에 있으면 순산할거라고 하면서...》

(허허... 녀자들의 변덕이란... 아이를 낳는데서 까지 제 사랑을 시위해!)

상보는 어처구니없다는듯이 웃고말았다.

그날밤이었다. 일찌기 잠들고 일찌기 깨어나는데 습관된 상보는 얼핏이 든 곳잡에서 깨어나 아래방에서 외손주의 포대기를 짓고있는 안해와 창실이 주고받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어머니, 전번에 제가 말한 임창식이란 사람말이에요.》

《네 언니네 집에 다닌다는 영예군인말이나? 나도 네 언니한테 갔을 때 봤다. 화상을 당했다는, 얼굴이 끔찍하더구나.》

《그 사람이 이번에도 공장에서 창의고안을 했단유만요. 》

《참, 용쿠나. 그런 몸으로 공장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고있으니...》

《그런데 이번의 창의고안만 성공시켜놓으면 그 사람은 제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고향엔 왜?》

《자기와 같은 불구자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는가고 하면서... 차라리 고향에 돌아가서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겠단아봐요.》

《큰 재간을 가진 젊은이가 그런 아픔을 안고있

다니... 바늘실을 꿰어주렴. 눈앞이 흐려와서 바늘귀가 안보이누나.》

안해의 목소리도 젖어있었다.

창실이가 바늘실을 꿰주는듯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문득 침묵을 깨뜨리고 울리는 순박한 목소리.

《제가 그 사람을 도우면 안될가요?》

《돕는다니...》 놀람과 의혹이 뒤섞인 안해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너한테 무슨 기술이 있대구...》

《기술보다 더 소중한 사랑을 바치지요.》

(어쩌면 저리도 천진하게 말할수 있을까?)

상보는 감동보다도 놀라움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러자 안해의 목소리가 사랑이라는 말의 무게와 값을 현실로써 증명하기라도 하듯 성칼스럽게 울리었다.

《이 철없는것아, 제 언니한테 다니면서 고생하는건 보지 못하고... 무슨 소리냐?》

상보는 울컥 의분이 치받쳤다. (딸의 의로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다니. 새빠진 로친!) 그저 마음갈아선 사이문을 밀어젖히고 달려나가 정신이 번쩍 들게 기갈하고싶으나 꼭 참았다. 창실의 마음도 아직은 임창식이라는 영예군인을 동정하는데 머물고있을뿐이다. 동정은 사랑의 출발점으로 될수 있으나 그것이 곧 사랑일수는 없다. 거기에 든든한 뿌리를 내려줘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걸 잘 알아봐야겠어.

이튿날 상보는 우정 틈을 내며 영예군인공장에 가서 사위 강창국을 만나 임창식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창국의 대답은 천만뜻밖이었다. 창실이가 공장에서 떠나가려고 하는것은 다름아닌 창실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임창식은 창국이네 집에 찾아올 때마다 보게되는 창실을 처음에는 그저 활달하고 아름다운 처녀라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언니의 일손을 도와 가든가든하게 돌아가는 창실의 모습에서 남다른 인정미를 느끼게 되었다. 정이 그리운 영예군인의 가슴속에 그것은 이내 짝사랑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심장에 지퍼진 그 사랑의 감정은 커질수록 자기는 불구의 몸이라는 뼈아픈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숙명적인것으로 응축된 그 장벽 앞에서 모대기던 끝에 임창식은 모든것을 단념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줄 어머니의 사랑에 의탁하고 살아갈것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상보는 이런 사연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찢눌해지던지... 워낙 창실을 창국이네 집에 다니게 한것은 언니를 돕도록 하려는 범박한 선의보다도 영예군인을 깊이 이해하고 영예군인들속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하려는 속심에서였다. 그런데 그것이 빗맞은 화살로 흘러와서 이 가슴을 찢를

줄이야. 창실이로 해서 영예군인의 어진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다니...

상보는 아픈 가슴을 누르며 청원하듯 창국에게 말을 건넸다.

《난 자네 일도 이해되지 않네. 창식이란 청년이 그런 막다른 생각을 하도록 내쳐두었는지. 그런 낚시대를 차렸으면 창실한테 알려주어야지. 처제라고 해서 말하기 거북하면 나한테라도 알려줘야 할게 아닌가?》

창국은 장인의 비난이 당연하다고 여긴듯 민망스레 얼굴을 붉히더니 변명투로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로선 어쩔수 없었습니다. 창순이가 저한테 와서 고생하는것만도 이틀데 없는데 아저씨, 아저씨하고 따르는 처제까지... 아버님의 귀한 딸인 창실을 또 영예군인한테 소개하는것은 저의 량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니다.》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었구나!)

상보는 찌를듯이 창국을 쏘아보다가 무겁게 눈길을 떨구었다. 창국이라도 레사롭지 못한 장인의 기색을 차리고 침묵을 지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고 의혹이 비낀 창국의 얼굴을 다시 쳐다볼 때 상보의 눈앞에 불현듯 30년만에 다시 만났던 녀성인수원의 모습이 스쳐지나갔다. 머리속에 비껴든 계시처럼 피곳 떠오른 그 검은 기미의 얼굴이 이상하게도 아픈 마음을 다잡아주어서 상보는 큰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창국이, 불구의 몸이 되었다고 자기를 욕되게 낮추지 말게. 우리 수령님께서 영예군인 자네들을 얼마나 아끼시는가. 혁명대오에 다시 선 영예군인들을 보시면 꽃을 계속 피워가는게 대견스러워서 만시름이 놓인다고 하시구... 곁에서 손발이 되어주는 안해들에 대해서도 수령님자신을 대신하여 영예군인들을 도와주고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시지. 그래서 나는 창순이를 자네결에 세워놓고서 인제야 딸을 둔 부모의 도리를 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네. 내 이런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줄 자네가... 자네의 입에서 그런 배은망덕한 소리가 나올줄이야... 섭섭하네.》

창국은 몸을 떨었다. 이보다 더 모지른 질책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러나 그속엔 불같은 뜨거움이 스며있었다. 그것을 읽는 순간 창국의 시야에서 노여움과 아쉬움이 엇섞인 장인의 얼굴이 뿌옇게 흐려졌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못난놈을 때려 주십시오!》

창국은 깊이 머리를 수그리었다.

분계선초소를 지켜 사자와 같이 용맹했던 용사가 머리를 들지 못하는것을 보자 상보는 공연히 마음이 뻘어져서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을 뱉었다.

《머리를 들게. 잘못을 실천으로 고쳐야지. ...

빨리 임창식의 마음을 안정시키라구. 우리 창실이도 그 청년을 동정하고있으니까... 창실의 동정하는 마음에 사랑의 뿌리가 내리게 자네가 책임지고 그 사람의 앞길도 더 크게 넓혀주라구. 듣자니까 그사람은 재간도 많다는데...》

《알겠습니다. 사실 창식동무는 전문학교를 나온 동무로서 앞으로 기사가 될 꿈을 가지고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해서 시도 곧잘 씁니다.》

《허허, 보배덩이구만.》

상보는 집에 돌아와서 임창식의 자랑을 몹시하여 며칠후에 창국이 데리고왔을 때 안해도 화상을 당하여 볼품없이 된 얼굴엔 개의치 않고 우리집에 앞날의 기사가 들어온다고 반갑게 달려나가 맞이하였다.

임창식을 사위로 맞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서상보에 대한 창국의 존경은 각별해졌다. 장인과 사위라는 인적관념을 초월하여 량심과 의리의 뉴대에서 우리나라의 믿음으로 강국의 가슴속엔 살아오르게 되었다. 상보는 또한 창국을 남달리 믿고 그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해지군하였다. 그러한 믿음과 사랑 속에서 창국은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들고와서 상보에게 털어놓고 방조를 받는것을 하나의 기쁨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2년후에 새로 작업반에 배치되었은 백명학이라는 영예군인이 한 처녀와 선을 보고 거절을 당하자 술을 마시고 와서 분풀이를 해댄 일이 있었다. 그때도 창국은 그 문제를 들고와서 세포비서로서의 립장과 체면을 지키느라고 명학의 앞에서 억눌렀던 분한 심정을 상보앞에서 이렇게 설분하였다.

《그 동무는 저와 같이 다리 하나가 없습니다. 그게 큰 허물이라고, 처녀는 소개한 동무에게 눈을 흘기며 뽀루통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명학동무는 이렇게 모욕당하자고 피를 바치면서 전투명령을 수행했던가 하고 가슴치며 울기까지 했습니다. 전 분한 마음을 이길수 없어 도리어 명학동무를 청원했습니다. 이렇게 술마시고 행패질을 하자고 바친 죄인가고... 영예군인의 명예를 훼손시켜도 분수가 있지 않는가 하고 다 불려했습니다. 그러자 명학동무는 세포비서라고 믿고서왔더니 다 같은놈이 되어버렸다고 욕을 퍼부으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영철 에미(창순)가 쫓아가서 합숙에 눕혀놓았더니 그제 술만 요구하면서 술을 못마시면 자기는 죽어버린다고 하더랍니다.》

이 가슴아픈 이야기가 30년전의 일을 다시 되살려줄줄이야... 상보는 끝날처럼 뇌리에 박혀드는 피로운 상념에 금시 숨이 꺾 막혀지는듯싶었다.

분대장의 투정질이 못마땅스러워서 너무 재제하지 말라고 했던 그때의 자기 말은 얼마나 큰

량심의 대가를 치르었던가. 그때 분대장의 일로 눈물지었던 간호원은 한생을 바쳐 분대장을 혁명대오에 세운 자랑을 안고 수령님앞에도 뿔뿔이 나섰지만 자기는 분대장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자책감으로 하여 이렇게 때아닌 때에도 피로움을 당하고있지 않는가? 상보는 갈마드는 고통을 털어버리듯 머리를 흔들고나서 말을 뱉었다.

《알만하네. 자네가 그 젊은이한테 가슴아픈 말을 한것을 전하려고 온것이 아니라 그의 불행을 가해주자고 나를 찾아왔겠지?》

《아니... 그런것이 아니라...》

창국은 장인이 무엇을 녀두에 두고 하는 말인지 이내 짐작이 가서 변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보는 다 안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젊은이의 불행을 가해주지 못한다면 자네와 나는 편한 마음으로 살수 없지... 좋네. 우리 창록이를 그 젊은이한테 시집보내자구. 창록이도 두 언니를 따를걸세.》

상보의 확신에 넘친 어조에 창국은 공연히 말을 애둘러서 한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듯 얼굴을 붉혔다.

상보가 창록에 대해 이렇게 확답을 앞세운데는 까닭이 있었다. 딸 여섯중에서 창록은 기증 내성적이었다. 가벼운 미소와 침묵으로 긍정과 부정의 의사표시를 할뿐 통 말이 없었다. 그대신 집안의 자질구레한 구석들에는 창록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데가 없었다. 하여 상보부부는 창록을 남달리 기록하게 여기고있었다.

창록의 그런 성미는 그가 다니는 정밀기계공장에서든 사랑을 받았다. 공장에 입직하여 2년만에 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으로 선출되더니 오늘은 모범초급단체위원장으로 시적인 관심을 모아가고있다. 그런 딸이니 이 애비의 심정을 잘 이해해주리라고 믿었던것이다.

그런데 믿는 나무에 쭈미 들었을줄이야...

상보가 백명학에 대해 이야기하였을 때 창록은 고개를 다소곳이 수그리고있다가 말하였다.

《아버지, 전 아직 시집갈 생각은 없어요.》

시집갈 생각을 안하다니... 처녀나이 스물넷이 적은가. 이젠 영예군인한테 안가겠다는 말을 못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

상보는 불쾌감을 이길수 없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난 네가 언니들을 따를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이나?》

《결혼은 생활을 통하여 서로 이해가 깊어질 때 해야 하리라고 생각해요.》 하고 창록은 머뭇거리다가 얼굴을 빨갱게 물들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전 한공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친해진 남동무가 있어요.》

(그랬었구나. 암전한게 돌아앉아 호박씨를 깐다더니...) 상보는 한순간 배신당한것만 같은 서운

한 심정에 싸여있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니 딸을 나무랄 근거는 없었다. 오히려 축복해줘야 할 일이었다. 딸은 다 커서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찾고있지 않는가.

《친한 남동무가 있다면 데리고와서 이 아버지한테 인사를 시켜야지.》

아버지의 누그러진 어조에 창록은 얼굴을 고추빛으로 불태우며 말하였다.

《아직 앞날까지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동무가 저에게 호의를 표시하기에... 저도 그 동무의 사람됨됨에 끌리어서... 앞날을 정하면 제일 적합한 동무라고 생각할뿐이에요.》

《그래,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 동무냐?》

《공무직장에서 초급단체위원장을 해요.》

상보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서로 같은 사로청위원장을 하고있다니 서로 접촉도 잦았을것이고 또 이해도 깊이 할수 있었으리라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허나 앞날을 약속한 사이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딸이 찾아들려는 행복의 궤도를 판데로 돌린다면 부모로서 평생의 원을 살수있는것이다. 더군다나 내가 점지하려는 대상이 불구의 몸인 영예군인일진대...

그러나 이때 상보의 번거로운 생각을 단호히 물리치고 녀성인수원의 모습이 해살처럼 선명히 뇌리에 비껴왔다. 전화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영예군인을 위하여 바쳐온 한생, 혁명대오에 뿔뿔이 내세운 보람과 궁지를 안은 인생길, 거기엔 가장 깨끗한 량심이 보석처럼 빛나지 않던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는 혁명의 길에서 그것을 외면한다면 오늘의 행복도 래일의 행복도 기약할수 없지 않는가!

상보는 이런 생각이 들자 쏘살같이 달려오는 기관차앞에서 전철기를 잡은 때처럼 입안이 바싹 말라드는 긴장과 흥분을 느끼며 말을 뱉었다.

《다섯째야, 나는 네가 공무직장사로청위원장과 장래를 약속하지 않았다니 하는 말이다만... 영예군인의 처지를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생활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깊이 해야 하리라는 네 말은 옳다. 한데 나도 그 젊은이를 깊이 모른다. 영예군인이라는것밖에... 전투임무를 수행하다가 다리를 하나 바쳤다면 다지... 그 젊은이한테서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런데 한 처녀가 선을 보다가 다리 하나가 없다고 거절해버렸으니... 그제 원통하여 그 젊은인 이런 치욕을 당하자고 조국 보위초소에 섰던가 하고 가슴을 친다누나. 두 영예군인 사위를 둔 나한텐 그것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누나. 그래서 나는 그 젊은이결에 너를 세울 생각까지 했던거다. 두 언니를 생각해서라도 기꺼이나서주리라고 믿고서말이다. 그런데 너까지도 이해가 깊지 못한 대상이라고 외면해버린다면... 나라를 위해서 바친 그 영예군인의 피는

영영 흐려지고 말게 아니냐? 그걸 생각하면...》

상보는 숨이 꺾 막혀와서 뒤말을 잊지 못하였다. 세월이 탄 주름살에 비낀 고뇌의 빛이 어떻게든 길어보이는지 딸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눈길을 떨구었다. 그렇게 피로워하는 아버지를 처음 보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나라를 위해 피흘린 영예군인의 운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온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뭉클 치받쳐올랐던것이다. 나라의 한줄기 궤도를 오로지 끝추 달려오기만 한 아버지... 그래서인지 아버지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한치의 헛눈도 팔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늘 가르쳐주던 아버지의 고정한 모습이 눈앞에 확대되지만 하였다. 아버지의 그 뜨거운 량심을 따를수만 있다면... 창록은 다함없는 심정에 싸여 말을 뱉다.

《아버지, 며칠동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 동무를 만나보겠어요.》

《그래준다면야...》

상보는 안도의 숨을 길게 내그었다. 딸의 대답이 막혔던 숨길을 열어주는것만 같았던것이다.

《그럼 창순이네 집에 가있어라. 네 아저씨 창국이가 그 영예군인한테 데려다줄게다.》

창록이가 손가방 하나를 들고 창순이네 집으로 간지 나흘이 지나갔다. 그 나날이 상보에게 있어서 얼마나 길고도 불안했던가. 일이 어떻게 되겠는지... 자기가 바란대로 된다고 해도 부모로선 피로운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처녀가 한 남자에 정을 불일 때엔 열번 재고 스무번 운다는데... 공무직장의 친한 남동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나 않는지... 처음 보는 영예군인앞에서 이 애비를 원망하며 눈물짓지나 않겠는지... 내가 정말 못할것을 한게 아닐가?) 불은 불에 키질격으로 남편의 일처사에 리해성 깊던 안해까지도 이번 일에서만은 딸을 죽이려 한다고 얼굴이 새까매서 바질바질 뿜어댔다.

《나도 영예군인을 사위로 맞는걸 자랑으로 여겨왔어요. 하지만 창록이를 마음나 하고 또 창록이도 싫어하지 않는 사위감을 밀어젖히고 굳이 영예군인을 만나보게 할것까지야. 정말 너무해요. 그러다가 자식의 가슴속에다가 원한을 남겨놓으면 어쩔려구... 그 생각을 하면 겁이 나서 못견디겠어요.》

《방정을 떨지 마오. 창록인 그럴 애가 아니요. 달래 조직에서 사로청위원장으로까지 내세웠겠소!》

안해를 달래느라하고 한 이 말은 상보가 자기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한 말이기도 하였다.

창록은 나흘만에 뜻밖에도 기관차대 정문앞에 나타났다.

(어찌된 일인가?)

퇴근길에 나서던 상보는 너무 레외적인 일이어서 더듬듯 딸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창록은 앓고나기라도 한듯 얼굴이 해쓱하게 이그러졌었다. 그러나 눈만은 명랑하게 생기를 띠고있었다.

《아버지, 기다렸지요?》

《음.》 상보는 머리만 끄덕이였다.

《그 동무는 정말 피차였어요.》 창록은 아버지의 팔을 끼고 걸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창국아저씨가 제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듣지 않아서 제가 찾아가서 만났지요. 하지만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시를 돌리고 뻥뻥하게 대하는지... 두번째 갔을 때엔 말을 좀하더군요. 그런데 모든걸 반대로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불구자로 된것은 중요한 전투임무를 수행하다가 된것이 아니고 시시한 일을 하다가된것이라고, 그래서 지향이나 포부 같은것은 다던져버렸다고 하지요. 책상우에 보던 책을 무드기쌓아놓고서도... 보니까 건축과 관련된 책들이였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지요. 아무 포부도 없다는데 이런 책들은 왜 읽는가고... 그랬더니 그건 휴지로 쓰자고 걸어들인 책이라고 하면서 한권을 집어들고 내앞에서 찢지 않겠어요. 그러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난 그래서 안된다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동문 찢던 안찢던 무슨 상관이나고,씩 사라지라고 소리치더군요. 난 열결에 찢어놓은책을 주어들고 나왔어요. 언니네 집에 돌아가서 보니 그 책은 군무생활을 하면서도 간수했던것이 틀림없었어요. 나를 쫓아내려고 애지중지하던 책까지 찢다니... 한 처녀한테서 거절당한것이 얼마나 원통하게 사무쳤으면 이렇가, 그 생각을 하니 나의 가슴도 찢기는것만 같았어요. 불이고 다려서 새 책같이 만들어가지고 이튿날 또 갔더니... 글썄, 이번에는 의족을 풀어 방 한옆에 보란듯이 세워놓지 않았겠어요. 창국아저씨의 의족을 본 일이 없었다면 난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고 말았을거예요. 그것을 보자 막 분해지더군요. 사람을 뭇로알고 이다지도 그럴가, 나는 그 의족을 주어들고 그의 가슴에 꼭 안기면서 말했어요. 사람을 놀래우는데 쓰라고 인민들이 만든건가고...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래서 쳐다보더군요. 나는 쏘아주었어요. <나는 동무가 이런 줄장부인줄 몰랐어요. 한 녀성한테서 채웠다고 모든 조선녀성이 다 그런줄알아요? 동무를 낳은 어머니도 조선녀성이라는걸 잊었어요?>이렇게 말해놓고 너무도 기가 막혀난 그만 울어버렸어요. 왜 울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눈물이 난다. 너는 정말...》

상보는 손수건을 꺼내여 눈굽을 훔치며 마음속으로 외웠다. 《장하다, 내 딸아.》

《그런데도 그 동무가 어쩔줄 아세요.》

창옥은 아버지의 팔을 꼭 끼여잡으며 말을 이었다.

《저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나 이 병신을 부

모가 허락해주겠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서버리지 않겠어요.》

《...》

《어떻게 해서라도 설복해서 래일 제가 데리고 오겠어요.》

《래일까지 기다릴게 있니? 이 길로 가보자.》

상보는 성큼 발걸을 돌려세웠다. 웬일인지 기쁨보다도 아프고도 쓰라린 감정이 앞서기만 하였다.

(어쩌면 그렇게 못미더워한단 말인가?)

가슴 밑에서 지그시 치밀어오르는 이름할수 없는 감정에 실리어 상보는 딸이 안내하는 영예군인합숙의 한밤에 발걸을 들여놓았다.

한 청년이 기타를 안고 창문가의 책상 밑에 앉아있다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자네가 백명학인가? 난 창록의 아버지세.)

상보는 딸의 소개를 받지 않고 이렇게 먼저 말을 걸었다.

청년은 창황중에 기우뚱 한쪽으로 쏠리는 몸을 가까스로 바로잡으며 불쑥 일어섰다. 그 서슬에 흰칠한 이마에서 곱슬머리가 유난스레 물결쳤다,

(보기 드문 미남이군. 저렇게 잘난 청년이 오죽하면 투정질을 해댔을까? 그때의 분대장처럼...)

불현듯 눈앞의 영예군인이 전화의 날 유개화차 안에서 만났던 분대장의 모습으로 엇바뀌어보이였다. 그러자 자기의 서투른 행동을 빌지 못하고 분대장과 헤어진, 평생 가슴아팠던 후회가 물밀듯이 휩쓸어들었다. 그 순간 상보의 입에서는 저 으기 떨리는 목소리가 엄숙한 음조를 띠고 튀어나왔다.

《내 소원은 영예군인을 사위로 삼는거네. 그래서 창록이를 보냈는데... 자네 투정질이 많다니... 우리 창록이한테서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

《아니, 그런게 아닙니다.》

명학은 어쩔바를 몰라 상보와 창록의 얼굴을 번갈아보면서 허둥거리었다.

《그럼 창록이가 싫진 않단말이지...》

《저한텐 과남합니다. 그래서 물려서도록 하려고 우정...》

《허허허... 그런 투정질이라면 실컷 하게. 사랑 싸움이야 뭐라나!》

《아버님, 어쩌면 아버님은...》

명학은 무너지듯 다가와서 기관차와도 같이 억센 상보의 가슴에 온몸을 던지며 목놓아 물었다.

상보는 젊은 영예군인의 어깨를 짊 부둥켜안고 곱슬머리를 쓰다듬으며 역시 목메인 소리로 말했다.

《자네들을 축복하네. 우리 수령님께서 영예군인부부를 얼마나 아껴주시는가... 영원히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라구.》

《아버지.》

창록이도 아버지의 곁에 다가서면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었다.

...명학이와 창록의 결혼식에는 영예군인들과 창록이네 공장의 노동자들, 인민반원들... 많은 손님들이 모여왔다. 축배잔들이 오가고 초소에서 부른 노래들이 즐겁게 뒤설레일 때 한 청년이 넘치도록 부은 잔을 들고 상보한테 와서 공장청년들을 대표하여 신부의 아버지를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상보는 그가 다름아닌 창록에게 마음두었던 공무원직장의 사로청위원장임을 알아차리고

《자네들을 훌륭히 키워온 우리 당을 위하여 마시겠네.》 이렇게 진정에 넘쳐 말하고 잔을 다 비웠다.

창록의 결혼식까지 치르고나자 직장에선 물론 동리에서는 상보네 집을 《영예군인의 집》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 류다른 칭호에 마음이 누긋해진 안해는 세 딸네 집에서 연방 태어나는 외손자들에 대한 자랑으로 입에 침 마를 사이가 없었다. 그러더니 그 자랑과 행복을 고스란히 간직할 욕심이났었던지 막당딸 창화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엔 제가 나서서 우기였다. 창화는 언니들처럼 다른 직장에 있다가 영예군인공장에 옮기느라 하지 말고 아예 영예군인공장에 취직시키자고.

그렇게 하여 수년이 지나서 창화가 신통히도 오누이와도 같은 대상자, 농호를 데리고와서 인사시켰을 때엔 이제야 시름을 놓았다고 눈굽을 꺾꺾 찍었다.

그것을 본 상보는 위로하듯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당신이 수고했소.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이의 잔치를 성의껏 잘해줍시다.》

이 말속에는 안해에 대한 남편의 고마운 정이 스며있었다. 한때 남편의 깊은 속을 이해하지 못하여 가정의 수레바퀴에 삐걱거리는 잡음을 더해준적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어떻든 생활의 온갖 잔근심과 부담을 다스리게 이겨온 안해였던것이다.

남편의 당부대로 안해는 막내이의 결혼식을 성의껏 차리느라고 하였지만 공장의 영예군인들의 《간섭》으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영예군인들은 농호와 창화의 결혼식을 자기들의 경사로 여기며 물심량면의 방조를 아끼지 않았다. 하여 주객이 전도되어 영예군인공장이 주인처럼 되어가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위가 복무했던 구분대지휘관들에게 알려지자 이번에는 또 자기네 군부대가 해야할 결혼식이라고 가로말아나서게 될줄이야... 너무도 놀랍게 번져가는 막당딸의 결혼식이어서 상보는 어리둥절해지기만 하였다. 가슴에 받아안은 충격이 크면 그것과 관련되는 지난날들도 새삼스러워지게 마련인지... 상보가 그러보는 지난날에 대한 회억들도 류달리 선명리 색채를 띠고 되살아오르기만 하지 않는가. 기관차를 타고 달릴 때 가느다란 두줄기 궤도가 점점 확대되어 눈앞으로 다가오는것과도 같이... 그러나 그 모든

추억의 갈피들엔 후회를 동반하는 가슴아픈 구석들이 남아있지않는가. 그것은 어쩔수 없이 끌리게 되는 인력과도 같이 오늘도 자신을 채찍질하여주고있다. 그리고 보면 상보, 자기의 60평생은 남보다 류달리 빼어난것도 없으며 가책속에 랑심을 지켜가려고 모대긴것밖에 없는것이다...

《우리 부대다!》

회억과 엇갈리는 상보의 상념은 기쁨에 넘쳐 웨치는 농호의 환성으로 하여 중단되었다.

바라보니 길 양옆에 군인들이 끝간데없이 줄지어서있지 않는가!

《형님, 무슨 대렬일가요?》

《환영대렬 같애. 꽃다발이랑 들고있는걸 보면...》

《우릴 맞느라고 그러지 않을가요?》

《그런것 같애. 이것 참!》

사위들이 주고받는 말이 진실임을 확인해주듯 멈춰선 버스에서 내리자 우렁찬 박수갈채속에 대좌의 령장을 단 련대장이 상보일가를 맞아주었다.

《수고로이 오셨습니다. 우리 군부대장병들은 서상보아버님일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련대장의 인사말이 끝나기 바쁘게 군악대의 경쾌한 환영곡이 울리고 전사들이 달려나와 꽃다발을 안겨주고 꽃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손길을 이끌었다. 앞길에는 오색종이테프가 물결처럼 설레이고 머리우에서는 꽃보라가 흩날리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린 힘이 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들고나와 함께 안겨주는 감사에 젖은 목소리들, 손이라도 잡아보자고 내미는 뜨겁고도 익센 손길들... 갈수록 더해지는 세찬 환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워 상보부부는 넋을 잃고말았다. 영예군인남편들을 부축하여 꼭 끼여잡고 걷는 딸들의 얼굴도 행복의 웃음발로 빛났다.

(응당 할일을 한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야!)

상보는 자꾸만 뜨거운것이 목구멍을 지지여 환영의 물결에 답례하는것도 잊어버렸다. 애오라지 몸과 마음이 그대로 화염속에 휩싸여진듯싶기만 하였다. 그리하여 언제 어떻게 환영의 물결속을 다 지나왔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문득 《결혼식장》이라고 크게 써붙인 농촌마을의 선전실이 눈앞을 막아나섰다. 그러자 시종 느슨한 미소를 짓고 안내해오던 련대장이 먼저 발을 멈추었다. 모두가 줄레줄레 따라 멈춰서자 그는 정색한 빛으로 말을 뱉었다.

《우리는 이틀전에 우리 군부대출신의 영예군인의 결혼식을 부대에서 하겠다는것을 상급에 보고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된가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서상보아버님이 세 딸을 영예군인에게 시집보내고 이번에 막남딸까지 영예군인에게 시집보내려고 한다는것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네딸을 영예군인에게 시집보낸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 로동당시대에 꽃피어난 아름다운 소행이라고 하시며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소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주도록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습니다...》

련대장이 무슨 말인가 더 하였지만 상보는 가슴을 쿵 울리는 걱정애 사로잡혀 가려듣지 못했다.

《여보,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안해는 너무도 놀라운 일에 폴썩 주저앉아 손으로 상보의 아래도리를 쓸어만지기만하고 사위들과 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상혈된 얼굴에 맑은 이슬을 하염없이 떨구고있었다.

상보는 목이 짝 막혀오르며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그럴 때 걱정으로 혼동된 머리속으로 한가지 생각이 섬광처럼 비껴들었다.

(이 영광의 자리를 간호원출신의 녀성인수원과 그의 남편 영웅분대장이 함께 서준다면 얼마나 좋을가!)

서상보는 이 시각처럼 그들이 간절하게 그러기기는 처음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정신과 숨결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다심한 보살핌속에서 오늘로 이어져 더욱 활짝 꽃피고있다는 가슴후더운 생각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상보가 전쟁때의 준엄한 체험을 거쳐 오늘까지 랑심과 의리를 지킬수 있는것도 주체교육을 받은 딸들이 아버지 마음을 리해하고 조국을 위해 피흘린 전사들의 손과 발이 되어 꽃을 계속 피워나가는것도 로동당시대의 인간이 지닐수있는 가장 큰 행복으로 여김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과 혈연적으로 련결시키고 찬양과 감사를 아끼지 않는 전사들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운것이었던가. 상보의 몸과 마음을 화염속처럼 달구어주던 폭풍같은 환영의 물결... 그열정과 기백은 그대로 전투임무수행에서 발휘되어 만약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린다면 전쟁때의 그 영웅분대장처럼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여 조국의 존로를 끝까지 지켜낼것이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의 손길에서 이루어진 오늘과 래일이 아닌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상보는 결혼식장정면에 모셔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경건히 우러렸다.

잠시후 그는 사위들과 딸을 옆에 가지런히 세우고 그이께 최대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 깊이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 나의 행복

최정용

때없이 나는  
내 심장의 말을 듣습니다  
축복받은 생을 두고  
받아안은 행복을 두고

그러면 떠오릅니다  
물결위에 어리는 별무리처럼  
기쁨으로 수놓아진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

행복, 행복!  
나는 모릅니다  
이것이 행복인가 생각할 때  
또다시 안겨지는 우리 당의 사랑  
그 품에 안겨 내 살기에  
누리는 행복의 끝 나는 모릅니다

내 어이 잊겠습니까  
걸어갈 하루길  
가고갈 한생의 먼먼길까지  
나 먼저 다 걸어보고  
한자국도 헛디딜세라  
일깨워주고 손잡아주는 그 은정

내 자식의 학교길과  
내 어머니의 생일도  
나먼저 헤아려 위해주는 우리 당입니다  
웃고있는 얼굴에서도  
가슴속 작은 그늘을 느껴안은 우리 당입니다

부르며 따르고  
따르며 부를수록  
더더욱 안기고싶은 품  
이제는 나에게 버릇되었습니다  
언제나 먼저 그 품에  
기쁨을 말하고 피로움을 터놓는것이

아,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  
그 품에 안겨있으면  
내 만시름 잊고 잠들수 있습니다

천만대적과 마주선대도  
내 두려울것 없습니다

우리 당과 함께 있다는것  
그것은  
주체의 념을 지니고  
세계의 주인으로 내 서있다는것  
동트는 하늘같이  
광명한 미래가 나에게 있고  
영생하는 삶을 누릴수 있다는것

그렇습니다  
내 바라는것  
황금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당과 함께 있으면  
나에겐 더 바랄것 없습니다

진정 나에겐 행복입니다  
피줄을 이어놓고  
숨결을 이어놓고  
우리 당과 함께 있는것이

마디마디 사랑에 젖어있는  
그 음성 늘 가까이에서 들으며  
그 뜻 내 가슴에 새겨안고  
내 심장 고동치는것  
그것이 행복중의 행복입니다

우리 당이 없는 세상이야  
있어 무엇하겠습니까  
지구가 백번 뒤집힌대도  
결코 흔들지 못합니다  
뿌리깊은 이 행복 이 운명을

아, 자나깨나 간절한 생각  
내 삶이 천년으로 길어진다면  
그 천년을 따라살 우리 당입니다  
내 삶이 만년으로 이어진다면  
그 만년을 받들고싶은 우리 당입니다

## 도래섬

동희

얼굴 한번 붉힌적없던 원희네 집에서 언쟁이 있는 그날 방안엔 밤늦도록 불이 켜있었다.

그것은 남편이 또다시 이사말을 비친때 때문이다.

이 마을에 정을 붙인지 6년, 이젠 여기에 눌러 살차비인가부다 했더니 뜻밖에 또 떠나자고 한다. 벌써 다섯번째다.

원희는 그만 자제력을 잃고 남편앞에서 참고있던 속을 터쳐놓았다.

원희의 남편 한류성은 농업 위원회품종비교시험사업을 하는 시험원이다.

아마 품종비교시험이라는 명칭과 시험원이라는 직종에 대해선 그 이름조차 처음 듣는 사람이 더 많을게다. 국가품종비교위원회란 말그대로 각이한 품종들을 여러지역에서 조사시험한 끝에 우수한 품종들을 국가적으로 등록하는 부서이다. 《국가》나 《등록》이니 하는 요란한 말과 달리 이 일은 평양의 지령실과 멀리 떨어진 농촌마을에 있는 시험원들에 의해 진행된다. 시험지점들은 읍거리에서 30~40리 심한 경우엔 해종일 뺄스를 타야 하는 그런곳도 있다.

그러나 시험원들을 구석진 골안의 보잘것 없는 존재로 생각했다간 큰 오산이다. 시험원들은 전국의 술한 품종을 손금처럼 감별하는 《지혜논》을 가지고있을뿐더러 커다란 《보배손》을 가지고 있다. 육종가들이 제아무리 한생의 노력을 기울인 탐구의 열매라고 해도 그들의 《지혜논》에 의해 감별되고 《보배손》을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도장은 찍혀지지 못한다. 한다하는 육종가들이 시험원들의 3년간 시험사업에 가슴을 조이는것이 결코 우연한일이 아니다. 그들이 누르는 합격도장이 어마어마해서만이 아니라 한생동안 술한 품종을 흠주무르듯하는 그들의 분석기술에 걸려들가봐서였다. 원희는 류성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외진 촌구석에서 한생을 보내는 시험원들이 있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그 외로움을 이겨낼까? 도대체 무슨멋으로 살까?) 하고...

그런데 다름아닌 자기가 시험원인 류성이와 한생을 살아갈줄이야.

20여년의 시험원생활에서 류성은 1급연구사에 책임시험원으로 승급되어 중요지점들에 새로운 품종들이 도입될 때마다 자리를 옮기곤했었다. 기각시키는것만이 아닌 우수한 품종들을 찾아내고 부족점을 퇴치하는것 역시 시험원들의 중요한

사명인것이다. 그 과정에 네번째나 집을 옮기었다.

신혼살림때 있던 첫번째 이사는 멋모르는 속에서 지나갔고 두번째에는 남편을 생각하여 무작정 집을 왔다. 세번째는 토론도 없이 이사집을 꾸리는 남편이 너무 야속하여 눈물이 나왔지만 애써 참았다. 네번째 이사때는 이제야말로 마지막이겠지 하고 한껏 마음을 위안했다. 그런데 이번에 다섯번째 소리가 또 나왔다.

원희는 남편이 아래웃방 다니듯 이사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것이 아니냐 하고 속도 썩었지만 실상 이때까지의 이사는 다 사업상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전히 새 품종인 《교-30호》를 들고 남편이 사서 만들어낸것이다.

《교-30호》는 논벼연구소의 배연수가 육종한 새품종이다. 《교-30호》에 대한 시험을 끝마친 어느날 웬일인지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랭해에 특별히 강한 품종이므로 랭파해가 심한 금평지구에서 재차 시험사업을 할것을 제기합니다.》하고 써놓았다.

한열에서 정리하던 원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이가 또 일감을 만들어내는구나.)

가슴속이 섬찝해지였다. 썩트리 시작한 불안감이 서서히 번져지였다.

원희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설마 남편이 또 이사문제를 꺼내랴 하고.

그런데 그 설마가 일을 칠줄이야.

상급에서는 남편의 제의를 접수하고 그의 요구대로 금평지구로 파견했던것이다.

《성일이 아버지.》원희는 한껏 가슴을 진정하고 나직나직 말을 이어나갔다.

《당신은 이런걸 생각해보았어요? 이젠 우리애들이 다 컸어요. 그애들이 대학갈 때가 됐는데 애들생각도 해야지요.》

《아이들?》

류성이의 눈이 흠뻑지였다.

《그렇지. 우리 딸이가 대학갈 때가 되었지? 둘째 셋째가 련달리구. 내가 그만 그 생각을 못했구만.》

《그것봐요. 당신이야 언제 집안일을 생각해요.》

원희는 눈길을 내려뜨린채 계속했다. 소리는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말마디는 맵찔다.

《허-》남편은 대답 한마디 못하고 김빠진 소리만 냈다. 새가 뜬 현이가 드러나는 그의 입가에



열적은 미소가 비끼었다.

《어이구 참.》

원희도 그만 제물에 웃고말았다. 그만해도 가슴에 응쳤던 분풀이를 다한것 같았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사문제는 쑥 들이밀고. 내가 손을 들지. 그럼 됐지?》

남편은 정말 손까지 들어보이었다.

《어이쿠 벌써 2시나? 이악쟁이인 당신때문에 잠만 밀렸소.》

남편은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며 먼저 일어났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더니 그러고보면 자라도 안나는걸 밤새도록 싱갱이질했다. 원희도 따라 일어서며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방안에는 신선한 밤공기가 한껏 들어왔다.

가슴속이 거뿔해진 원희는 밖으로 나갔다. 뜰 안에는 물바가지가 겨우 들어가는 웅달샘이 있다.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일감을 벌리는 성미인 남편의 극성으로 어데가나 집주변에는 이런 샘이 생기군했다. 이사 다니던중 이번 샘이 제일 작았지만 대신 물맛이 특별히 좋았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샘터에 나가 세수를 하는걸 마다하지 않았다.

한번 샘물에 꿀을 타서 마신후엔 수도물을 쥘혀놓고 마시었다. 샘이 류달리 차서였다. 아마 원희도 그 재미로 이고장을 뜨는걸 한사코 반대하는지도 모른다. 오늘 저녁도 류성은 꿀물을 들이키며 기분 좋게 한마디한다.

《허 참, 그 물맛이란 변함이 없군.》

《그걸 쉬 버리고 뜰 생각이 나요?》

《글쎄 내 졌다니.》

남편은 얼른 밀막아 항복하더니 넌지시 한마디했다.

《여보, 나혼자 가보는건 허락하겠지?》

남편이 물그릇을 내려놓으며 원희를 바라본다.

《아니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이번에도 나혼자 하라구요?》

《아하, 김장때까진 무슨, 인차 갔다 오기만 하면 될걸.》

《그렇다면야 글쎄, 그럼 이번 출장준비는 간단하겠구만요.》

《준비?》 남편이 얼른 원희를 바라보다가 《그럼 간단하구말구. 그저 깨끗한 소금 한봉지나 잊지 말라구.》 하고 당부했다.

원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이제야 남편이 굶어든 모양이다.

아래방으로 내려온 원희는 애들의 잠자리를 돌아보고 양복장문을 열었다. 아무리 간단한 출장길이라고 해도 그 준비를 소홀히 한적 없는 원희다.

속옷이며 세면도구를 갖추던 원희의 눈에 모내의가 미쳐왔다. 쌀쌀해오는 날씨가 못내 걱정이야. 하지만 원희는 살래살래 도리질을 하고 도로 장속에 넣었다. (인차 돌아설 길인걸.) 그러니 결국 제일 간단한 준비로 끝냈다. 했건만 원희는 눈불일 생각을 안했다. 아직 도중식사가 남아있었다.

원희는 잠든 남편이 깰세라 조심조심 부엌으로 내려섰다.

그 다음날 남편은 금평군으로 떠나갔다.

《걱정마오. 시험사업은 주인들에게 맡기고 인차돌아서지. 그동안 애들이나 잘 돌보오.》

남편은 아침출근이나 하는 혼연한 얼굴로 대문밖을 나섰다. 어서 들어가라고 고개짓하던 남편은 동구밖을 벗어나자부터 씨엉씨엉 내쳐걸었다.

끌려가듯 따라가던 원희는 비물이 고인 웅덩이를 밟을번해서야 멈춰섰다. 죽은 하루살이떼가 까맣게 덮인 웅덩이안에서 개구리 한마리가 빠끔히 올려다보고있었다.

원희는 발을 굴러보았다. 웬걸 개구리는 달아날대신 물속에 더 깊숙이 몸뚱이를 잠근다. 우물안의 개구리라더니 바깥세상보다 그 썩어나는 물 웅덩이가 더 좋은 모양이다.

(참 어리석기란.) 다른걸 모르는 개구리니 할수 없다. 실컷 웅덩이안에서 살라지.

원희는 단념하고 고개를 들었다.

남편은 벌써 동네어구에 우뚝 솟은 벼랑코숭이를 돌고있었다. 어쩐지 남편이 입은 회색의 옷이 색이 별로 썰렁해보이었다. 점점 차지는 날씨에 어울리지 않았다. 다른옷을 입혀보낼걸 하는생각에 저도 모르게 몇발자국 따라서던 원희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앞질러 겨울옷을 가져가면 또 그만큼 늦잡을지도 모른다. 객지에 나가 고생을 해보느라 집안 그리움도, 늘 미치는 따뜻한 손길의 귀중함도 더 잘 알게다. 하긴 며칠 있으면 남편의 생일이다. 그새 새옷도 하나 말구었다가 내놓자. 푸짐하게 차려진 생일상앞에 둘러앉을 식구들을 그려보며 원희는 기꺼운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왔다.

×

인차 돌아선다던 남편은 한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새로 지은 밤색 양복은 한달째 주인을 못만나고 옷걸이에 걸려있었다. 이력저력 남편의 생일도 닥쳐왔다. 원희는 행여나 하는생각에 이것저것 찬거리들을 마련했다. 의례히 김장때와 겹치는 생일이여서 양념도 무뎠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기전 열달동안 내내 김치만 자시고싶더라오. 그래서 그런지 나 역시 김치이상 없구만.》

벌건 양념을 버무린 배추잎을 서걱서걱 씹던 남편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생일도 씹쓸히 지나갔다. 오늘은 마당에 가득 널린 김장감을 말아안고 나서니 남편생각이 더 간절했다. 남달리 김치를 좋아하는 남편은 김장때만은 팔을 걷고 나섰다. 배추를 날라온다, 독을 묻는다, 양념맛까지 보며 신경을 썼다. 게다가 물맛좋은 샘물로 담가서인지 원희네 김치는 보기에 먹음직스러울뿐더러 맛도 또한 더할나위없이 훌륭했다.

남편은 상우에 찬이 가득해도 김치하나로만 밥그릇을 비우곤했다.

《여보, 어데가서 대접을 받아도 당신이 담근 김치생각이 나서 숟가락이 잘 올라가지 않더구만.》

《그럼 이번에 떠날 땐 아예 김치단지를 넣고 가세요.》

《그거야 어디.》

남편은 원희의 말에 어이없는듯 웃어버리었다. 그러나 원희는 정말 남편의 출장가방에 김치단지를 넣어준 일이 있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류성인을 맞아들어 가방을 반아든 그곳 주인들은 김치단지를 《보약단지》로 잘못알고 아래목에 정히 간수했었다.

그다음날 각곳의 시험원들이 모인 식탁에서 원희의 김치단지가 큰 화제거리로 된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더운 방에서 지낸 덕분에 김치로서의 특기는 잃어버렸지만 원희숨씨를 다는 덜지 못했다. 모두들 맛나게 축내며 다음번 총화모임때는 김치단지까지 참가시킬것을 결정했었다.

(어디가서 김치나 자시는지.)

원희는 나직이 한숨을 쉬며 시름없이 배추를 다듬었다.

《계십니까?》

문득 대문가에서 주인을 찾는 소리가 들리었다. 낯익은 손님이었다. 체소한 몸매에 어울리는 얇은 입술이 열리며 하얀이가 반짝 드러난다.

《안녕하십니까?》

아예 감겨버린듯한 작은 눈이 인상적이다.

《아니 배선생이구만요. 어서 와요.》

안면있는 배연수를 알아본 원희는 독결에서 물러섰다.

《김장준비구만요. 》

《어서 들어가자요. 점심전이겠는데.》

원희는 배연수를 앞세우며 부엌문을 열었다.

《아니 먹고 왔습니다.》

《그래두요. 》

《아니 정말입니다》

배연수는 마루끝에 가방을 내려놓은채 숨을 들리었다.

《그런데 류성동진 김치잡술 자격이 없군요. 오늘같은 날에도 도와주지 않고 어데 가셨습니까?》  
《우리 성일이 아버지 금형으로 떠났는걸요.》

《예? 언제 말입니까?》

배연수의 작은 눈이 흠뻑지었다.

《이젠 한달도 넘었어요. 인차 오시겠다더니...》

《아주머니에겐 그랬습니까? 저보고는 그리로 아주 떠날 편지를 썼던데요.》

《예? 언제요?》

원희는 너무 뜻밖이어서 손을 싸쥐며 일어섰다.

배연수는 가방에서 보풀이 인 편지를 꺼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교-30호〉는 시험결과상으로 볼 때 합격품종이 못된다. 그러나 박박이 날아가버렸던 올해의 번덕스러운 봄날씨 조건에서 유독 뿌리가 살아남은건 이 품종이었다더군요.》

《예, 그랬어요.》

원희는 배연수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니 이 품종이 수확고가 낮다는 한가지 리유로 기각시켜서야 되겠는가, 이때까지 땀배에 강한 품종이 없었기때문에 더 귀중히 여겨진다는 거죠. 앞으로 금형지구같은 추운고장에서 더 익숙시킬 결심인데 연구사동무와 손을 맞잡고싶다고 썼습니다. 그래 아직은 떠나지 않았겠지 하고 쫓아왔는데 이렇게 늦었군요.》

《?!》

원희는 아연해지었다.

태연히 웃던 남편의 가슴속깊이에 이런 결심이 자리잡고있었을줄이야.

《어쩌면...》

떨리는 입술을 깨무는 순간 심장까지도 파르르 떠는듯했다.

《참 류성동지두, 토론이라도 하고 떠날게지.》

가볍게 혀를 차던 배연수가 원희앞으로 돌아섰다.

《아주머니, 이제 곧장 류성동질 찾아가겠습니다. 사실 품종이란게 그렇지요. 어디 백프로 만족한게 있는가요. 설사 반복시험에 들어간다해도 구태여 류성동지가 집을 떠날 필요가 있는가요. 그러면 또 이사문제가 제기되겠는데 겨울에 김치독을 파가지고 다니겠나요.》

《아이구, 우리 성일이 아버지가 그런걸 다 생각하면야.》

원희는 말도 말라는듯 손을 내저었다.

《그러게 제가 간다는게 아닙니까. 아주머니, 류성동진 내가 대학공부하던 때부터 이끌어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시험자료도 보여주고 경험도

들려주고 제가 하는 실습포전에도 얼마나 오르내리었는지 셀수도 없지요. 정말 류성동진 남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예요. 수고한 류성동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결속이 되어야겠는데 유독 류성동지만은 의견이 있단말입니다.》

《그럼 다른 지구의 시험자료는 우리와 다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말하듯하던 배연수는 당황하여 자기 말을 부정하였다.

《아주머니, 그럼 가겠습니다. 내가 류성동지를 만나 꼭 돌려세우지요.》

배연수가 장담하며 돌아섰다. .

《가만.》

원희는 꿈에서 깨난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새로 지은 밤색옷을 내다가 차곡차곡 꾸리기 시작했다. 《뭘 보내자구요? 그만두십시오. 아 인차 돌아서겠는데요. 글썽 민으라는데요.》

배연수는 벌써 마당가를 벗어나고있다.

《그럼 소금이라도. 》

원희는 허둥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소금단지 뚜껑을 열었다. 인차 되돌아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조그만 봉지로만 보내여 늘 걱정하던 참이다. 남편은 원래 음식을 짜게 먹어서 그런지 소금을 좋아했다. 양치질도 소금으로 했고 피곤할 때면 잊지 않고 함수를 하곤했다.

원희는 눈처럼 하얀 소금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물속에 넣으면 형체도 없이 녹아버리면서도 인간들에게 자기를 다 바치는 소금, 사람들은 때로 이 소금의 귀중함을 망각할 때가 드문하다.

원희는 오늘따라 흰 소금이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자기를 속인 남편에 대한 야속함같은건 이미 뒤전으로 밀려나있었다.

《정말 류성동진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예요.》

방금 배연수가 남기고 간 말이 떠오르며 남편 생각이 가슴속으로 갈마들었다. 줄지에 힘이 빠지며 일손잡을 맥이 없어지였다. 그저 머리속 한가득 남편생각뿐이다. 정말이지 남편은 남을 위해 태어나거나 한것처럼 한생을 살아온다. 자기 역시 처녀시절 남편의 그 정신에 반했었고 거기에 끌려한생을 살고있다. 남편을 처음 알게 되던 그때를 더듬어보는 원희의 입가엔 저도 모르게 행복의 미소가 피어올랐다.

...

읍거리 양복점에서 재단사를 하던 원희는 읍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으로 지원을 나갔었다. 뜻밖에도 그곳은 시험농장이라고 했다. 이름도 처음 듣는 시험농장, 시험원, 게다가 별의별 곡종에 품종들도 다양했다. 그 많은것들을 바로 시험원 훈

자서 지휘한다고 했다. 색날은 농립모를 쓴 늙수그레한 《아바이》가 신기하기만했다.

어떻게든 그 《아바이》를 돕고싶은 의협심까지 생겨난 양복점처녀들은 시키지도 않은 일에 열성을 냈다. 모를 날라오고 이악을 부리며 모를 콧았다. 모두 날랜 재봉공들이라 모꼇는 솜씨도 이만저만이 아니 었다.

《이건 뭐요?!》

귀를 울리는 청높은 목소리에 원희는 와들 놀라 허리를 폈다.

난데없는 후리한 키폴의 젊은이가 서있었다.

영문을 몰랐던 원희는 손에 든 색날은 농립모를 보고서야 그가 바로 시험원 《아바이》임을 알았다. 그 아바이가 이렇게 젊은 미남자일줄이야.

《당장 중지하십시오.》

곱실곱실 넘어간 고수머리밑에서 무섭게 부릅 뜬 눈망울이 번뜩이고있었다.

원희는 다시한번 기겁하여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대번에 시험농장 시험원에 대한 인상이 획 뒤집어지였다.

저쯤 떨어진 모판쪽에선 여전히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났다. 고수머리시험원이 성난줄도 모르고 처녀들이 목소리들을 점점 더 높이었다.

고수머리가 바람이 일게 돌아서더니 달려갔다. 그의 발밑에서 먼지타래가 솟구쳐올랐다.

원희는 가슴을 싸전채 그가 사라진 모판쪽을 바라보기만 했다. 별난 사람의 별난 책망앞에서 왜 따끔한 말 한마디 못했단. 생각해보니 분했지만 이미 눈앞엔 고수머리가 보이지 않았다.

얼마후 원희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었다. 모판에서부터 품종이 온통 석갈려 논판이 범벅판이 됐다는것, 이것이야말로 시험농장에서는 커다란 사건이라는것이다.

(아 그래서 그가 성났었구나.)

원희는 까맣게 질린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사죄해야 좋을까? 아무리 궁리해야 서서히 덮여지는 어둠과 함께 방도는 열리지 않았다.

그 이튿날 원희는 끝내 새벽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깨름직한 일을 놓고는 그대로 넘기지 못하는 짙금한 성미가 그를 일깨세운것이다.

주인집의 자전거를 끌어내어 포전길을 달릴 때까지도 들판은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해뜨기전의 이른새벽이었다. 어떻게든지 해가 퍼지기전에 엉망진창으로 된 논판을 정리할 결심이었다.

재게 발디디개를 돌리던 원희는 아연해지였다. 흰해오는 논배미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였다. 장대한 체구의 사나이였다. 그는 다름아닌 시험원이였다.

《삐익-》자전거제동소리에 시험원도 허리를 폈

다.

그들은 눈길을 마주친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부릅떴던 눈망울이 어떻게 것처럼 선량해질수 있는지 둥그런 그의 눈가에 어린 감사의 표정을 보니 정말 어제의 그 교수머리가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직 들판은 푸름한 새벽안개속에 있는데 논둑엔 뽑아낸 모들이 수두룩이 쌓여있다.

언제 나와서 이 모를 다 뽑아내고 새 모를 쫓았는지 가늠이 안되었다. 밤을 꼬박 새웠을까?

놀라움속에서도 원희는 자꾸만 몸이 굳어지고 눈길이 허둥거려지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랐던 일은 펍 후에야 생겼다.

새벽에 논판으로 자전거를 끌고나왔던 원희의 모습이 화면에 아름답게 옮겨지였던것이다. 그 화면이란 류성이의 습작품 《자전거를 타고 온 처녀》였다.

(원희는 옷감을 주문하러 나왔던 길에 류성이의 그 그림을 우연히 보았다.)

원희는 그림을 보는순간 자기눈을 의심했다.

류성이의 가슴속에 자기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리잡고있다는것도 놀랍지만 흠만 주무르는 것 같은 그의 손끝에 이런 재간이 있을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아이참, 그런 재간이 있으면서 왜 미술가가 되지 않았어요?》

동쪽길을 나란히 걸어오면서 원희는 이렇게 물었다.

《재간이야 뭘, 미술을 전공했다라면 직관원정도나 되겠는지.》

《아니예요. 그림이 아주 훌륭하던데요.》

원희는 자기의 눈과 입모습을 신통히 살린 류성이의 솜씨를 높이 찬양했다.

그래도 류성은 빙글빙글 웃기만했다.

《아이참, 어떻게든 미술공부를 해서 여기를 떠나지 혼자있는 시험원이 얼마나 외로워요.》

원희는 제사 안타까와 미간을 찌프리였다.

《그렇다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한다해도 누구든지 이 일을 해야겠지요?》

《?! 》

《허허, 시험원이 혼자 있다고 힘들기만 한건 아닙니다. 이 손에 의해서 새 종자가 완성되고 새로운 고장들에 퍼져나가고 높은 수확이 이루어질 때의 그 기쁨은 아무나 맛보는게 아닙니다. 맡겨진 그 일에 나의 지혜와 노력, 정열을 다 바치면 그것들도 성실한 내 마음을 다 알아줍니다.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 그 비밀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지요. 1년이고 2년이고, 마침내 새 종자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질 때면 아 내가 그동안 나의 모든것을 성실하게 바치였됐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 순간의 기쁨을 뭐라고 할가? 그 맛에 사는 보람이있다고 할가요? 》

《예-》

원희는 고개를 숙인채 걷기만했다.

(이런 시험원들이 없게 되면 새종자가 가지고 있는 은폐된 우단점은 오랜세월 비밀로 남아있게 되겠지? 아니면 영원히 감춰지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로력랑비가 있게 되랴. 명성을 떨치는 이름난 선수뒤에 능한 지도원이 있다더니 육종가들 뒤에 비로 이런 시험원들이 있기에 새 종자가 완성되됐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거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은가?)

원희는 이때까지 스물다섯해를 살아오면서 순전히 남의 덕으로 살아온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다.

이제부터는 매 끼마다 넘기던 쌀알도 무심히 못볼것 같았다. 우리 사회엔 이런 시험원과 같은 남모르는 직종에서 묵묵히 일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랴. 험한 산속에서, 깊은 바다에서, 외진섬에서...

그도 처음엔 발을 내디디기가 무척 힘들었을게다. 그러나 여기도 조국의 한 초소이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자기 한 몸으로 그자리를 메꿀줄 알았다. 그것이 외롭고 힘들고 또 빛이 안나는줄 알면서도 그는 주춤거리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이 있고 우리 사회가 있는게 아니라.

《여기 시원한 샘이 있는데 물맛을 보시지요.》

류성이의 목소리에 원희는 꿈속에서 깨어나듯 고개를 들었다. 비스듬한 둔덕밑에 정갈한 샘이 있었다. 조약돌이 깔린 샘터엔 노란 쪽박까지 동동 떠있었다.

갈증이 났던 원희는 샘물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한바가지가 모자랐다.

《물맛이 어떻습니까? 》

《어마나, 어떻게 이런 샘터가 다 있을까요?》

《허 샘이야 샘구멍을 찾아 파기만 하면 되는걸요.》

류성은 대수롭지 않는듯 히죽이 웃었다.

《그럼 이 샘을 거기서 팠는가요?》

원희는 새삼스럽게 샘터를 눈여겨보았다. 정성껏 돌을 쌓고 다듬은걸 보니 여간 깐깐하지 않았다.

원희는 기쁜 하루는 짧다는 말을 믿고싶지 않았다. 저런 사람은 야장쟁이가 쇠를 버리듯 일생동안 행복만 버려갈게다. 자기의 손으로, 온 녀력으로...

과연 류성은 그날 원희가 생각했던것처럼 어데

가나 이런 썸터를 찾아냈다. 언제인가 원희가 이 세상에 썸을 찾으러 태어나지 않았는가고 웃으며 묻자 어렸을 때 버릇은 못고치겠군 하며 웃어넘기였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늘 썸에 나가 세수를 하고 뽕수마찰을 하는 버릇을 익히었던 것이다. 온나라에 수도화가 다 된 다음에도 남편은 그 버릇을 떼지 못하고 썸물터를 찾곤했다.

원희는 그런 남편이기에 집결의 썸을 봐서라도 꼭 돌아오리라고 믿었다. 이번에 들어서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남편이 당장 들어설것 같았다. 어찌보면 김장도 같이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 원희는 끝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

한달이 지나고 두달도 지났다. 흰눈이 강산을 덮은 속에서 해가 바뀌었다.

《여보, 오래동안 소식을 알리지 못해 미안하구려.》

이것은 해를 넘기며 류성이가 보내온 편지서두였다. 그동안 잘 있다는 간단한 소식을 보내오더니 이번 편지는 꽤 두툼했다.

《인차 돌아선다고 떠나온 몸이 벌써 해를 넘기는구려. 이렇게 떠나오고보니 당신이 제일 걱정되오. 당신 말마따나 일만 일이라고 한 나를 용서하오. 말이가 대학추천을 받게 됐다면서. 아무튼 어머니 구실에 아버지 뒤편까지 하려니 당신이 힘들었겠소. 여보, 아이들을 데리고 당신이 혼자 수고를 더 해야겠소. 나는 당신이 모든것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소. 여기 일이 훌 넘겨나주고 떠날게 못되어 시험사업을 내가 직접 맡기로 했소. 이 편지를 읽는 당신의 표정이 어떨가?…》

원희는 가슴이 짝 막혀오는듯해서 편지를 더 읽지 못했다.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얼굴 표정까지 그려보았을가? 그날부터 부랴부랴 차비를 끝낸 원희는 남편이 있는곳으로 떠났다. 찬이며 옷가지들, 각두기가 담긴 단지까지 합하니 이고 들고 힘에 부치였지만 마음은 자꾸 앞섰다.

해가 질녘에야 원희는 남편이 있다는 상현리에 들어섰다. 상현리관교장은 첫눈에도 풀안이 깊어 보이였다. 앞쪽으로는 무연한 벌이 펼쳐져있고 마을 복판으로는 파란 띠줄같은 강물이 흘렀다.

떼를 지어가는 학생들에게 물으니 영주천이라고 자랑했다.

영주천-정이 드는 이름이었다. 영주천에 뿌리박은 절벽가엔 저녁노을이 곱게 비끼였다. 노을빛이 어린 벼랑가 꼭대기엔 진록색소나무숲이 우거지고 얼기설기 엉킨 덩굴속에선 겨울잠에서 깨난 노란 개나리가 방긋방긋 꽃잎을 펼쳤다.

숲이 무성한 산밭이 둘러싼 동네에선 어서 올라 반기듯 불빛이 하나둘 늘어났다.

어쩐지 낮선고장에 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친정집에나 온것처럼 마음이 폭 가라앉았다.

원희는 손끝이 짜릿해오는 찬물에 손을 씻었다. 뽕양계 먼지오른 신발까지 닦고보니 정신이 거뜬해지였다. 갑자기 등뒤에서 《뽕》자전거 끄는 소리가 나는바람에 원희는 소스라치듯 비켜섰다.

반백이 훨씬 넘은 늙은이가 자전거에서 내리며 다가왔다. 걸모습과는 달리 꽤 동작이 민첩했다. 하지만 네모진 얼굴엔 피로가 한껏 어리여있었다.

《허 처음보는 손님이다? 뉘집에 오시오?》

똑해보이는 모상과는 달리 각근히 묻는 그의 목소리엔 진정이 어려있었다.

원희는 아버지같은 친근감이 앞서 인사를 했다.

《저-》

《아, 이거 인사가 안됐군. 내 여기 관리위원장 이요.》

《그렇습니까? 저 한류성이라는 이를 아시는지요?》

《아 시험원선생?!》

피로의 기색이 순식간에 달아나고 눈가에 반색이 어린다.

《혹시 안사람되는…》

《예. 》

원희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였다.

《이거 반갑수다.》

호방해보이는 관리위원장은 닝큼 원희의 짐부터 받아들었다. 그는 짐을 자전거 쪼무니에 올려 싣고는 숨쉴있게 끈으로 동이였다.

《그 선생이 수고가 많아요. 농살 돕는다, 시험포전을 꾸린다, 우리 농장에서는 시험포전을 보고 실물전시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선생은 실물전시관관장인 셈이지요. 허허.》

원희도 따라웃었다. 오래간만에 가슴속 시름을 날리며 웃고나니 날아갈듯 마음이 개운해지였다.

남편이 타곳에 와서 이렇게 떠받들리우니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듯했다.

《내 이제 본때를 보이려구 하우다. 앞으로 한 선생 덕분에 큰소리 칠 때가 있겠지요.》

관리위원장이 어깨를 들썩이며 큰소리치였다.

원희의 가슴도 훈훈해지였다.

관리위원장은 종내 원희의 손에 들린 나머지 짐까지 자전거에 올려놓았다. 짐 실은 자전거를 끌고서도 어찌나 잘 걷는지 원희의 이마에 땀이 다 났다.

어느새 깨끗한 문화주택앞에 들어섰다.

《자 이제 한선생집입니다. 안주인 마음에 들어

야겠는데 어떻습니까?)

널찍한 마당안에 먼저 들어선 관리위원장이 뒤를 돌아보았다.

《예? 집이라뇨? 그럼 합숙에 안계세요?》

원희는 저도 모르게 주춤 물러섰다.

《이런?! 그럼 모릅니까? 아니 새집보러 온 길이 아닌가요?》

오히려 관리위원장이 눈이 덩돌해지며 되물었다.

문득 생각키우는게 있어 원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하 그렇게 됐군. 글썄 어쩐지 해를 넘긴다했지.》

《...》

원희는 억울하기만 했다. 어쩌면 남편은 이때까지 이 일을 전하지 않았을가? 내가 그렇게도 못미더워서? 아니면 혼자서 고생을 말아안자고?

원희의 가슴에서는 더운 눈물이 끓어올랐다.

《그 사람이 량반이야요. 좋다 굶다 무슨 말이 있어야지요. 그저 일밖에 모르지요. 아주머니, 내가 관심을 돌려야 할걸 안됐수다.》

관리위원장이 앞으로 다가오며 위로하였다.

《아 아니예요.》

원희는 뿌옇게 흐려진 눈으로 경황없이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울타리를 따라가며 심은 배나무엔 벌써 파란 봄물이 오르고있었다.

《아주머니, 아직은 새집이라서 어설프게 보일테지만 이제 정이 들면 마음에 들거우다. 이집이 터가 좋아요. 집옆엔 도래샘이 있는데 물맛이 여간 아니우다.》

《도래샘이요?》

원희는 거의 웨치다싶이 관리위원장앞으로 돌아섰다. 낮선고장에 와서도 입에 오른 샘소리를 들으니 반갑기 그지없다.

《있어도 아주 좋은 샘이지요.》

관리위원장은 신이 나서 제잡담 앞장섰다. 장작개비가 쌓여진 집옆으로 조금 떨어진곳이 별로 우묵했다. 그것은 직경이 한메터는 실히 될 샘이었다.

《아니?!》

원희는 놀랍고 신기해서 샘터에 마주앉았다.

《하나도 아닌 술한 샘끓이 이렇게 룬을 이루며 빙빙 돌아간대서 도래샘이라고 한단유만요. 하 글썄 이런 좋은 샘을 두고도 이때까지 모르지 않았겠소. 이 샘이 하도 소문이 뜨르르해져서 전문가들이 와서 보더니 글썄 약수성분이 진하다유만요. 그 한선생이 참 보배우다.》

원희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남편은 그 성미대로 여기서도 또 일감을 펼친것이다.

원희는 동동 띄워진 물바가지로 물을 떠냈다. 티하나 없이 정갈한 물이다.

《위원장아바이, 좀 드세요.》

《고맙수다, 주인이 권하는데 마다해서야 되나.》

관리위원장은 탁배기나 마시듯 맛나게 들이키고 입가를 흠치었다. 원희도 한바가지 떠서 들이켰다.

물맛이 어찌나 달고 찬지 이가 다 저려왔다.

《물맛 좋지요?》

둘은 마주보며 웃음을 지었다.

《이 도래샘이 소문났수다. 원래 도래샘이 흔치 않아요. 물끓이 하나인 샘도 귀한법인데 도래를 이루는 샘이 흔하겠소. 아마 도래샘이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게요. 그런데 명년부터 여기에 약수터까지 건설한대요. 이름도 없던 우리 동네가 도래샘 약수터로 소문이 짜하게 됐수다. 원래부터 물맛이 좋아서 별로 김치맛이 좋다구들하는데 아주머니 거 김치맛 좀 보시우. 우리 동네 물맛이 김치맛을 부쩍 돋군다유》

《그래요?!》

원희는 프락안에 묻혀있는 김치독을 열었다. 봄이 다가왔는데도 독안에서는 아직도 썩한 기운이 내풍기였다. 빨강게 고추물이 오른 먹음직스런 배추포기를 보니 벌써 군침부터 넘어갔다.

원희는 독안에 있는 보시기로 김치국을 떠마시었다. 새콤하면서도 달작지근하고 그러면서도 독특한 김치맛이다. 이 정도면 남편이 구태여 떠나온 집의 김치생각을 했을리 없다.

원희는 목이 메었다. 《위원장아바이!》 하고 부르니 눈시울만 뜨거워왔다.

《아주머니, 이제 인차 정이 들거우다. 그저 오늘밤만 좀 넘기시우. 래일은 내 체격 모셔오지요.》

《예?! 그럼 지금 없는가요?》

원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부엉이골에서 본격적인 락종시험을 한답니다. 거긴 온도가 낮으면서도 잠퐁한곳이니가요. 랭시험에선 그 이상 적지가 없다유만요.》

《부엉이골이요? 저기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원희는 당장 찾아갈듯 일어났다.

《하 이러지 마시우. 부엉이골은 어두우면 넘어다닐곳이 못되우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대로 오늘만 보내시우. 새벽엔 척 모셔오리다.》

관리위원장은 짐을 풀어 방안으로 날라갔다.

《우리 집 사람을 보낼가요? 똑한 로친네래두 말동무는 꽤 될거우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원희는 펄쩍 뛰며 관리위원장의 말을 막았다.

《아 그럴것없이 우리 집엘 넘어갑시다. 정말

그게 좋겠군. 어서요.》

관리위원장은 좋은 방도나 떠오른듯 원회를 재촉했다.

《위원장아바이, 제 혼자서 집구경도 하고 샘플 맛도 보고싶어요.》

《예, 그래요? 샘플에 정이 들지요? 마음에 든다니 내 마음도 기쁘웨다.》

관리위원장은 어서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돌아섰다. 그의 얼굴엔 만족한 미소가 흘러넘치는듯했다.

## ×

너렁청한 집안에 혼자 남은 원회는 잠시 그대로 서있었다. 집안은 사람이 살고있는것처럼 화기가 돌았다. 그동안 집을 비워두지 않고 불을 켜놓은 모양이었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내가 살곳이라고 생각하니 한아름에 안아보고싶도록 정이 들었다.

원회는 먼저 부엌으로 내려섰다.

벽 한면에 잇달린 가시대우에 새 찬장이 있고 그릇들이 층층히 얹혀있다. 찬장뿐아니다. 횡단지며 크고작은 그릇들이 주렁주렁. 차례로 단지뚜껑을 열어보는 원회의 손이 가볍게 떨리었다. 당장 살림할수 있는 식료품들이 가득가득 차있다. 부엌문옆의 수도전도 하얀 타일을 붙여 여간만 정갈하지 않았다. 수도꼭지를 틀어보니 《짜-》하고 물줄기가 쏟아지었다. 이런 수도가 부엌뿐 아니라 마당한가운데에도 있었다. 커다란 물탱크까지 있는 수도가에서는 빨래하기도 그저 그만일것이다.

원회는 수도전에 있는 나박김치단지까지 열어보았다. 어느새 남편의 식성까지 알고 벌써 이런 김치를 담그었을까. 남편에 대해선 자기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받드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담. 혼자 꾸민하며 담그었던 김치는 남편이 손도 대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다. 무심히 그옆의 조그만 단지뚜껑을 열던 원회는 그대로 굳어지었다. 눈처럼 흰 소금이 들어있었다. (피곤했었구나.)

일이 겹쳐 곤할 때마다 편도선염을 자주 앓곤 하는 남편은 소금함수로 이겨내곤했다. 그때면 늘하던 땀수마찰을 중지하고 소금양치질을 하곤 했었다. 원회는 금시 눈앞이 그러해지었다. 그대로 부엌을 뜨고싶지 않아 아궁이에 한가득 장작을 밀어넣었다. 팔을 걷고 그릇들을 부시고 말끔한 가마목도 행주질을 하고 또 했다.

산촌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그런데도 원회는 눕고싶지 않아 그대로 벽에 기대어앉았다. 불빛속의 방안은 아까보다 더 아늑해보이였다.

꽃잎 돌린 옷보와 소나무잎무늬의 벽지가 조화를 이루는 아래방엔 새 가구들이 그췄했다. 장판도 어찌나 알심있게 했는지 기름칠이나 한듯 반들거리었다. 거울, 수건걸개에 이르기까지 어느것 하나 알뜰한 손길이 미치지 않은것이 없다.

옷방미닫이를 살며시 열던 원회는 저도 모르게 입을 싸쥐었다.

책이 두툼하게 쌓여진 책상머리에 낫익은 그림이 있는게 아닌가?

푸르른 들판을 배경으로 한 처녀가 서있다. 머리수건을 쓴 동그스름한 얼굴에서 입술은 방싯이 열려져있다. 정교하게 다듬은 눈가며 입술에서는 그대로 생기가 흘렀다. 동쪽엔 방금 세워놓은 자전거가 있었다.

그 그림은 바로 류성이가 그렸던 《자전거를 타고 온 처녀》였다.

아득히 흘러간 그시절 류성이를 만나 첫 샘플 맛을 보던 그때가 가슴짜릿하게 살아왔다.

저 그림을 언제 가지고 떠났을까. 빈집에서 홀로 저 그림을 걸며 남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티없던 처녀시절 나의 모습을 얼마나 그리었으면.

《여보! 》

원회는 쓰러지듯 그자리에 주저앉으며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원회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고 그림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분명 행복에 젖은 처녀시절의 원회였고 통채로 류성이를 추억케 하는 그림이었다.

옆에 남편이 있더라도 한듯 그의 목소리가 쟁쟁히 살아왔다.

《여보, 나라고 왜 힘들지 않겠소. 힘들지 않은 새로운 일이 또 어데 있겠소. 그럴 때마다 당신이 시험원인 나를 리해해주고 또 내 일을 돕자고 재단사도 다 집어치우고 조수일을 맡은 그 결심을 중히 여기군하오. 당신이 날 리해한것처럼 한 사람두사람 우리 일을 알게 되고 그속에서 새 종자가 태어나고 전국에 퍼져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 거기에 기쁨이 있는체 아니겠소. 그게 보람이 구말구. 여보, 내 이제 이 종자가 성공되는날 포전머리에서있는 당신을 그려주지, 그리구 아이들을 다 데리고 들놀이도 갑시다. 우리 막내가 이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다는데 그너석 성도 다 풀어줍시다. 응?》

그것은 변덕스러운 봄날씨에 모를 살려내자고 모판에서 밤을 새우던 나날에 남편이 한 말이다.

그때 남편은 어릴 때 별명이 두덕인데 그래서 인지 자기한테는 두가지 덕이 있는것 같다는 말도 했다. 무슨 덕이냐고 물자 일덕 안해덕하며 빙긋 웃었었다. 그 생각을 하니 또다시 눈시울이

화끈 달아올랐다. 남편의 책상앞으로 다가가던 원희는 의자우에 펼쳐진 낫익은 남편의 웃옷을 발견했다.

여기로 떠나올 때 가슴에 걸리던 회색웃이였다. 객지에 나가보면 집 그리움도 결의 보살핌도 느껴질것이라고 우정 모르쇠를 했던 웃이다.

새삼스럽게 빠끔히 올려다보던 웅덩이속의 개구리가 생각났다. 그때 얼마나 비웃었던가, 어리석다고.

원희는 더 서있지 못하고 와락 웃자락을 가슴에 부둥켜안았다. 남편의 체취가 그대로 살아왔다.

이 웃을 입고 그대로 겨울을 났으며 일감을 뿔을 남편, 그의 정력은 마치 마를줄 모르는 썸줄기와 같았다. 썸 생각을 하니 참을수없이 갈증이 났다. 썸가에 었디어 실컷 맛보고싶었다.

방금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따르릉-》하는 자전거 종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벌써 일어나셨소? 조금만 기다리시우. 내지금 부엉이골에 가는 길이유.》

석십한 그 목소리로 보아 분명 관리위원장이였다. 원희는 얼른 문을 열었다. 자전거 앞전등이 마을길을 비치며 멀어진다.

어느새 푸름푸름 날이 밝아온다.

원희는 허둥거리며 세타를 꺼입었다. 목도리까지 감으며 마당을 벗어났다.

새벽은 빨리 찾아온다. 이젠 날이 다 밝은거나다름없다. 더는 앉아서 남편을 기다리고싶지 않았다. 이 빈집에 한시각도 혼자 있을수 없었다.

원희는 서둘러 관리위원장의 불빛 뻗한 자전거를 뒤따랐다.

×

파아란 하늘, 푸르청청한 솔나무, 산등을 덮은 흰눈, 부엉이라는 스산한 이름과는 대조되는 너무나도 순결한 세계가 눈앞에 있다.

원희는 끝안의 새벽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었다.

어쩌면 이렇게 순결한가. 어쩌면 색도 이렇게 투명한지. 원희는 하늘도 숲도 난생 처음인듯 보고 또 보았다.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며 발이 나가지 않았다. 시각으로만 비껴오던 끝안의 경치보다 더 강하게 청각을 자극하는 목소리가 노래처럼 울려왔다.

《한선생, 한선생!》

관리위원장의 목소리다. 한발 앞서더니 어느새 끝안에 내려선 모양이다.

《위원장동무가 아십니까?》

귀에 익은 남편의 웅글은 목소리였다.

원희의 눈가엔 어느새 이슬이 맺히였다.

《내요. 내 회소식을 안고 왔소!》

《위원장동무, 어서 오시라요. 내보다 더 회소식이 있을라구요. 빨리요.》

다급히 찾는 남편의 목소리는 아이들마냥 떠있었다.

《위원장동지, 여기요. 류성동지가 글썄...》

애들처럼 쟁쟁한 목소리까지 섞여있다.

(저게 누구 목소리드라.)

《위원장동지, 씹이 텃습니다. 끝안의 랭기를 이겨낸 씹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쟁쟁한 그 목소리가 끝안을 울리였다.

(오라 배선생이구나. 그러니 그도 여기에 떨어져있었구나.)

《그렇소?!》

달려가는 발자국소리가 원희의 가슴을 마구 울리였다.

원희도 나는듯 끝안을 달려내려갔다.

땅에 무릎을 꿇고 모판을 들여다보는 관리위원장결에서 손세를 써가며 설명하는 배연수가 보이었다. 그뒤에 우뚝 선 사나이, 키가 큰 그는 분명 남편이다. 가로퍼진 어깨엔 솜옷이 걸쳐있었다. 솜소리도 죽은듯한 침묵, 그 침묵속에 휘말려 원희도 숨을 죽이였다.

《한선생!》

격하게 터치는 관리위원장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

《틀림없는 성공이지요?》

《예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성미 급한 배연수가 참지 못하고 먼저 대답했다.

《한선생, 왜 대답이 없소?》

《허허-》

남편이 고개를 젓히고 웃었다. 그 호탕한 웃음소리에 참새무리가 우르르 날아올랐다. 흰눈가루가 꽃보라마냥 그들의 머리우에 흩어져내리였다.

《하하-》

세 사나이는 가슴을 젓히고 꺾꺾 웃었다.

원희는 뭉클 가슴이 울리였다. 짜릿하게 눈곱을 지지던 금선이 흐트러져 방울방울 떨어지였다.

《글썄 그러면 그렇겠지. 이젠 됐수다. 내 큰소리치겠수다. 글썄 나보고 바지저고리에 구두신고 어쩐다저쩐다 하더니, 육종가선생은 이제부터 박사론문을 쓰시우.》

관리위원장이 호언장담하다 말고 배연수의 어깨를 치며 꺾꺾 웃었다.

《박사론문이요? 이제 어디 내 종잡니까? 엄연



히 류성동지거지요.》

배연수가 손을 내저으며 뒤걸음쳤다.

《이사람,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류성이가 놀라며 배연수를 바라보았다.

《류성동지, 사실 난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함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라고 말입니다. 여기로 올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류성동지를 잘 설복해서 합격도장부터 찍을 결심이였지요. 그러고보면 이 모는 단순히 랭해라는 자연의 난관들뿐 아니라 우유부단, 동요, 온갖 너절한것들을 이겨낸 새롭고 참신한 새 품종입니다. 이번에 이 품종이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전우리 농업과학자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랑심과 책임성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류성동지, 이 품종은 엄연히 류성동지겁니다.》

배연수가 남편앞에 마주섰다.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보고서라도 읽는게 아니요? 격식을 차리면서. 원 사람두, 서로 손을 잡았다고 주인까지 삭갈리겠나. 이랬든저랬든 주인의 마음에 든다니 나도 기쁘오.》

남편은 배연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환히 웃었다.

《자자, 그런 싱갱이들은 그만하구요.》

관리위원장이 두사람의 어깨를 부둥켜잡았다. 그는 내려덮인 모자를 치켜올리더니 목청을 높였다.

《내 이 모를 잘 길러 올해 농사에서 꼭 장훈을 부르겠소. 그리고 전국농업대회에 가서 이렇게 토론을 할테요. 당신들은 알고있는가. 육종된 새 종자의 완성을 위해 한뼉 들에서 사는 시험원들이 있다는것을, 우리 농장에 바로 한류성시험원이 있어 그 시험원이 완성한 새 품종으로 우리는 풍작을 이룩했습니다 하고 말ियो.》

《웁습니다! 맞습니다!!》

배연수가 환성을 올리었다.

《한선생, 고맙수다. 아니 선생 울지 않소?》

《허 위원장아바이 눈을 보니 내 저절로...》

《내가 눈물이 나왔나? 하긴 이럴 때 나오는건 눈물이 아니랍데, 하여간 오늘은 좋은 날ियो. 한선생 안사람이 왔시오.》

《예? 우리 집 사람이요?!》

남편이 획 돌아섰다.

원희는 방풍장 지주목에 쓰러지듯 몸을 기대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도저히 그대로는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아니 당신이?!》

남편이 발걸음을 떼다말고 우뚝 굳어지었다.

《아주머니! 》

배연수가 중간에서 이쪽저쪽을 바라보며 허둥거리기만했다.

《아하, 아주머니가 끝내 새벽걸음을 했군. 정말 험치 않수다.》

관리위원장은 그제야 뒤따라온 원희를 알아보고 혀를 찼다. 그러나 원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않았다. 보이지도 않았다. 저런 귀한 사람을 왜 좀더 받들지 못했는지 가슴만 옥죄여들었다.

《한선생, 왜 이러구 섰소? 식자있는 사람들은 이런 때를 금상첨화라고 하지?》

정말 좋은 날에 복이 겹친 날ियो.》

관리위원장은 남편의 팔을 잡아끌었다.

《아니 한선생은 새집 소식을 아예 전하지 않았다면서요? 사람두 쫓쫓, 아 집사람이 도래샘을 보구 그자리에서 반하든데, 참 홀아비 살림이 그렇게 좋습데?》

결에서 관리위원장이 너스레를 떠는데도 그들은 한동안 마주보기만했다.

배연수가 원희앞으로 끼어들었다.

《아주머니, 용서하십시오. 제가 류성동지를 어쩐다고 했지만 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 덕분에 오늘을 보았지요. 약속을 안지켰다고 나무라지 않지요?》

원희는 흐려오는 눈가를 애써 숨벽이였다.

《배선생, 고마와요.》

《아 고마운건 접니다.》

배연수는 정말 원희앞에서 꾸벅 절을 했다. 그리고는 돌아서며 류성이를 이끌었다.

《류성동진 갑자기 목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류성이가 흰이를 드러내며 원희를 바라보았다.

《여보, 도래샘이 마음에 들었소?》

과묵한 남편은 이렇게밖에 묻지 못했다.

그래도 원희는 좋았다. 그는 정겨운 눈길을 들어 고개를 끄덕이였다. 기쁨의 눈물이 앞서는 그의 눈앞에 쉬임없이 솟구치며 찰랑거리는 도래샘의 맑은물이 어려오는데야 무슨 말을 더하랴싶었다.

원희는 머리를 들었다. 골안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눈가루들이 몰아오는 바람결에 휘말려 뽀얗게 눈보라를 일구었다. 얼굴에 와닿는 눈바람은 산뜻산뜻했으나 가슴에서는 뜨거운것이 세차게 소용돌이쳤다. 원희에게는 사철 변함없이 솟구치는 도래샘이 있는 아늑한 집에서 남편을 성심성의로 도와나가는 자기의 모습이 우뚝이 안겨왔다.

그 이듬해 정월 평양에서 열린 농업대회에서는 농사를 잘 지은 상현리 관리위원장이 만사람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토론을 했다.

그 시각 상현리 한류성네 집에서는 설레이는 마음을 안은 원희가 텔레비죤화면을 마주하고있었다.

# 사랑의 권리

강선규  
그림 김원래

(전화에서 계속)

## 4. 인간의 향기

밤은 똑딱거리며 시간을 재이는 벽시계 소리와 함께 깊어만 갔다.

홀러가는 한초한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인생의 과거로 된다고 생각하니 시계추소리는 무던히도 나의 가슴을 아프게 때린다.

(무엇을 했던가? 어떤 자옥을 남겼는가?)

무로히 보낸 시간은 없는듯하나 왜 그런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제일 떼떽하게 생각되는것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였다는것이다.

단 한마디라도 나의 목소리가 학생들의 마음속에 묻히는 진리의 씨앗으로 되어 그들의 앞날에 보탬을 주었다면 나의 이 하루는 참으로 행복한 날인것이다.

나는 책상우에 퍼놓은 책에서 잠시 눈길을 들어 잠이 든 아들딸 오누이와 그들을 겨안듯하고 모으로 누어 꿈속을 걷고있는 안해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그러노라니 아버지로서, 세대주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냈는가 하는 생각이 더더욱 새삼스럽게 갈마든다.

조그마한 시름도 없이 단잠에 든 나의 식구들...문득 눈물을 머금고 초연히 앉아있던 연희선생의 모습이 눈을 아프게 찌르며 떠오른다.

나의 안해와 아들딸이 한가정의 식구라면 연희 선생은 사회적인 요구가 형성시킨 또 다른 한가정의 귀중한 식구가 아니겠는가.

먹고 자는 가정의 평온과 화목도 중요하지만 혁명파업이 토론되고 실현되는 자기 직장, 자기 부서의 평온과 화목은 보다 더 중요하다.

한쪽 가정의 식구들은 단잠을 자는데 다른 가정의 한식구는 어떤 아픈 사연을 품어안고 밤을 밝히고있는지...

그가 하던 말마디들이 다시금 귀전을 울리며 되살아난다.

《더는 못참겠어요. 가정이 아무리 귀중하다 하여도 더는...》

피롭고 안타까웠다.

그를 도울수 있는 방도가 어떤것인지 조금도 생각나지 않는다.

도덕도, 성품도, 자질도, 사고방식도 놀라울만치 세련되어있는 연희가 어떻게 되어 그런 마음속 세파에 부대끼고있는것일까?

생각할수록 답답하기만 하다. 차라리 더 생각지 말자. 내가 속을 썩인다고 바로잡힐 일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떠오르고 퍼지는 번잡한 생각을 도저히 저두어들일 재간이 없었다.

나는 무작정 책장앞에 쌓인 원고더미에서 맨우의 두권을 끄당겨내렸다. 강남협동농장 작업반장이 써가지고 왔던 소설원고와 아까 낮에 윤석이가 주고 간 굴진소대장의 소설원고가 텅텅 상우에 떨어졌다.

아직 제목을 붙이지 않은 그의 소설에는 서두부터 마음을 그러당기는것이 있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굴진소대장이 쓴 소설속에 깊이 묻혀버리기 시작하였다.

...

해를 바라우는 초저녁별이 하늘 한복판에서 알릴듯말듯 깜박거리고있었다. 시뻘겋게 익어버린 서쪽하늘에는 금방 갈아엎은 밭이랑모양의 붉은 구름이 진하게 깔려있었다.

어둠이 가까와올수록 버럭산을 에돌아 마을 한복판을 꿰여흐르는 강물이 더욱 희고 뚜렷하게 바라다보인다.

배탄기의 강철란간 사이사이에서 하나 둘 전등불이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저녁밥을 먹으라고 애들을 부르는 어떤 녀인의 청높은 목소리가 멀리서 그러나 매우 푹푹히 들려온다.

끼때도 모르고 동네가 좁다하게 뛰어다니는 조무래기들이 밤알만하게 내려다보이는 둔덕에 앉아있는 장설은 마르기 시작한 새초줄거리 하나를 꺾어 입에 물고 잘근잘근 씹으며 움직일줄 몰랐다.

그는 생각이 복잡하였다.

이제 몇달 안있으면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 약속된 길은 과연 어느것인지...

오늘 장설은 담임선생과 교장선생으로부터 어느 대학에 가겠는지 집에 가서 토론해가지고 올라오는 과업을 받았다.

어느 대학이든 마음대로 선택할 자격을 가진 자기가 더없이 영예스럽기도 했으나 똑바로 결심을 내릴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종합대학? 사범대학? 의학대학? 공업대학?

집에 들어가 전망문제를 토론해본댔자 한뼘 굴 안에서 살아온 아버지도 그렇고 세상물정을 보는 눈이 바늘귀같은 어머니가 앞이 트이는 방안을 내놓을수는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밤이 되도록 이 언덕에 미루처럼 앉아있을수도 없는노릇이었다. 친구인 창선이를 찾아가 토론해보고싶었으나 집에 붙어있을것 같지도 않았다. 장설은 입에 물고 씹던 풀줄거리를 툭툭 끊어 집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앞에 이르니 문이 활짝 열린 부엌안에서 무슨 즐거운 일이 생겼는지 깔깔거리는 누이동생 옥설의 맑은 웃음소리가 뜰안으로 흘러나왔다.

《애 그만 웃어라. 귀청 떨어지겠다.》

어머니의 꾸지람이 뒤따랐으나 옥설이는 그냥 웃음을 끊지 못하더니 짓까불어댄다.

《어머니 노래를 아버지랑 오빠랑 들으면 아마 허리가 개미처럼 될거야. 어머니, 이제 아버지 들어오시면 다시 부르랴요. 내가 소개할게. 호, 호》

《온 참, 계집애두. 쫓쫓...》

어머니는 혀를 차더니 자기도 웃어버린다.

창설이는 영문도 모르고 벌썌거리며 문가로 다가갔다. 옥설이의 명랑한 웃음이 무작정 반가웠고 더군다나 희한하게도 어머니가 노래까지 불렀다니 마냥 즐겁기만 하였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요?》

부엌마루에 커다란 바가지를 가운데 놓고 서로 마주앉아 줄당콩을 까고있던 어머니와 옥설이가 장설을 돌아보았다.

《오빠 오누나!》

《인제 오냐?》

어머니와 동생은 웃음에 젖은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야, 줄당콩 땀구나.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거!》

장설은 환성을 올리며 들어서서 당콩무지앞에 털썌 마주앉았다.

《호호호.》

옥설이는 또다시 어깨를 들까불며 웃어댄다. 올해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옥설이는 웃음이 많은애였다.

《어머니, 무슨 노랜 불렀기에 애가 이렇게 정

신없이 웃어요?》

장설은 눈물까지 가랑가랑해서 웃어대는 동생을 결눈질해보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노랜 무슨 노래... 계집애가 웃음이 헤퍼서 그러지.》

어머니는 가는 눈을 주름속에 파묻으며 미소를 머금었다.

《오빠! 》

옥설이는 길다란 줄당콩꼬투리 하나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오빠는 금방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신다고 그랬지?》

《응.》

《그건 모르는 소리야. 어머니가 노래 부르는걸 들으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건 이 당콩꼬투리가 아니래. 그보다 더...호, 호...》

옥설이는 동그랗게 말아친 주먹으로 마루를 콩콩 두드리며 웃어댔다.

《웃지만 말고 말하러마! 》

장설은 동생의 어깨를 껴지르며 찢 눈을 흘겼다.

《좋아, 그럼 내가 노래를 부를테야. 리분순 작사 작곡...아마 이런 곡은 세상에 없을거야. 막 피상한건데... 》

옥설이는 터지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옛날 늙은이들이 부르던 타령조로 노래를 불렀다.

꼬투리 꼬투리 줄당콩 꼬투리

령감님 좋아하는 줄당콩 꼬투리

말 마소 말 마소 그런 말 마소

진짜로 좋은건 아들놈 꼬투리

《허허허.》

장설이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었다.

옥설이는 눈이 동그래서 물었다.

《제일 좋은건 아들이라는 소리지? 그렇지. 오빠?》

《글쎄... 모르겠다. 창작자인 엄마보고 물어보렴 허허.》

부엌안은 또다시 웃음으로 가득찼다.

《원, 자식들두...》

어머니는 혀를 차더니 밥가마앞으로 가서 솔뚜껑을 열고 주적으로 밥을 짓기 시작했다. 물썌 김이 피어오르면서 구수한 당콩밥냄새가 풍겨 돌아왔다.

《그만 까구 저녁들이나 먹으렴.》

어머니가 찬장앞에 얹어놓았던 밥사발을 집어 들며 말했다.

《이제 아버지 오신 다음 함께 먹지요 뭐. 아버지가 이 줄당콩밥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장설이는 일어설념을 앓고 계속 쿵을 잤다.

《그런데 아버지 왜 아직 안오실가?》

옥설이가 어둠이 내려앉은 바깥으로 눈길을 가져가며 근심스레 중얼거렸다. 집안에서 아홉시를 알리는 벽시계 종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오시겠지... 너희들 배고프겠는데 먼저 먹으렴.》

어머니는 사발에 밥을 퍼담으며 말하였다. 장설이는 마루에서 일어나 동생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다.

식사를 끝내고 그릇을 다 가실 때까지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반질고리를 잡아당겨 무릎앞에 놓으며 어머니가 혼자소리처럼 뇌인다.

《왜 이리 늦어지누...》

옥설이는 그릇 치운 밥상을 그대로 물밑에 던져놓고 앉아서 수학문제를 푸느라 눈을 깜박거리었고 장설은 읽던 소설을 마저 읽으려고 장편소설 《새봄》을 펴놓고 담벽에 기대여앉았다.

주인공에게 겹쳐워지는 시련이 지겹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 어려움속에서도 믿고 따르고 아껴주고 도와주는 이웃 사람들과 너주인공이 고맙고 사랑스럽기 그지없었다.

(이런 마음들이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지. 모두가 이들처럼 살아가야 하는건데...)

장설의 온 정신은 소설에 빠져버렸다. 그러다가 시계가 열시를 치는바람에 펄쩍 고개를 들었다.

바느질을 멈추고 조각상처럼 앉아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무거운 그늘에 눌리워 컴컴해지고있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 열아홉살 꽃나이에 시집을 와서 너무나도 한숨과 눈물을 쏟은탓에 심장이 줄아들고 주름이 엉킨 분순이었다.

왜놈순사의 매눈알이 집집마다 바늘처럼 노려보던 그때에는 일년간 남편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눈앞이 까매지곤하였다. 늦어지는 그날이면 레외없이 불행이 날아들곤하였다. 허기진 남편이 거적들것에 실리워 들어온것도 모두 늦어지는 그 시간과 잇닿아있었다.

눈우에 서리라는 말과 같이 장설이 우에로 본 두 아들애를 열병으로 빼앗기는 불행까지 겹쳐져 갈가리 가슴을 찢어놓았다.

행복속에 불행의 기억이 삭막해지고 너나없이 즐거움에 겨워 웃고 떠드는 오늘날에도 너무도 깊이 박혔던 근심이여선지 예고없이 남편이 늦어지는 날이면 기다려지는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덧없는 불안이 고사리썩처럼 목은 잎새를 들추며

삐죽이 머리를 내어밀곤하는것이였다.

장설은 어머니의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구나 아버지가 기다려졌다.

이윽고 저벅저벅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틀림없는 아버지의 발걸음소리였다.

마주 보는 어머니와 장설이, 옥설이의 얼굴에는 한순간에 밝은 웃음이 피어났다. 어머니가 얼른자리에서 일어나며 머리칼을 쓰다듬어올렸다.

덜컹, 바깥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서둘러 사이문을 열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인제 오시우? 수고하셨어요.》

간데라며 밥가방을 받아드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설은 왜그런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몇십년을 하루와 같이 일나갔다 들어오는 아버지를 맞을 때마다 듣게 되는 어머니의 목소리건만 들을수록 새로움이 느껴진다. 저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아버지는 벌써 어둠던 그 세상살이를 끝내지 못한채 쓰러지고 말았을것이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위해주는 두사람의 남모르는 그 사랑이 있어 한생에 겪게 되는 불행이 곱절로 작아지기도 하고 차례지는 행복이 곱절로 커지기도 하는것이 아닐가!

《늦으셨군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장설은 벉글거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좀 늦었다. 회의가 있어서...》

약간 등이 굽을사한 아버지는 거뭇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방안에 들어서더니 옥설이옆에 앉았다.

《아버지, 당콩밥 했다.》

옥설이가 생글거리며 말하였다.

《그래?》

아버지는 심드렁히 대꾸하더니《후-》한숨을 꺼뜨리고 담배부터 꺼내들었다.

이미 반백이 된 머리며 우뚝한 코날, 약간 관골이 두드러진 아버지의 얼굴에서 장설은 범상치 않은 무거운 시름을 읽었다. 왜 그럴가? 어쩌서 한숨을 내설가?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옥설이가 얼른 일어나서 상을 받아 아버지앞에 가져다놓더니 밥사발 뚜껑을 열었다. 둥글둥글한 진밤색 줄당콩알들이 먹음직스럽게 박혀있는 불그스레한 밥이 문문 김을 피워올렸다.

《아버지,어서 잡주세요!》

옥설이가 재촉했으나 아버지는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지만 할뿐 손가락 들념을 안했다. 또다시 몰아쉬는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러시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가 대뜸 가볍지 못한 아버지의 표정을

일별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턱을 가슴에 파묻듯하고 앉아서 푸릿푸릿한 굴간 상처가 박힌 투박한 손으로 무릎을 쓰다듬기만 할뿐 말이없었다.

식구들은 무슨 일인가싶어 아버지만을 눈주어 바라보았다.

장설은 혹시 아버지가 일하는 갯에서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뇌리를 쳐서 마음이 긴장해졌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서면서 무슨 회의를 하었다고 말했는데 그게 혹시 사고심의회는 아니였는지?

넌로한 몸이지만 아직 굴진갱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기능공으로 고문격의 역할을 하면서 발과 공을 하고있는 아버지의 어깨에는 스스로 결머진 많은 짐이 놓여있었다.

《속시원히 말씀하시구려. 왜 그러구만 앉아있소?》

보다못해 어머니가 하소연에 가까운 목소리로 안타깝게 물었다.

목석처럼 앉아있던 아버지는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아버지의 깊은 눈구석에 그렇게 눈물이 고여있지 않는가.

(?!)

장설은 그만 가슴이 덜컥하였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입술을 병싯 벌리고 겁먹은 눈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옥설은 아버지의 눈물을 보자 오금이 저려 꼭 입술을 깨물고 어쩔줄 몰라하였다.

아버지는 무언가 가슴이 아픈듯 얼굴을 이그리고 한참이나 입술을 떨더니 쉬어버린것 같은 목소리로 부르짖듯 말하는것이였다.

《어제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 공장 기업소의 생산정형을 알아보시다가 석탄때문에 여러 부문이 지장을 받고있다는걸 아시고 너무도 가슴 아프시여서... 점심식사까지...드시지 못하시였다는구려... 이럴 때면 자신...께서도 탄부가 되어 석탄을 캐고 싶다고... 몇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울음을 삼키는듯 몇번 더듬다가 말끝을 맺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자 무릎을 구부린 아버지의 제복바지우에 두어점의 진한 무늬가 새겨졌다.

《여보, 바로 오늘이 해방직후에 내가 공산당에 입당한 그날이요. 당신도 잊지 않았겠지? 입당이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기뻐하던 일을...》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고리 곁으로 눈굽을 찍어낸다.

자책과 걱정으로 하여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창설이의 긴장된 가슴속에도 속속들이 스며들었다.

《탄광에서 첫 당원의 영예를 지닌 내가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소.》

아버지는 더 건디기 어려운듯 담벽쪽으로 무겁게 돌아앉더니 주먹으로 눈굽을 찍고나서 부시럭거리며 담배를 꺼내 입에 무는것이였다.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성냥불이 켜지고 담배끝에 불이 달리자 아버지는 한껏 연기를 들이켰다가 길게 내어뿜었다.

질은 한숨이 섞인 푸릿한 담배연기는 방안에 그물그물 퍼지면서 장설의 상기된 두볼에도 스쳐왔다.

장설은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껌벅거리며 말없이 탄때가 거뭇하게 오른 문설주 한옆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땀배인 주먹을 콕 들어쥐면서 그러한 눈을 지그시 감고 이불장문에 머리를 기대버리었다.

침묵의 길이를 재이듯 푹푹거리는 시계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런듯이 앉아있던 어머니가 식어버린 국그릇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내려가면서 소리없이 눈굽을 훔치였다.

옥설이는 눈물이 글썽해서 조그마한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 앉아서 까딱하지 않았다.

장설은 뽕얇게 흐려진 시선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을 얼핏 둘러보고나서 짧으나 뜨거운 숨을 몰아쉬였다.

이때 밤 12시를 알리는 고동소리가 길게 울려왔다. 이제부터 새날이 시작되는것이다.

이렇듯 새날은 가장 깊은 밤중에 시작된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동녘하늘이 밝아올무렵에야 새날이 시작되었다고들 말한다. 아마도 밤보다 낮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더 많기때문에 그럴것이다.

...

원봉우는 어둑새벽에 눈을 떴다. 자기가 잠에 들었었는지 안들었었는지 가늠이 가질 않았다. 부엌 사이문잠으로 실날같은 전등불빛이 방안으로 새어들어오고있었다.

시계를 보니 다섯시가 거의 다 되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봉우는 부시럭부시럭 담배를 꺼내들었다. 그런데 이때 사이문이 방싯이 열리더니 마누라가 울려다보며 한껏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는것이였다.

《식전 담배가 해롭다는데 그만두시구려. 어서 세수하고 식사나 하시우.》

봉우는 담배를 도로 집어넣고 옆에 엎어져 자고있는 막내아들 문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디 나가서 자정이 넘도록 쓰다녔는지 허벅다리엔 붕대까지 감겨져있었다. 봉우는 아들애를 점도록 내려다보다가 무릎에 손을 짚으며 일어섰다. 부엌에 내려가보니 마루우에 어느새 조반상이 다 챙겨져있었다.

새로 지은 당콩밥이 문문 김을 피워올리고 그 옆에 풋고추와 줄당콩깍질을 섞어 지진 지지개사발이며 어느새 잡아서 손질했는지 맛있게 볶은 닭고기가 남비에 놓여있었다.

국에 섞인것보다 마른고기를 더 좋아하는 봉우여서 마누라는 어떤 고기든지 늘 이렇게 줄임을 하곤하였다.

《밤을 새웠겠구만.》

봉우는 국가마앞에 앉은 마누라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분순이는 주름속에 작은 눈을 푹 파묻으며 소리지 없이 웃었다.

《신새벽에 뛰어나갈게 뻔하드라니... 자, 어서 세수하고 식기전에 드시구려.》

봉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언제보아야 혼자속 깊은 마음도 제일먼저 알아주는것은 마누라였다. 돌이켜보면 늘 이 아침처럼 마누라의 위로와 떠받들림을 받으면서 살아온 자기였다.

잠시후 세수를 끝낸 봉우는 얼굴을 닦은 수건을 부엌 담벽에 박힌 못대가리에 걸어놓고나서 밥상앞에 다가앉았다.

《함께 먹자구, 내 혼자야 맛이 있나?》

《예.》

마누라는 선선히 응하며 웃음을 머금고 봉우와 마주앉았다. 수저통에서 숟가락과 저가락을 뽑아 봉우손에 들려주고는 배추국그릇을 밥사발옆에 가지런히 놓아주었다.

《빈속에 맵거나 짠것을 먼저 먹으면 나쁘다는데 국부터 몇술 뜨고 다른것들을 자시우. 애들 먹을 닭고긴 따로 내놔오니 이걸 령감하고 나하고 다먹자요. 보라요. 얼마나 먹음직스럽나.》

《...》

봉우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궁냥이 떠오르지 않아 그저 입술만 두어번 이기죽거리다가 종시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상우에 차려놓은 음식을 말끔히 다 먹어야만 마누라가 기뻐할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시에 뜨거운것이 가슴속에 젖어드는것을 어쩔수없었다. 봉우는 먹음직스럽게 듬뿍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정겹게 바라보던 마누라도 숟가락을 놀리기 시

작하였다. 봉우는 남비안에서 그중 커보이는 고기뭉치 하나를 집어 마누라에게 내밀었다. 분순이는 밝게 웃으면서 집게손가락을 하여 그것을 조심히 받아들였다.

오랜만에 부처가 마주앉아 밥을 먹으니 입맛이 부쩍 당기는것 같았다. 마치 신집살림을 시작해서 첫 밥상을 마주하고 단둘이 앉았을 때 피어나던 아지랑이같은 감정이 새록새록 되살아나기도 하였다.

인심이 험악하고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던 그 모진 세월도 부부간의 이런 정만은 빼앗을수 없었을뿐더러 오히려 더 굳게 두사람을 엮어놓았었다.

...

나는 자신도 모르게 벅차오르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것이 부부다. 가정은 이래야 한다!》

부러웠다. 작품속의 이들처럼 살고싶기에 더욱 부러웠다.

확실히 작품속에 나오는 봉우나 분순은 행복과 사랑을 가꿀줄 아는 사람들이다.

나는 속으로 절절히 기원하였다.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이 다 이들처럼 살았으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생활속에서 주고받는 사랑을 소리쳐 자랑하고싶은것은 그 사랑이 짝트고 자라나는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품이 한없이 고마워서였고 그들이 피운 사랑의 꽃이 맺게 될 열매가 어떤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때문인것이다. 아, 나도 이들과 같이 살고있는이 나라의 공민일진대 나의 사랑, 나의 생활을 조국과 인민의 어버이를 받드는 그 길에 바쳐야 할것이다.

이 소설을 쓴 소대장을 어서 만나보고싶었다.

나의 벗 윤석이가 그토록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이 소대장청년의 사람됨이 그가 쓴 글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었다.

이 청년은 앞으로 가정을 꾸려도 자기가 쓴 소설속의 가정처럼 꾸릴것이며 자기 소대도 그 가정처럼 단란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아글타글 할것이다.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의 모든 집단을 하나의 화목한 가정처럼 꾸리는것은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리상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함께 일하는 동지들 호상간에 오고가는 눈길이나 곱지 못하면 벌써 그 집단은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고 하시면서 동지에 대한 사랑과 화목을 일심단결의 생활적기초로 보고계신다.

때문에 우리가 지니고있는 애인에 대한 사랑,

가정에 대한 사랑은 다만 내 개인의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는것이다.

소대장청년이 쓴 작품에는 바로 이러한 리상과 생활적주장이 짙게 배여있었다.

보아하니 소대장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듯싶었다. 누구를 그렸다 한들 닮았것이 무엇이라. 그는 모든 독자들이 다 부러워하고 본받고싶어할 아름다운 부부를 그리고있는것이다.

큰 소설인것만큼 앞으로 또 어떤 인간들이 나타나서 나의 가슴속을 휘저어놓겠는지 모르겠다.

나의 벗 윤석이가 금싸래기같은 소대장이라고

하더니 참말 그런것 같다.

아름답지 못한 인간, 사랑을 모르는 인간은 이런 글을 쓸수 없다. 현란한 문장, 두드러진 기교는 있어도 진정을 품은 사랑이 없다면 이처럼 인간의 향기가 스스럼없이 풍겨나오는 소박하고 진실한 형상을 창조할수 없다.

종이꽃은 생화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폐부속에 스며드는 향기가 없다.

인간의 향기는 바치는 사랑을 뉘으로 안고 사는 인간다운 인간에게만 있는것이다. 하루빨리 소대장을 만나보아야겠다.

(다음호에 계속)

## 성새

박세일

누가 그랬던가  
시단이란 화원과 같은거라고  
한편한편의 서정시들은  
그 화원을 장식한 꽃송이와 같다고

아니여라, 우리의 시단  
주체문학의 시단은 단순히  
아름다운 화원에만 비길수 없어라  
향기로운 꽃에만 비길수 없어라

보시라  
우리네 시인들이 지금  
무슨 시를 쓰고있는가를  
어떤 일을 하고있는가를

###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무산을 생각하시면  
우리는 무산으로 달려간다  
철산봉을 허무는 발파소리에  
우리 노래의 메아리도 합쳐진다

그이께서 검덕을 심려하시면  
다시 검덕으로 달려간다  
심장에서 뿜아낸 시의 불길로  
혁신의 열풍을 몰아온다

아,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사회주의 지키자 호소하시면  
시인들이 제일선참 호응한다  
우리가 쓴 시  
총탄이 되어 포탄이 되어  
반사회주의열풍을 맞받아나아간다

보다싶이 우리는  
재미가 있어 시를 쓰는게 아니여라  
이름이나 내자고 쓰는것은 더욱 아니여라

자기 수령을 옹호하고  
자기 체도를 지지하고  
자기 인민을 사랑하는  
투사의 뉘이 다듬어낸  
아 시! 우리의 시!

이 한편한편의 시가  
성돌인양 모이고 쌓여  
내 나라의 시단을 이루었나니

성새여라  
주체문학의 시단은  
당의 두리에 구축된  
난공불락의 성새여라

##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두고...

## 황령아

사람들은 누구나 3대혁명소조라면 대체로 각이한 대학들에서 모여온 대학생들로 이루어져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증산군 풍정리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농촌에 진출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차로 그들을 찾아 내려가는 나는 생각이 깊었다. 리상과 포부가 서로 다르고 전공분야도 다른 그들이 어떻게 되어 한결같이 뿌리내릴 생각을 하였을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있는 이들의 앞에는 희망과 포부에 따라 자기나름대로의 창창한 길이 열려져있었을것이 아닌가!

그 모든 희망과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소조활동을 한 이곳 풍정리 바람세찬 간석지땅에 뿌리내릴 결심을 한 그 근처에는 어떤 신념이 있었을가?

나는 풍정리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소조원들 모두가 수속때문에 고향으로 떠나고 풍정리에는 한 처녀만이 남아있었다. 처녀는 동무들이 다 떠나간후에 온 아쉬움이 력력히 비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조책임자동지는 평양공산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올해는 소조기일을 끝마치고 들어가게 된 해입니다. 그러나 맨먼저 풍정리에 남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처녀는 계속하여 동무들에 대하여 긍지높이 자랑하였다. 평양기계대학을 졸업한 동무며 라진해운대학을 다닌 동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다 유망한 기계공학전문가이고 해양기사라고 했다.

해양기사는 무역선을 타고 대양을 향해할수 있었는데 조타를 풍정리로 돌렸다고 한다. 그리고 통신으로 다시 농업대학을 다니겠다고 결의다지였다고 한다.

모두 가슴뜨거운 이야기였다.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그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처녀는 누구일까? 왜 수속차로 고향에 가지 않고 혼자 남아있을가. 이 처녀만은 풍정리를 떠나가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일반생활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란것도 있는 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나는 그자신에 대해서 더 알고싶었다. 처녀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면 피할수록 호기심은 점점 더 커갔다.

혹시 처녀만은 아직 결심을 못내리어 망설이고

있는중이나 아닌지? 그렇다면 리해가 가는 일이다. 자기 일생에 관한 중대사이니 헉헉 장부도 아닌 어린 처녀로서 어찌 그만한 고민도 없으랴.

한편 류달리 오탁한 코날과 명민하게 반짝이는 두 눈을 보면 그가 결코 결심을 못내리고 망설일 그런 형의 처녀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면 농사일과는 판판 다른 대학을 졸업했을가? 어문학? 열공학? 하지만 해양학도 항로를 바꾸는데...

《소조원동무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하고 묻는 내 의도를 깨닫기나 한듯 처녀는 빙긋이 웃으며 나직이 대답했다.

《농업대학 육종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요?!》

나는 저도 모르게 환성을 올렸다. 그야말로 이 땅의 주인으로서 가장 책임자가 아닌가. 그런데?

아니, 처녀는 동요하거나 망설이고있는것이 아니였다. 처녀는 상대방의 마음속을 예리하게 들여다볼줄 알았다.

환성뒤끝에 떠오른 의혹이 비낀 나의 얼굴을 눈여겨보더니 조용히 말하였다.

《나는 고향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편지로 모든 사연을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해당한 수속도 다 해서 동기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기특한 생각과 고마운 생각이 겹쳐들어 저도 모르게 그의 두손을 감싸잡았다.

《예, 그랬됐군요. 고마워요.》

나는 마치 그가 내 고향에 뿌리내리는 처녀처럼 생각되어 혈육같은 느낌이 들었던것이다.

《제가 고향에 가지 않은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까.》

처녀는 한참이나 무엇을 생각하고 갑자르더니 주머니에서 봉인한 두툼한 편지를 꺼내 결봉을 보여주었다.

평양의 한 연구소에 있는 남동무에게 쓴 편지였다.

《우리는 소꿉시절부터 같이 자랐고 학교도 한 마을에서 같이 다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뛰어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3학년때 외국유학을 갔다가 와서 과학원 연구소에 배치받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나는 동무들과 함께 풍정리에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에게 여



기로 오라고 하겠어요. ...

나는 단념하고 그에게도 그런 사연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어조는 담담했으나 번민의 고통이 력력했다.

편지를 쓴 날자를 보니 한달전이었다.

나는 가슴이 몽클해졌다. 그리고 고향에 가기 두려워한 그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고향에는 그 총각의 부모님들도 계실것이다.만 나면 무슨 말을 더 한단말인가...

《솔직히... 저는 이런 결심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이야기끝에 꼭 이 사실을 비밀에 붙여달라고 하였다. 동무들이 자기를 떠밀어보낼수도 있다는것이다.

문득 옛 시인이 읊은 이런 시구절이 생각되었다.

...

사랑을 위해 목숨도 바치리라

...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 청년들은 조국을 위해 그 사랑도 바칠줄 알고있다.

나는 소조원처녀에게 무슨 말인가 하고싶었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몸매 수수한 처녀, 그가 어떻게 이런 의지, 굳고 억센 결심을 지니게 되었는지 놀라왔다.

처녀의 말은 계속되었다.

《하긴 저의 이 편지를 보면 그 동무도 이해할것입니다. 이 풍정리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농장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농장에 찾아오시여 꼭 2만톤농장으로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장원들 보고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우리들은 떠나가야 옳습니까.

우리 3대혁명소조원들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맨 앞장에서 관철해나가는 시대의 기수가 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속엔 다 있습니다. 당일군도, 기계기사도, 수리공학자도, 그중에 육종학기사는 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누구보다 여기 꼭 남아야 할 책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생긋이 웃으며 말하였다. 그러나 그런 웃음을 웃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의 날을 보냈으랴.

《혹시 그 동무가 올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 나의 말에 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웃음을 지었다.

나는 이 몸매작은 소조원처녀에게 머리가 숙여짐을 금할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혁명전위답게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 어려운 일에 앞장서며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키워주신 우리 시대 대학생-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시대의 앞장에서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고있다.

하여 그들은 물맛짜고 바다바람 세찬 이 간척지땅을 2만톤농장으로,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꾸릴 결심을 안고 남기로 약속한것이다.

생각할수록 그들의 지향과 이상이 한없이 고귀하고 값높아보이며 나의 마음은 끝없이 숭엄해지기만했다.

처녀는 헤어지면서 나에게 애인에게 부치지 못한 편지를 주었다. 가는 길에 우편통에 넣어달라고 하였다. 차마 자기 손으로 부치기는 어렵다면서 미안해하며 주었다.

나는 그 편지를 무겁게 받아들었다.

한 처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편지였다. 그 편지를 우편통에 넣는것은 어떤지 경솔한 행동으로 생각되었다. 하여 나는 그 편지를 직접 청년에게 주기로 결심하였다.

1과학원에서 일하고있는 그 청년을 만났을 때 나는 대변에 청년에게 마음이 끌리고말았다.

리지적인 눈빛이 빛나는 가름한 얼굴과 지성미가 넘쳐나보이는 흰칠한 이마, 우선우선한 목소리는 또한 대변에 나의 가슴을 후덥게 해주었다.

《풍정리에서 오시는 길이라니 매우 반갑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그는 단숨에 읽었다. 서느러운 눈빛이 점점 심각해졌다. 나는 그 얼굴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살피며 가슴을 조였다.

다 읽고나서 그는 충격이 큰지 말을 못했다.

《장차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못한듯 생각에만 잠겨있었다.

고요한 정원에는 잎을 흔드는 바람소리뿐이었다. 꽃다지 꽃들이 푸른 잔디밭 가운데 무늬처럼 한무더기씩 피어있었다.

물끄러미 그곳 어딘가를 주시하며 나를 잊은듯 앉아있던 그가 한참만에 대답하였다.

《작가동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녀자들이란 참 이렇게 외곶으로밖에 생각못합니까. 왜 우

리가 사랑을 희생시켜야 합니까. 2만톤군을 만들 때까지 제가 기다릴수도 있지요. 또 결혼하고 헤어져 연구사업을 하다가 연구과제를 끝내고는 또 모여서 토론을 하고 논쟁도 하고 휴식도 하다가 다시 새 연구과제를 맡고 현지로 떠나갈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또 제가 경우에 따라 아주 내려갈수도 있구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그의 대답에 가슴이 후련해짐을 느꼈다. 참 남자들이란 생각이 깊고 폭이 넓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한번 풍정리에 가보겠습니다.》

그는 안도의 숨을 쉬는 나를 보며 미소를 머금고 더 침부했다.

《인차 가보겠습니다.》

《고마와요.》

떠나는 마음이 한없이 후련해졌다.

## 수필

# 나의 대학시절

김영희

나는 지금 룡남산언덕으로 오르고있다.

단발머리 중학생모습으로 온 세상을 다 받아안은듯한 환희속에 대학교정의 첫걸음을 시작하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수년간을 날마다 오르내리던, 이제는 눈감고도 걸을수 있는 정든 나의 교정길이다.

해쑹는 룡남산! 이 룡남산마루로 오르는 나의 마음은 오늘따라 튼다르게 설레인다.

온 우주를 뒤덮은 붉은 아침노을, 맑고 푸른 대동강가에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 날에 날마다 웅장화려하게 면모를 일신하는 우리 평양!...

둘러보는 모든것이 더욱 정들어보인다. 저기 우뚝이 솟아있는 22층교사의 어디엔가 있는 나의 교실도 정답게 그려보고 송화가루를 흩날리며 미풍에 설레이는 룡남산술숲이며 구내길에 떨기떨기 피어난 꽃송이들도 오늘따라 더욱 유정하게 안겨온다.

어째서일가? 머지않아 졸업증을 안고 이 교정을 떠나게 되어서일가!

문득 나의 시야에는 들꽃 만발한 동구앞 버들방천까지 따라나온 어머니에게 깊숙이 절을 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풍만한 열매를 맺을것이 아닌가! 이런 청년을 사랑한 그 처녀가 부럽기까지했다.

한무리의 대학생청년들이 나의 앞으로 걸어오고있었다. 무엇인가 토론에 열중하며... 열기띤 그들의 음성을 흘러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저들 역시 조국이 바라고 그들을 부른다면 서슴없이 청춘을 바치리라.

나는 오래도록 한사람 한사람의 대학생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시대의 앞장에서 참다운 리상과 포부, 사랑을 창조해가는 그들을...

폭을 헤아릴수 없는 커다란 붉은 기발이 덮인듯 하늘은 온통 황홍색으로 변하였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마음인듯 노을이 불타고있는것이다.

떠나던 고향길이 지척인듯 삼삼히 떠오른다. 그날의 가없이 들린 푸른 하늘은 그대로 창창한 나의 미래를 약속해주는 희망의 하늘이였었다.

추억은 아름다운것이다. 더구나 배움의 최고전당에서 마음껏 배우며 뛰놀던 추억은 미구에 사회생활의 매 계기들에서 아름다운 음향으로 삶을 채색하여줄것이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저기 높이 솟은 룡남산 언덕우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이 처녀를 굽어보고계신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오, 내 딸이로구나. 단발머리처럼새로 대학에 들어서던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한단 말이지!》 하고 무척 대견해하시는데만 같았다.

《어버이수령님!》

목메여 속삭이는 나의 두볼로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산골마을의 문학소녀에 불과했던 나에게 대학이라는 넓은 활주로를 안겨주시고 빛나는 미래에로 나래칠 억센 날개를 달아주신 그 사랑, 그 은정이 너무도 커서 무엇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올

려야 할지 몰라 이윽도록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  
를뿐이다.

어느덧 나의 뇌리속에는 지난날 이야기가 되새  
겨지고 마음은 전화의 그날에로 달려간다.

...와- 소나무숲의 설레임소리만 울리던 백송리  
골안에 우리같은 만세소리가 터져오른다. 여기저  
기서 반토굴교실문들이 벌컥벌컥 열리며 눈물에  
젖은 검실검실한 얼굴들이 뛰어나왔다.

오매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산속의 종  
합대학》-백송리를 찾으신것이다.

《수령님!...》

만나뵈오면 아뢰이고싶은 이야기들도 많았던  
대학생들, 수령님을 뵈고싶다던 술한 전우들의  
마음을 함께 안고 서있건만 솟구치는 감격에 목  
이 메여 그저 흐느끼고만 있는 제대군인 대학생  
들!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자애롭게  
돌려보시며 전선에서 호랑이같던 사람들의 마음  
이 여리여서는 안된다고 다심하게 타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전선에서 적을 잡는것이 기본임무  
였다면 이제는 학습을 잘하는것이 첫째가는 임무  
라고, 학습도 전투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전선의 시각을 다루는 문제들을 수없이 안고계  
시는 그이께서는 이날 해저물도록 대학의 운영사  
업과 교직원, 학생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고 소박한 시랑송모임에도 참석하시여 잘한  
다고 남먼저 박수를 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전선걱정은 말고 공부에 전념하도  
록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언젠가 백송리혁명사적지를 참관한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 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  
다.

《나는 우리 나라가 전쟁시기에 군사대학을 운  
영하여 졸업생을 키워낸것이 세계대학사에 다시  
없는 자랑인줄로 지금껏 알고있었다.

그런데 이 백송리에 와보니 조선에서는 군사대  
학이 아닌 사민대학, 그것도 과학교육의 최고전

당인 종합대학의 운영을 전쟁시기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왔다니 나는 이 사실앞에서 놀라움보  
다도 경탄을 금할수 없다.

조선전쟁은 1953년에 끝났다고 하지만 실지  
승리는 바로 이 종합대학이 운영되던 그때에 벌  
써 마련된것이다.》

그렇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민  
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우리 혁명의 로정  
에서 오직 승리의 기발만을 휘날리게 한 무한대  
한 힘의 원천인것이다.

한가지 사랑을 주시면 백가지, 천가지 사랑을  
더 주고싶어하시고 만가지 믿음을 더 주고싶어하  
시는 우리의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대원수님!

한없는 그 사랑, 그 믿음의 세계를 고스란히  
이어받으시여 우리 혁명을 종국적인 승리로 령  
도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새 세대들인가. 그  
사랑, 그 믿음을 삶의 영양소로 체득하고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편 우리들이기에 대학 전과정을 공  
지와 자부심을 안고 돌이켜보게 되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와 집단에 헌신적으로 복무할  
주체형의 새 세대인테리로서 시대와 혁명 앞에  
다지는 맹세이기도 하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성장한 우리들은 그  
어떤 시련의 광풍, 유혹의 바람이 불어온대도 오  
직 한길로 힘차게 걸을것이며 사회주의의 완전승  
리를 기어이 우리 세대에 이룩하여 조선을 빛내  
일것이다.

일찌기 룡남산마루에서 다지신 친애하는 지도  
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식 사회주의  
를 빛내이는 보람찬 삶의 길에서 투사가 되고 대  
오의 기수가 되리라.

심장에서 뿜어번지는 나의 이 충성의 마음을  
부추겨주듯 룡남산의 아침노을은 누리를 더욱 붉  
게 물들이고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학생)

## 운률에 대한 소감

장정춘

박동무의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나는 편지에서 박동무가 운률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며 나도 그에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아직 나 자신 그러한 논의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운률에 대해 내가 평소에 느꼈던 바를 단편적으로 간단히 적는데 그치려 합니다.

운률은 정서와 함께 시의 2대요소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서가 내적인 것이라면 운률은 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서는 시인의 마음속의 파동이라면 운률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운률은 무형의 정서에 구체적인 모양을 부여하면서 또 자체는 자기의 무의미적인 형태에다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운률은 정서와 분리된 상태에서는 성립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시적정서가 발현되는 거기서 바로 그 순간에 운률도 형성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정서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서를 떠난 《운률》은 (만약 그런 운률도 있을 수 있다면) 기계적 반복, 물리적 음향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한 운률은 재미없습니다. 우리의 일부 시들의 운률이 단조롭고 따분하며 감흥이 덜한 것은 이때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지 않은 시인들은 운률에 대한 요구성이 높지 못합니다. 지어 그것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나는 한 친구와 말하였습니다.

《운률이 신통치 않군 그래.》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운률까지야 뭘...(그는 웃었습니다.) 진 그렇다 친구 시인의 주장이 알리는가? 난 그걸 알구실네.》

《그건 물론 이해되지.》

《그렇다면 뭘네.》

이것으로써 그는 자기 시에 대해 안심하였습니다. 나는 물론 그가 운률을 전혀 망각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훌륭한 시와 운률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창작에서 운률작업을 절대 부차적인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박동무도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철의 시집 《어머니》를 펼치면 운률적 견지에서 인용하고 싶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진 것 같지도 않고 운률적으로도 별로 뛰어난 데가 있는 것 같지 않은 수수한 시 한편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 시는

이미 시인이 젊은 시절에 쓴 《나의 거리》입니다. 물론 더 좋은 시들도 있지요. 그러나 나는 이 시를 선택하였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늘쌍 좋더라

해질 무렵 사택마을길을 걷기가

피륙 들어 우리고장 민요와도 같이

아이들을 저녁상에 불러들이는

너인들의 목소리 멀리서 듣기가

주름세운 바지에 걸음도 씩씩한

합숙총각들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도

해바라기 기웃한 목책을 돌아

야외극장 향해가는 처녀들에게

가벼운 룡담을 건네여보는 것도

요란하지 않고 황홀하지도 않으며 그저 평범한 우리 생활의 진실이 노래된 그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운률이 특색있거나 재치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의 마음에 들었는가. 그것은 이 시인의 생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공장 지구의 들끓는 삶에 대한 애정이, 그 애정으로 인한 그의 희열과 그의 행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률적수법의 그 명백하면서도 단순한 특성이 마음에 들었으며 품위와 재치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지만 소박하고 꾸밈없는 그 운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아무때도 내가 이 생활의 활동으로 호흡할 수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로등 능금처럼 주렁진 거리

확성기 떠들썩 노래부르는 거리

전기로의 불길이 하늘을 물들이고

단조직장의 가락맞은 함마소리

사람들을 춤판으로 부르는 거리

지배인도, 기사도, 압연공도, 당위원장도

늙은이, 아주머니, 철없는 애들까지

하나의 공장, 하나의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아! 나의 거리-

이 거리 거닐기 늘쌍 좋더라

이 시인의 시의 특성은 그것이 풍부한 생활로 충만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그의 시들은 생활궁정의 열정이 강합니다.

나는 운률이 잘 조성된 시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률이란 재치가 있어서 잘된 것도 아니요 그저 《률동적》이라고 해서 잘된 것도 아니

며 또는 어떤 수법의 적용이 빈틈이 없이 짜였다고 해서 좋은것도 아닙니다. 무엇무엇해도 그것이 시적정서와 하나로 통일되어있을때 그것이 가장 훌륭한것입니다. 적어도 자유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박동무.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시의 운물적개성과 생동성의 결여, 그의 단조성의 원인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견해에 동의할수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들은 그 원인을 운물자체에서만 찾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보다 시인의 정서적체험세계의 결핍과 관련되어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인들에게 있는 운물작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그것을 하찮은 일로 생각하는 경향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글자수나 맞추고 시술이나 다듬는것으로 운물문제가 다 해결될수 있다는것은 아닙니다. 운물이 신통치 않다고할 때 그 원인을 운물자체에서만 찾는것은 더욱 소극적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을 나는 다름아닌 시인의 내적 정서적 요인으로 보고있습니다.

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사람은 원래 흥분하고 열정이 북받칠 때라야 보통 감정상태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심장의 박동과 호흡을 느끼게 된다.》**

나는 이 명제에 운물탐구의 비결이 심오히 밝혀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물을 외부에서 가져올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분출이며 내부의 활동입니다. 이로부터 나는 생활과 운물의 련계에 대해 자기 식으로 표상해보았습니다.

흥분된 감정은 (기쁨, 행복, 비애, 사랑, 환희 등) 먼저 심장에 작용한다. 심장은 강하게 뛰다. 그것은 호흡에 영향을 준다. 그 호흡은 말할 때 억양과 장단, 고저에 영향을 준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물조가 형성된다....

나는 이것이 자유시운물조성의 원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20년만에 생사여부를 알지 못했던 모자가 상봉합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하고 웨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만 목메인 소리로 중얼거리듯이 부릅니다.

《애야!》

어머니는 높은 소리로 말할수 없는것입니다. 시에서도 같습니다. 긴장된 감정의 순간에 운물이 형성됩니다. 감정을 잃은 시술에서는 운물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간혹 한개 시어(지어 한개 음절)가 많은 내용(한행 또는 한편의 감정이나 음량까지)은 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빛갈과 음향과 무게가 다른 시어들과 시행들을 단지 글자수에 의해서만 그 운물적가치를 규정할수 없는것입니다. 심장속에서 태어난 시의 운물만이 그것은 마치도 생명으로 충만된듯 한행

한행이 산 음악으로, 산 개성으로 감수될수 있습니다.

박동무, 그러나 이것은 시인의 정서적체험세계 그자체가 운물을 저절로 완성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운물조성의 전제로 근본조건으로 될뿐입니다. 그다음의 작업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운물이 정서적내용의 성격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독특한것인가 아니면 범상한것인가, 적중한것인가 두리몽실한것인가, 정서의 파동을 옹골치게 반영하는가 못하는가, 서정시적성격을 개성적으로 생동하게 특징짓는가 아니면 죽여버리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인은 시행조직과 보조적수법들의 다양한 활용을 통하여 매번 특색있는 운물을 새롭게 창조하는데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최근 일부 시들에서 새로운 특색있는 운물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 시인들의 긍정적인 시도와 탐구의 흔적을 엿볼수 있는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실례로서 동기춘의 시초《광주가 부르는 소리》중의 시 《5월이면》(《문학신문》 1992년 5월22일부)을 들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의 시에 있는 반복법이며 대구법이며 또 그밖의 이런저런수법들의 활용에 대해 일일이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나는 이 글을 그 시의 전반부분을 인용하는것으로 그치려 합니다.

5월이면  
바람이 되지  
나는 바람이 되지

불어불어 불어가  
무등산에 불어가  
봉분 금잔디  
피땀 잎끝에 걸채며  
찢어지는 찢어지는  
바람이 되지

5월이면  
부슬비 되지  
나는 부슬비 되지

내려내려 내려서  
금남로에 내려서  
물힌 피자욱  
깎 먼지 아리게 씻으며  
통곡하는 통곡하는  
부슬비 되지  
...

박동무,

글이 산만해진것 같습니다. 다만 의도를 다소나마 이해해준다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창작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면서.

# 그립던 땅에서 (1)

(중국) 김동호

## 행복

-생일상을 받고-

행복,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찌 한두마디 말로  
해석할수 있으랴  
어찌 한수의 시로  
이루 다 노래할수 있으랴  
더더구나 오늘의 이 행복에 대하여

진정 오늘에야 내  
행복의 참뜻을  
가슴깊이 알았노라  
심장으로 느꼈어라

오매불망 그리던 고향  
고향땅에 이 몸을 불러주시고  
언제나 와보고싶던  
어머니고국의 품에 안아주시어  
평생의 소원 풀었는데  
오늘 또 이렇듯  
고국의 수도 호화론 호텔에서  
생일상까지 푸짐히 안겨주다니...

-고마워라 고향의 벗들이여...  
내 벗들앞에 목메여 흐느끼는데  
그대들이 들려주는 정겨운 이야기  
가슴뜨거워라 눈물 솟구쳐라

-친애하는 지도자 그이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동포들이  
이 땅에 와 생일날을 맞으면  
꼭 생일상 차려주라고...

오, 내 무엇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리까!  
산설고 물설던 이국땅 오두막에서  
나를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  
듣습니까? 보십니까?  
구천에서 굽어보십니까?

부모님 못다준 행복을  
내 오늘 여기서 받아안았습니다  
모국땅에 다시 못오시고  
이역에서 원한 품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이 자식은 랑친부모님 못준 복을  
어버이 뜨거운 사랑을  
황송스러이 받아안고

목메여 흐느킵니다  
눈물이 솟구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해와 별을 우러러  
자랑합니다 웨칩니다  
-오, 이 시각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

## 아, 어머님

-두만강을 건너며-

강을 사이두고 강기슭에서  
수십년을 하루같이 건너다보던 땅  
그리움에 젖어 눈물 머금고  
하냥 바라보던 산  
내 오늘은 나래 펼쳐  
훨훨 날아넘는다  
쪽박차고 눈물 뿌리며  
건너오셨다는 이 두만강을  
내 오늘 노래하며 흐느끼며  
자동차 타고 달려간다 넘어간다

한줄기의 강을 건느는것이  
어이하여 이다지도 목메이느냐

어이하여 이토록  
눈물이 앞서느냐

-고향이 어디시요?  
누가 물을 때마다  
대답대신 강남을 바라보았더니  
오늘은 내 고향으로 간다  
가노라 간다 피줄을 찾아간다

오십넘은 이 몸이  
어린애되어 저-기  
두팔 벌리신 어머님품을 향해  
달려간다 날아간다

백살구꽃 활짝 피워놓으시고  
어서오라 부르시는 어머님  
용서해주세요  
뒤늦게야 와 뵙는 이 불효자식을

아, 그림고 그리웠던  
나의 어머님!  
우리의 김정숙어머님!

## 고향달

강북에서 보던 달  
강남에 와 보누나

오, 밝은 달아  
나를 따라 너도 왔느냐  
아니 너는 워낙  
여기에 있었느냐

바라보니 방금 웃음짓고  
귀기울이니 속삭이는듯-  
아 잠들수 없는 밤이어  
고향의 달밤이어

이번길에 고국땅을

나하고 함께 가보고싶다던  
안해도 아이들도 지금쯤  
잠못들고 너를 쳐다보고있을테지

달아, 고향의 깨끗한 달아  
너 이밤만은 거울이 되어주려마  
어머님품에 안긴 이내모습 그들이 보고  
고향 그리는 그들의 얼굴 내가 보게

단 일분간이라도  
거울이 되어주렴  
잠간만이라도  
아, 잠간만이라도...

## 나래 돌힌 마음

- 평양행 렬차에서 -

차창을 내다보니  
산도 웃고 물도 춤추누나  
나도 함께 같이 가자  
손저으며 달려오며

산에 산에 나무들도  
하늘가에 꽃구름도  
나를 따라오누나  
날아 날아오누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해님 솟은 평양으로  
한평생 가고싶던  
어버이 그 품으로

산에 산에 진달래도  
반가워라 웃음짓고

들에 들에 겨레들도  
손저으며 바래주네

세상에 가고픈곳  
많고많아도  
제일제일 가고픈곳  
마음의 고향

한뼘 평생 소원중에  
제일 큰 소원  
간절하던 소원을  
오늘에야 푸누나

달려라 렬차야  
어서 달려라  
내 마음이 너를 앞서  
나래쳐간다

## 하나의 지향

- 곳곳마다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글발을 우러르며 -

이 세상에 많고많은 나라 있어도

나는 아직 몰라라 못보았노라

중국-조선

조선-중국

이보다 더 가까운 나라

어디 있으랴

멀고 가까움의 지리적거리를 두고

내 말함이 아니여라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는 속담은

친척과 마을을 두고 하는

그 뜻만이 아니여라

하나의 피줄 타고났어도

외적을 등에 업고 살판치는

역적들도 있거니...

고난의 어제날엔 손에 손잡고

20세기 《최강국》이라 날뛰던

두 제국주의강도떼를

함께 요정내인 우리

창업과 건설의 오늘날엔

- 《우리 식 사회주의》

- 《중국식 사회주의》

서로의 기치높이 내달리는 우리

후손만대를 바라보는 래일을 두고

공산주의리상 펼쳐가는

하나의 리념 하나의 지향

하나의 뜻을 지닌 우리

오, 평양-베이징

베이징-평양

미더운 형제

영원한 이웃

온 세상의 본보기여!